선군-김정일정치

선군-김정일정치

외국문출판사
조선 · 평양
주체101(2012)년

차 례

머리말 ························ 4

1. 력사로 본 선군정치 ················ 6

1) 선군정치는 력사의 총화 ················ 6

정치와 군력 ···················· 6

총대가 약하여 당한 망국의 치욕 ··········· 10

군력이 약했던탓에 ················ 13

2) 선군정치의 력사적뿌리 ··············· 18

선군사상의 창시 ················· 18

선군혁명의 새 력사 ················ 21

정규무력의 건설 ················· 25

3) 선군정치의 출현 ················· 27

선군정치는 이렇게 시작되였다 ··········· 28

선군정치의 첫 기슭에서 ·············· 29

최고사령관의 중책을 맡다 ············· 33

4) 선군정치의 전면적확립 ··············· 36

다박솔초소에 대한 시찰 ·············· 36

철령을 넘어 최전연으로 ·············· 40

국방공업을 최우선시하다 ·············· 47

국가체제로 고착된 선군정치 ············· 49

선군정치방식의 선포 · · · · · · · · · · · · · · · · 51

2. 뜻으로 본 선군정치 · · · · · · · · · · · · · · · 54
1) 선군정치의 본질 · · · · · · · · · · · · · · · · · · 54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는 정치 · · · · · · · · · · 54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는 정치 · · · · 57
2) 선군정치의 사상적기초 · · · · · · · · · · · · · · · 61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 · · · · · · · · · · · · · · · 61
선군사상의 기초원리 · · · · · · · · · · · · · · · · 64
3) 선군혁명의 원칙 · · · · · · · · · · · · · · · · · · 69
군사선행의 원칙 · · · · · · · · · · · · · · · · · · 70
선군후로의 원칙 · · · · · · · · · · · · · · · · · · 73
4) 선군정치는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 · · · · · · · · · 76
5) 선군정치의 근본바탕 · · · · · · · · · · · · · · · · 79
6) 선군정치의 3대혁명력량 · · · · · · · · · · · · · · 83

3. 현실로 본 선군정치 · · · · · · · · · · · · · · · 88
1) 총대로 실현하신 수령영생위업 · · · · · · · · · · · · 88
2) 군사강국의 위용 떨치다 · · · · · · · · · · · · · · · 89
무적의 인민군대 · · · · · · · · · · · · · · · · · · 89
강위력한 국방공업 · · · · · · · · · · · · · · · · · 94
3) 핵무기보다 강한 일심단결 · · · · · · · · · · · · · · 95
혁명의 수뇌부와 일심단결 · · · · · · · · · · · · · 99
군대와 인민이 하나의 모습으로 · · · · · · · · · · · 99
4) 강성대국건설에로 · · · · · · · · · · · · · · · · · 104
군대가 앞장에서 헤쳐간 고난의 행군 · · · · · · · · 104

강계정신의 창조 · · · · · · · · · · · · · · · · 108
21세기의 새로운 혁명적대고조 · · · · · · · · · · · 111
다계단으로 일어나는 경이적인 사변들 · · · · · · · 115
최첨단돌파전의 열풍 · · · · · · · · · · · · · · · 117
5) 련전련승을 기록한 조미핵대결전 · · · · · · · · · · · 119
준전시상태선포와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탈퇴성명 · 119
작고도 큰 나라 · · · · · · · · · · · · · · · · · 125
6자회담의 결과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 · · · · · · 129
1905년과 2005년 · · · · · · · · · · · · · · · · 142
6) 통일의 새 시대가 펼쳐지다 · · · · · · · · · · · · 149
통일의 리정표- 6.15공동선언 · · · · · · · · · · · 149
곡절속에서 추진된 당국회담 · · · · · · · · · · · · 155
날로 고조되는 반미열풍 · · · · · · · · · · · · · · 164
7) 세계자주화위업과 선군조선 · · · · · · · · · · · · 169
초대국의 고민 · · · · · · · · · · · · · · · · · · 169
세계의 곳곳에 휘날리는 공화국기 · · · · · · · · · 176
찬란의 메아리 · · · · · · · · · · · · · · · · · · 187

맺는말 · 191

머 리 말

한 나라, 한 민족의 력사와 운명은 정치에 의해 좌우되며 정치가의 위대성은 그가 펴는 정치방식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수천년을 헤아리는 인류의 정치사에는 각양각색의 수많은 정치방식들이 기록되여있지만 지금까지 선군정치방식이란 없었다.

선군정치는 **김정일**령도자께서 처음으로 내놓으신 새로운 정치방식이다. 선군정치는 조선의 현실을 반영하여 나온 정치방식이지만 그것은 조선만이 아닌 자주와 독립,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이 다 공감하고 따라배우려고 하는 현시대의 보편적이고 위력한 정치방식으로 확고히 인식되고있다.

나라와 민족마다 정치가들이 있고 정치가들마다 자기가 표방하는 정치리념과 정치방식이 있지만 그것이 한 세대, 한 세기를 넘어 이어지고 한 나라, 한 민족의 지경을 벗어나 만인의 공감을 받기란 쉽지 않다.

선군정치는 조선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있다.

김정일령도자께서 선군정치를 시작하신지는 수십년전부터이지만 그것이 새로운 정치방식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것은 21세기를 전후하여서부터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랭전종식과 동유럽사회주의체계의 붕

괴로 조선의 사회주의가 운명의 갈림길에 놓여있었던 20세기말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확립하심으로써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끈질긴 압살정책에 파렬구를 내고 사회주의를 수호하시였을뿐아니라 고난속에서도 강성국가의 높은 목표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선군정치를 통하여 강력한 군사적억제력, 핵억제력을 마련하심으로써 조선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와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도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

선군정치야말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과 존엄을 지키고 부강번영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위력한 정치방식이며 승리와 성공의 상징이다.

이 책은 현대세계정치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기신 **김정일**령도자의 독특한 선군정치의 심원한 원리들에 대한 리해를 깊이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편집되였다.

1. 력사로 본 선군정치

1) 선군정치는 력사의 총화

선군정치는 지나온 인류력사와 국가정치사의 총화라고도 할수 있다.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군력의 강약에 따른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력사를 돌이켜보아도 그것은 이렇게든 저렇게든 군사력과 련관되여있음을 보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정치가들이 군사를 중시하고 군력강화에 선차적인 힘을 넣은것은 아니다. 또 설사 군사, 군력강화를 중시했다고 하여도 그것이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것은 아니였으며 더우기 항구적인것은 아니였다.

선군정치는 바로 지나온 인류력사, 국가정치사가 남긴 수많은 교훈들과 경험들을 총화하고 그에 토대하여 출현한 력사의 필연적산물이다.

정치와 군력

지구상에 민족과 계급이 생겨나고 국가가 출현한 때로부터 인류는 국가를 단위로 하여 자기 운명을 개척하여왔다. 수천여년의 년륜을 새긴 지난 인류문명의 력사는 곧 수많은 대소국가들의 출몰의 력사였다고도 말할수 있다.

고대에짚트와 바빌로니아, 고대그리스의 도시국가들과 고대로마제국, 비잔티아제국과 칭기스한의 몽골제국, 나뽈레옹제국과 짜리로씨야, 히틀러와 무쏠리니의 파쑈국가들 등 한때 세계의 광대한 령토를 차지하고 수많은 민족들을 노예화하였던 제국들이 력사의 풍운속에 하나둘 자취를 감추었다. 그가운데는 자체의 내부모순에 의하여 붕괴된 나라들도 있고 민족간, 국가간의 정복전쟁에서 패하여 사라진 나라들도 있다.

인류문명이 고도로 발전한 현대사회에 와서도 국가간, 민족간, 종족간 분쟁은 계속되고있다. 마치 쟝글속에서처럼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세계에서 민족이 민족으로서 살아남고 국가가 자기의 실체를 보존하면서 발전해나가자면 그 어느 민족, 그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국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력이란 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국가리익을 실현하고 보호할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힘의 총체를 뜻하는것이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국가간에 이러한 힘이 부단히 작용하고있다. 국가의 안전과 리익이 위협을 당하는 경우 국력을 총동원하여 싸우든가 그렇지 않으면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도 한다. 이때에 해결되는 방향은 국력이 강한 국가의 의사를 국력이 약한 국가가 받아들이는 편으로 흐른다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아무튼 국력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기본요인이며 여기서도 기본은 다름아닌 군력이다.

하기에 정치는 류혈없는 전쟁이고 전쟁은 류혈의 정치로 보는것이 계급전쟁의 정치명제이다.

계급사회가 출현한 이후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은

나라나 정치가들은 수없이 많지만 그 주되는 목적은 바로 인민들의 반항을 폭력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령토팽창의 야욕을 실현하려는데 있었다.

B.C. 12세기 발칸반도에 세워진 도시국가 스파르타의 지배계급은 30명의 대표들로 구성된 원로원을 만들어놓고 모든 사회생활을 군사적목적에 복종시켜 강권정치를 실시하였다. 이 도시국가에서 가장 신분이 높은 계급은 다름아닌 군사복무를 직업으로 하는 스파르타흐라는 군사귀족이였다. 스파르타에서는 60살까지의 성인남자들에 한해서 의무병역제를 실시하였으며 병력보충을 위하여 녀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을것을 강요하였다. 귀족가문의 모든 집 아이들은 7살이 되면 의무적으로 군사학교에 입학하여 20살이 될 때까지 가혹한 군사교육을 받아야 했으며 학교를 졸업하면 스파르타군에 지휘관으로 배치되여 한생 군사복무를 하여야 하였다. 그리하여 스파르타는 고대그리스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국가로 되였으며 모든 도시국가들을 지배하였다.

중국력사에서 전란이 가장 많았던 춘추전국시대에도 군사력은 봉건소국들의 존망과 위엄을 결정짓는 기본요소였다.

18세기초에 이르기까지 락후한 농업국으로 주변나라들의 침략의 대상으로만 되여오던 프로씨아가 유럽강국으로 될수 있은것도 프리드리히1세의 상무정책과 관련되여있었다.

프리드리히1세는 상비무력을 갖추는것을 국가건설의 기본목표로 삼고 3만 8 000명에 불과하던 군대를 8만명으로 늘였으며 모든 국가체제와 수단을 군대를 위한것으로 되게 하였다. 그리고 군률을 강화하고 훈련의 도수를 높여 프로씨아군대의 전투력을 높이였다. 그리하여 프로씨아군대는 프리드리히2세에 와서 7년전쟁(1756-1763년)에서 력량상 우세한 오스트리아군과 프랑스군을

격파하고 유럽의 최정예무력으로 되였다. 프로씨아는 그후 도이칠란드의 통일을 이룩하고 도이칠란드제국으로까지 일떠섰다.

현대에 와서도 군사강권정치는 여러 나라들에서 실시되였다. 파쑈도이칠란드의 히틀러와 일본의 히로히또, 칠레의 삐노체뜨가 나라의 군사화를 떠들면서 군국주의를 실시한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국가정치가 군권에 의거하고 군력강화에 힘을 넣은것은 비단 이뿐이 아니였다.

이전 쏘련에서도 볼쉐비크당은 사회주의10월혁명이후 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으로부터 승리한 혁명과 그 전취물을 고수하기 위하여 군력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그리고 쏘도전쟁이 개시되였을 때에도 전시의 비상기관으로서 국방위원회를 조직하고 그것이 전쟁 전기간 군사, 정치, 경제 등 국가의 전반사업을 총괄하게 하였다. 이전 쏘련은 제2차 세계대전후에도 미국과의 랭전구도속에서 국방에 큰 힘을 넣고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였다.

이처럼 군력을 강화하는 문제는 그 목적이 어떠하든, 그것이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오랜 기간 계급과 민족, 정치리념과 사회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중요한 국가전략으로 되여왔으며 군력은 더욱더 국가정치실현의 수단으로 복무하여왔다.

이런 의미에서 군력을 떠난 국가정치란 없었으며 또 있을수 없다는것이 지나온 모든 국가정치사의 총화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느 정치에서나 다 군력강화를 항구적인 선차적문제로 내세우고 정치와 군력을 하나로 통일시켰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치와 군사를 하나의 운명으로 리상적으로 결합시킨 정치는

오직 **김정일**령도자께서 내놓으신 선군정치밖에 없었다.

총대가 약하여 당한 망국의 치욕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는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백년, 천년이 지나도 절대로 잊을수도 없고 아물수도 없는 치욕의 날이 있다.

그것이 바로 20세기 초엽 일제에 의해 강요된 망국의 날이다.

오래전부터 조선강점을 노려온 섬나라 일본은 청일전쟁(1894～1895)을 통하여 조선에서 뿌리깊은 청나라세력을 몰아낸 다음 로일전쟁(1904～1905)을 일으켜 1905년에는 저들의 위험한 경쟁대상인 짜리로씨야세력을 쫓아버렸다. 그후 일본은 로일전쟁에 투입하였던 많은 병력을 조선봉건정부의 수도인 서울에 끌어들여 왕궁을 2중3중으로 포위하는 한편 도처에 군대를 풀어 조선인민의 반일기세를 억눌렀다.

방대한 침략무력을 끌어들여 삼엄한 분위기를 조성한 일본은 당시 추밀원 의장이였던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를 일본왕의 특사로 조선에 파견하여 조선황제 고종과 정부대신들을 위협하고 강박함으로써《을사5조약》이라고 하는《한일협상조약》을 날조하였다. 1905년 11월에 날조된 이《조약》에 의하여 조선은 일본에 외교권을 통채로 빼앗겼으며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고말았다.

1990년대에 발굴공개된 《을사5조약》의 원본에는 당시 리조봉건정부의 최고주권자였던 황제 고종의 서명과 국새날인이 없었다. 이것은 군사적공갈과 협잡의 방법으로 날조된《을사5조약》이 완전히 비법무효한 협잡문서라는것을 보여준다.

당시 고종황제도 이 《조약》의 비법성과 무효를 폭로하고

세계의 정의와 량심에 조선의 독립을 호소하였다.

고종은 일제가 《을사5조약》을 날조한 직후인 1905년 11월 26일 워싱톤에 간 특사 헐버트에게 《이 〈조약〉은 무력협박과 감금속에서 강요된것이며 따라서 무효라는것을 선언한다. 나는 그것을 결코 승인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의사가 없다. 이것을 미국정부에 전해달라.》는 편지를 보내였다.

고종은 한편 렬강들의 힘을 빌어 국권을 회복하려고 1907년 6월 네데를란드의 헤그(스흐라벤하헤)에서 열린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3명의 밀사를 파견하였다. 하지만 그 어느 렬강도 조선을 동정조차 하지 않았으며 결국 밀사의 한사람이였던 리준은 만국평화회의장에서 칼로 배를 갈라 조선민족의 독립의지를 시위하였다.

헤그밀사사건후 고종은 일본의 협박으로 황태자(순종)에게 왕자리를 넘겨 준 다음 일본군인들이 파수를 서는 덕수궁(왕실살림집)에서 말년을 보내다가 죽었다.

조선봉건정부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본은 그러고도 성차지 않아 1910년 8월 29일 또다시 군사적위협과 공갈밑에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함으로써 명색뿐이던 조선을 완전히 병합하고 말았다.

일제는 이 강도적인 《조약》에서 조선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왕에게 넘기며 조선을 일본에 《병합》한다는것을 규정하였다.

이로써 500여년간 존속되여온 리조봉건국가는 완전히 붕괴되고말았으며 이때부터 조선에 대한 일제의 가장 야만적인 식민지통치가 시작되였다.

근대력사에 와서 조선민족이 이처럼 눈물겨운 정상을 당해야 했던 비극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자기를 지킬 힘, 나라와 민족을 지킬 군력이 없었기때문이였다.

지나온 조선의 5 000여년력사의 년륜에는 외세의 침략이 아무리 많았어도 군력이 약하여 국권을 상실한적이 한번도 없었다.

B.C. 277년 고주몽에 의해 세워졌던 고구려는 거의 천년간이나 존재하면서 동방의 천년강국으로 그 위용을 만방에 떨치였다. 고구려에서는 군사를 중시하는 상무적기풍이 서있었는데 남녀로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말타기와 활쏘기를 즐겨하였으며 로동의 쉴참마다 무예를 련마하군 하였다. 고구려사람들의 높은 애국심과 뛰여난 무예는 외적들과의 싸움에서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하여 주변나라들이 빈번히 수십만의 병력으로 쳐들어왔지만 참담한 패배를 면치 못하였다.

그러던 조선이 리조시기에 와서 군력이 강하면 오히려 권력을 빼앗긴다는 부패무능한 봉건왕조의 집권욕에 찬 국책과 사색당쟁 (4개의 파벌이 형성되여 그들간에 권력과 재부를 쟁탈하기 위하여 벌어진 세력다툼)으로 군력이 쇠퇴해지고 국운이 기울어져 렬강들의 각축전장으로 변하였으며 종당에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고말았다.

명색이 군대라고 했지만 겨우 수천의 병정에 활과 칼, 얼마 안되는 화승총을 쥔것이 고작인 너무도 보잘것없는 군력이였으니 망국을 구경이나 하는 형편이였다. 조선군대가 일제에 의해 강제해산당하기 직전인 1907년에 병력수는 중앙군과 지방군, 비전투인원까지 다 합해서 겨우 9 000명이 되나마나하였다.

하기에 망국의 그 세월 우국지사들은 푸르싱싱 무성한 참대숲을 보며 저게 모두 조선군사라면 얼마나 좋으랴고 토로했고 억수로 쏟아지는 소낙비를 보고서도 저게 다 왜적의 머리우에

퍼붓는 화살이나 총포탄알이였다면 나라가 이렇게 망하지는 않았을것이라고 울분을 토로했던것이다.

무능한 봉건통치배들때문에 조선은 졸지에 국권을 통채로 상실당하고 인민들은 일제의 노예가 되여 피눈물나는 고역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조선의 국치일이 남긴 심각한 교훈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 국가의 안보는 바로 강력한 군대에 의하여서만 지켜진다는것을 다시한번 되새겨보게 한다.

일제의 식민지가 된 때로부터 한세기가 지난 오늘 조선은 마침내 군사강국으로 되였다.

이 력사의 기적을 낳은것이 바로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이다.

군력이 약했던탓에

군력은 곧 국력이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라는것은 비단 조선의 력사를 통해서만 찾을수 있는 진리가 아니다.

력사를 거슬러 멀리 올라가보지 않아도 군력이 약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노예가 된 나라와 민족들은 허다하다.

그레네이더가 바로 그러한 나라들중의 하나이다.

그레네이더는 까리브해의 남동부에 위치한 자그마한 섬나라이다. 령토면적이 불과 345㎢밖에 안되고 인구가 11만명인 이 작은 나라에서 1979년 3월 친미독재정권이 전복되고 인민혁명정부가 수립되였다. 바빠맞은 미국은 어떻게 해서나 진보적인 그레네이더정부를 전복하려고 각방으로 책동하였다. 미국은 그레네이더에서 반정부파들을 적극 사촉하여 1983년 10월 정변을 일으키고 그 기회를 리용하여 미국인보호, 민주주의질서

회복이라는 간판밑에 이 나라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미국은 이 자그마한 나라에 항공모함《인디펜던스》호를 비롯한 각종 함선 10여척과 수십대의 비행기, 해병대와 특수부대를 비롯한 약 1만 5 000명의 병력을 투입하였다. 하여 얼마 되지 않는 륙군만 가지고있던 그레네이더는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물먹은 담벽마냥 쉽게 무너지고말았다.

미국의 빠나마침공 역시 마찬가지이다.

빠나마는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련결하는 지협부에 있는 나라로서 오래전부터 해상교통의 중심부로 되고있다.

말그대로 노란자위와 같은 이 지역을 호시탐탐 노리고있던 미국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태평양과 대서양을 련결하는 운하굴설문제가 일정에 오르자 당시 꼴롬비아에 속해있던 빠나마에서 이른바《혁명》을 조작하여 꼴롬비아로부터 독립하도록 선심을 베풀었다. 미국의 덕을 입어 독립한 빠나마정부는 그후 미국과 빠나마-미국운하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운하굴설권과 운하지대의 영구조차권을 미국에 양도하였다. 미국은 그후 운하가 건설되자 이 지대를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수많은 군대를 주둔시켰다. 뒤늦게야 미국의 속심을 간파한 빠나마인민들은 예속적인 조약을 페기하며 빠나마운하지대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였다.

이 나라에서 반미기운이 앙양되고 특히 빠나마운하를 되찾으려는 빠나마정부와 인민들의 투쟁이 격렬해지자 미국은 공공연한 무력행사의 길로 나갔다.

미국은 1989년 12월 빠나마방위군사령부청사에 사격을 가하고는 뻔뻔스럽게도 빠나마방위군이 먼저 미군에 사격을 가했다고 선전하면서 2만여명의 무력을 동원하여 륙지와 바다, 공중으로부터 빠나마에 대한 횡포한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결국 군대가 약했던 빠나마는 순식간에 미국에 의해 강점당하였으며 국가수반이였던 노리에가는 미군에 체포되여 미국최고재판소로부터 《마약범죄집단의 우두머리》라는 죄명을 쓰고 장기형을 언도받는 수치를 걸머지게 되였다.

이것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은 오직 총대, 군력에 의해서만 담보된다는 력사의 진리를 다시한번 세계앞에 보여주었다.

제국주의자들이 입에 칼을 물고 덤벼드는 때에 앉아서 한탄이나 하고 항의나 해서는 아무런 소용없다.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귀중히 여기는 나라일수록, 제국주의자들의 항시적인 위협을 받는 작은 나라일수록 나라의 방위력을 튼튼히 다지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강경히 대응해나가야 한다는것이 력사의 진리이다.

1999년 5월 이전 유고슬라비아전쟁이 한창 벌어지고있던 때였다.

미국의 VOA방송은 이렇게 전하였다.

《매일 울리는 공습경보싸이렌소리는 베오그라드에 있어서 습관된 음향으로 되였다. 수도시민들은 싸이렌소리를 〈쎄르비아의 민족관현악〉이라고 부르고있다. … 저녁마다 〈쎄르비아의 민족관현악〉이 울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자기 집 베란다에 나와 대공포사격을 〈지휘〉하고있다. 〈좀더 정확하게〉, 〈이제는 조금 왼쪽으로〉, 〈아니, 좀더 밑으로 쏘라〉, 〈야, 맞을번했는데!〉라는 웨침소리가 울리군 한다. 유모아는 의심할바없이 쎄르비아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있다.》

미국의 VOA방송이 인간방패들에 대하여 유모아적으로 보도했지만 사람들이 무참하게 피를 흘리고 목숨까지 바치는 전쟁은 한갖 흥미거리로 여길 유모아가 아니다.

적들의 공습에 인간방패로 맞섰지만 그것은 강자앞에 선

약자의 몸부림에 지나지 않았다. 적과 싸울 군대와 위력한 무기가 없으면 피와 생명도 바쳐야 하는 눈물겨운 모습이였다.

군력에는 군력으로 맞서야지 인간방패로 맞설수 없다.

이전 유고슬라비아는 군력이 약한탓에 자기의 땅인 꼬쏘보를 미국과 나토에 양보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반제투사로, 영웅으로 떠받들리던 이전 대통령 밀로쉐위츠는 전범자로 체포되여 국제재판소의 피고석에 앉게 되였고 나중에는 억울한 죽음까지 당하게 되였다.

이 전쟁을 겪고나서 이전 유고슬라비아사람들속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우리는 이번 전쟁을 통하여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주변나라들이 나토에 합세하고 그처럼 믿었던 로씨야까지 도와주지 않는것을 보고 가슴을 쳤다. 결론은 첫째도 둘째도 자체의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것이다. 이 길만이 살길이다.》

군력이 약하면 나라를 통채로 빼앗기게 되고 군대를 틀어쥐지 못하면 이미 장악하였던 정권도 잃게 된다.

칠레대통령이였던 알옌데가 친미분자인 삐노체뜨에게 정권을 빼앗긴 사실이 이것을 잘 말해준다.

한때 미국의 고요한 뒤동산으로 불리우던 라틴아메리카지역에 꾸바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을 발화점으로 점차 반미자주화의 열풍이 일기 시작하였다.

칠레땅에 인민이 주인이 된 새 사회를 건설할 일념을 안고 자기가 이끄는 사회당을 모체로 하여 좌익정당들의 련합전선인 인민통일련합을 결성한후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알옌데는 1970년 9월 우익정당들이 내세운 립후보를 누르고 마침내 대통령으로 당선되였다.

이것은 칠레력사에서 하나의 커다란 정치적사변이였다.

알옌데는 정권을 잡자마자 제반민주주의적시책들을 실시하였다. 그는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지주들이 소유하고있던 350만정보의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누어주고 대농장제를 페지하였다. 또한 미국독점체들이 거머쥐고있던 동광산을 비롯하여 200여개의 주요공장, 광산, 은행, 체신부문을 국유화하였다.

알옌데가 취한 이러한 조치들은 대번에 광범한 대중의 지지와 환영을 받는 한편 미국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칠레에서 사회주의혁명의 불길이 타번지자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에 《제2의 꾸바》가 생겨났다고 아우성을 치며 알옌데정권을 전복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여 날뛰였다.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알옌데는 마땅히 군대와 경찰을 틀어쥐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그는 군대안의 일부 부대들과만 련계를 가지는것으로 만족하였다.

결국 알옌데정부는 거의 무방비상태에 처하게 되였고 반동들은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1973년 9월 11일 드디여 친미분자였던 륙군사령관 삐노체뜨는 미국의 사촉하에 알옌데정부를 반대하는 군사정변을 일으켰다. 아직 군부를 장악하지 못했던 알옌데는 우익반동들의 군사정변에 맞설만한 무장력이 없었다. 하여 당시 65살이던 알옌데는 직접 손에 자동총을 들고 호위성원들과 함께 대통령궁전으로 달려드는 원쑤들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최후를 마치였다.

물론 알옌데는 정당활동을 통하여 비교적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하였다. 하지만 정권을 빼앗긴 원쑤들은 결코 평화적인 방법으로 다시 정권을 틀어쥐려고 하지 않는다. 칼을 물고 덤벼드는 원쑤들앞에서 무방비상태로 있거나 그들의 《선의》에 기대를 거는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다. 폭력에는 오직

폭력으로 맞서야 한다. 알옌데는 군대를 틀어쥐지 못한것으로 하여 반정부세력앞에 정권을 빼앗기고 애써 이룩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지켜낼수 없게 되였다.

정의없는 힘은 폭력이고 힘없는 정의는 무효라는것이 바로 세계력사를 통해 얻게 되는 귀중한 진리이다.

2) 선군정치의 력사적뿌리

새로운 정치방식은 어느 한 시점에서 단번에 완성되여 나오는것이 아니다. 더우기 그것이 하나의 공인된 정치방식으로 완성되여 국가체제로까지 발전하자면 일정한 시일과 바탕이 있어야 한다.

뿌리가 억센 나무라야 사나운 비바람속에서도 끄떡없이 뚜렷한 년륜을 새기며 창공높이 자랄수 있듯이 드놀지 않는 토대를 가진 정치방식이라야 시대와 혁명을 승리적으로 향도하는 위력한 정치방식으로 될수 있다.

김정일령도자께서 펼치신 선군정치는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 선군사상에 뿌리를 두고있다. **김일성**주석께서 내놓으시고 일관하게 견지하신 총대중시사상, 선군사상과 선군혁명업적은 선군정치의 훌륭한 전통으로, 력사적뿌리로 되였다

선군사상의 창시

선군사상은 일찌기 1930년대초 **김일성**주석에 의하여 창시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일본식민지통치로 하여 조선의 운명이

칠성판에 올랐던 민족수난의 시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결연히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다. 그이께서는 무장한 적을 때려부시고 조국을 해방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무장투쟁에 있다는것을 절감하시고 상비적인 혁명무력인 항일유격대부터 창건하시였으며 그에 의거하여 간고한 항일혁명전쟁을 벌리시여 마침내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주석께서는 해방후에도 언제나 군사를 중시하고 군대를 앞세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선군령도방식을 견지하시였다.

김일성주석의 탁월하고 세련된 선군령도가 있어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미제가 강요한 준엄한 조선전쟁에서 승리를 이룩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고수할수 있었으며 선군의 기치높이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조선을 일떠세울수 있었다.

하기에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김일성**주석은 선군사상의 창시자이시고 그이의 혁명령도사는 곧 선군혁명령도의 력사라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선군사상은 아버님이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유산인 두자루의 권총에 그 시원을 두고있다.

흔히 유산이라고 하면 부모가 자식들에게 남기는 돈이나 재산같은것을 념두에 둔다. 하지만 **김일성**주석께서 아버님으로부터 넘겨받으신것은 돈이나 재물과 같은 세속적인 유산이 아니였다. 뜻을 멀리 두고 혁명이 승리할 때까지 싸워야 한다는 지원의 사상과 굶어죽고 맞아죽고 얼어죽을 각오인 3대각오, 혁명을 하자면 동지부터 얻어야 한다는 동지획득사상과 함께 두자루의 권총뿐이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남기신 두자루의 권총에는 무장투쟁이야말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있는 최고의 투쟁형태이며 전체 민중이 총을 들고 일어나 싸울 때 일본침략자들을 조국강토에서 몰아내고 나라를 해방할수 있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었다.

아버님의 한생이 집약되여있는 이 남다른 혁명유산으로부터 **김일성**주석께서는 총대의 무게를 더 깊이 받아안으시였고 무장으로 조국을 해방하고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실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였다.

선군사상의 시원을 이루는것은 두자루의 권총과 함께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강령이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던 나날에 반제, 자주, 독립의 리념밑에 뜻을 같이하는 청년들로 타도제국주의동맹(《ㅌ.ㄷ》)을 결성하시였다.

《ㅌ.ㄷ》를 결성할 당시 **김일성**주석의 나이는 불과 15살이였지만 이 조직이 조선로동당의 혁명투쟁력사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자못 크다. 《ㅌ.ㄷ》의 결성으로 조선혁명은 **김일성**주석의 령도밑에 자기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였으며 조선로동당의 력사적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ㅌ.ㄷ》의 강령에서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달성하는것을 당면과업으로, 조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나아가서 모든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세계에 공산주의를 건설하는것을 최종목적으로 제시하시였다. 《ㅌ.ㄷ》의 강령에는 자력독립의 원칙에서 무장투쟁으로 조국을 기어이 해방하려는 **김일성**주석의 투철한 반제자주정신과 결사의 의지가 집약되여있었다.

김일성주석께서 1929년 가을 중국반동군벌에게 체포되시여 지린감옥에서 치르신 옥중생활은 무장투쟁로선을 확정하시는데서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그이께서는 옥중생활을

하시는 그 어려운 속에서도 조선혁명을 이끌어나갈 사색과 탐구를 계속하시였으며 이 과정에 선행한 반일민족해방운동의 경험과 교훈을 심오히 분석총화하시고 오직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통하여서만 일제를 몰아내고 조국을 해방할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시였다.

원래 제국주의는 그 침략적, 략탈적본성으로 하여 식민지에서 결코 스스로 물러가지 않으며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례외없이 야수적인 폭력에 매여달린다.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침략무력이 격파되기전에는 식민지에서 절대로 물러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침략세력은 반드시 혁명적무력으로 때려부셔야 한다. 그런데 당시 조선에서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은 주로 무저항주의적인 실력배양이나 사대주의적인 외교공작에 머물러있었으며 무력항쟁을 제창하는 경우에도 개인테로나 산발적이고 소극적인 싸움에 국한되여있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1930년 6월말~7월초 력사적인 카룬회의에서 정식 조선혁명의 첫째가는 기본로선으로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선군사상의 창시를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선군사상이 창시됨으로써 조선혁명은 **김일성**주석의 령도밑에 선군의 길로 확고히 들어서게 되였으며 자기의 독자적인 로선과 전략전술을 가지고 승승장구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선군혁명의 새 력사

김일성주석께서는 선군사상을 창시하신 후 그것을 조선혁명실천에 구현하여 혁명군대를 먼저 창건하시고 무장투쟁으로 조선의 해방을 이룩하심으로써 선군혁명의 새 력사를 개척하시였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점은 그이께서 군대를 먼저 창건

하시고 그에 토대하여 당을 창건하신것이다.

이에 대하여 **김일성**주석께서는 회고록에서 《…나는 혁명투쟁, 특히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서 혁명무력, 폭력적진출이 가지는 결정적역할과 당시 우리 나라의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먼저 무력을 건설하고 다음에 당을 건설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라고 쓰시였다.

지난 시기의 정치사를 보면 일반적으로 당을 먼저 창건하고 그에 기초하여 국가와 군대를 조직하는것이 상례로 되여왔다.

지구상에서 첫 사회주의국가였던 이전 쏘련의 경우가 그러하였다. 이전 쏘련에서는 레닌에 의하여 1903년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맑스주의당(볼쉐비크)이 창건된 후 그의 령도밑에 쏘베트정권이 창건되고 붉은군대가 조직되였다. 중국에서도 1921년에 중국공산당이 먼저 창건되고 그 지도밑에 1927년 8월 1일 난창폭동에 참가하였던 무장폭동부대들과 후난지방농민폭동군이 합류하는 방법으로 로농홍군이 조직되였다. 사회주의운동권에서는 이렇듯 당을 먼저 창건하고 그 다음에 군건설을 이룩하는것이 하나의 움직일수 없는 공식으로 인정되여왔다.

물론 당창건이 먼저 선포되고 그후에 혁명군대가 조직될수 있다. 하지만 외래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남의 나라 땅에서 혁명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였던 조선혁명의 실정에서 하나의 통일적이고 합법적인 당을 창건하고 혁명군대를 건설한다는 것은 거의 실현불가능한 일이였다. 민족의 초보적인 생존자체가 엄중히 위협당하는 당시 조선의 조건에서 제국주의자들의 반혁명적폭력을 제압분쇄할수 있는 혁명무력의 건설은 그 무엇보다 선차적요구로 나섰다. 혁명군대를 먼저 창건하여야 무장투쟁으로 외래제국주의자들을 물리치고 그 무력적담보밑에 전민족을 자력독립을 위한 성전에로 총궐기시킬수 있었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모든 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보고 대하신 **김일성**주석께서는 당과 군대를 창건하는 중대사도 기존공식이나 관례에 구애되지 않으시고 군대를 먼저 창건하고 그 무력적담보밑에 당창건위업을 실현하는 선군후당의 방식으로 해결하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당창건에 앞서 1932년 4월 25일 상비적혁명무력인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고 그를 주력군으로 하여 일제와의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과감히 전개하시였다.

제국주의에게 령토도 주권도 다 빼앗긴 식민지, 반식민지나라들에서 무장투쟁의 직접적담당자이며 혁명의 주력군인 군대를 조직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국가권력을 쥐고있을것 같으면 동원령이나 의무병역제와 같은 법으로 무장대오를 꾸리고 무장도 손쉽게 갖출수 있겠지만 식민지, 반식민지나라들에서는 그러한 법적수단으로 사람들에게 총을 메울수는 없는것이다. 식민지민족해방혁명에서는 혁명을 령도하는 수령과 선각자들의 호소가 법을 대신하며 매개 사람들의 정치적자각과 도덕적의무가 참군을 결정하게 된다.

선행한 혁명실천에서 혁명군대조직건설의 방식과 경험을 보면 대체로 지배계급에게 복무하던 낡은 군대의 력량을 혁명의 편으로 돌려세워가지고 상비적인 대규모의 혁명무력을 조직하는 것이 상례였다.

하지만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그 어떤 자체의 민족군대도 가지고있지 못하던 식민지조선의 실정에서 혁명군대의 조직은 선행한 방식으로써는 도저히 실현불가능한 일이였다.

이로부터 **김일성**주석께서는 유격전의 형식을 기본으로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한 독창적인 로선을 제시하시고 상비적인 혁명무력의 형태를 정규군이 아니라 유격대로 확정하시였으며

유격대창건에서 나서는 사람문제, 무기문제, 교련문제, 식량문제, 군중적토대문제, 중국인반일부대들과의 관계문제를 비롯한 모든 군사정치적문제들을 처음부터 자력으로 해결해나가지 않으면 안되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 창건하신 반일인민유격대는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 애국청년들로 조직되고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의 진정한 첫 혁명군대였으며 손에 총을 들고 일제와 싸우는 전투대오인 동시에 인민들을 교양하고 묶어세워 반일성전에로 불러일으키는 정치적군대였다.

김일성주석께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할 당시 그 인원은 100여명에 불과하였다. 100만의 일본관동군에 비해볼 때 그 력량은 대비조차 할수 없는것이였다. 하지만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금도 비관하거나 주저하지 않으시고 일제와의 전면대결을 선포하고 결연히 항일전쟁을 조직전개하시였다. 그때 그이께서 믿고계신것은 오직 인민이였고 그의 아들딸들로 조직된 혁명군대뿐이였다.

오늘은 비록 100명으로 항일대전을 시작하지만 이제 머지 않아 그 대오는 1 000명, 10 000명으로 늘어날것이며 전체 조선민족이 반일성전에 한결같이 떨쳐나설것이라는것은 **김일성**주석의 드팀없는 신조였고 의지였다.

반일인민유격대는 창건된지 불과 2년도 못되는 사이에 사단으로부터 련대, 중대, 소대, 분대에 이르는 전투단위들과 통일적인 지휘관리체계를 갖춘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류례없이 간고하고 시련에 찬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그의 전투적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일제와의 수백차례의 전투를 통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는 동시에 그의 무력적담보밑에 당창건의 조직사상적준비와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의 확대발전, 전민항쟁의 준비사업을

립체적으로 밀고나가시였다. 하여 항일혁명전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은 그대로 군대이자 당이고 정권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에 대해 **김일성**주석께서는 생전에 《사실에 있어서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항일혁명시기 우리 혁명의 중추적핵심력량이며 정치적향도자이며 민족적리익의 무력적담보자였던 조선인민혁명군은 그대로 우리의 군대이자 당이고 정권이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라고 회고하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 당창건에 앞서 무장투쟁의 직접적담당자인 상비적혁명무력을 먼저 조직하시고 그를 주력으로, 핵심으로 전반적혁명운동을 밀고나가는 새로운 선군혁명방식을 창조하심으로써 조선인민은 마침내 자력에 의한 무장투쟁으로 일제를 격멸하고 나라의 해방을 실현하는 력사적위업을 성취할수 있었으며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의 새 시대를 개척할수 있었다.

정규무력의 건설

김일성주석께서 이룩하신 선군혁명전통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나라의 해방을 실현하신 다음에도 변함없이 선군의 원칙을 견지하시여 혁명군대를 정규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이다.

자주독립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자기의 군대를 가져야 한다. 나라와 민족을 보위하며 어떠한 원쑤의 침범도 물리칠수 있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지 못하고서는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다.

정규무력을 건설하는것은 해방직후 조선의 실정과도 관련되여있었다. 사실 일제의 식민지기반으로부터 해방은 되였지만 미국에 의하여 국토와 민족은 북위 38° 선을 경계로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되였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국은 친미분자 리승만의 괴뢰《정부》를 조작하는 한편 일본군대와 쟝지에스국민당군대에 복무하였던 이전 군부출신의 사람들로 《국방군》을 조직하였으며 군용도로와 군항 등 군사시설물들을 대대적으로 구축하였다.

오래전부터 조선반도를 독차지하려는 미국의 음흉한 속심을 예리하게 간파하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앞으로 미국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보위하고 나라를 통일하며 당면하여 새 사회건설을 무력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하여 정규무력건설에 큰 힘을 넣으시였다.

하지만 일제의 식민지기반에서 갓 해방된 당시의 실정에서 정규적혁명무력을 건설한다는것은 여간만 어려운 일이 아니였다. 현대적인 군사과학과 기술로 무장된 군사정치간부도 부족하였고 군사장비를 생산보장할만한 공업도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더우기 어떤 사람들은 쏘련군대가 북조선에 진주하여있고 그들에 의해 안전문제가 담보되므로 정규군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게다가 당시 조선에 와있던 일부 쏘련사람들까지도 조선사람들이 자체의 정규무력을 건설하는것을 달가와하지 않았다. 그들은 쏘련군대가 북조선에 진주해있는 조건에서 안전을 담보해주는데 무엇때문에 군대를 또 따로 조직하자고 하는가, 북조선이 자체로 군대를 조직하겠다는것은 쏘련군대를 보고 나가라고 하는것이나 같지 않는가고 하면서 조선의 정규무력건설을 여러모로 시비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주석께서는 정규무력건설을 반대하는 안팎의 주장들을 배격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마련하신 군건설의 풍부한 경험과 전통에 기초하여 항일혁명투사들을 골간으로 하는 자체의 정규무력을 건설하실것을 결심하시고 이 사업을

완강히 밀고나가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토지개혁을 비롯한 민주주의적시책을 실시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김책, 안길을 비롯한 항일빨찌산출신 간부들에게 과업을 주시여 정규적인 혁명군대를 창건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해방후 몇달이 지나 종합적인 군사정치학교인 평양학원이 창설되고 얼마후에는 각 병종의 군사지휘관들을 전문으로 육성하는 중앙보안간부학교가 설립되여 정규무력의 골간들이 수많이 자라나게 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군사간부들과 함께 로동자, 농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을 받아들여 보안간부훈련소를 조직하고 그것을 앞으로 창건될 정규무력의 핵심부대로 준비시키시였다.

그이께서 조국에 개선하시여 제일 먼저 찾으신 공장들중의 하나도 다름아닌 병기공장이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정규무력에 대한 통일적지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북조선인민위원회안에 민족보위국을 내오시고 국장으로 항일혁명투사 김책을 임명하시였다.

이러한 준비밑에 **김일성**주석께서는 1948년 2월 8일 항일무장투쟁을 직접 담당수행한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무력인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3) 선군정치의 출현

조선에서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가 언제부터 시작되였는가 하는것은 세인의 관심을 모으고있는 론점의 하나이다. 혹 어떤 사람들은 1994년 **김일성**주석의 서거후 조선에 대한 미국의

거듭되는 정치군사적압력과 경제적봉쇄로 하여 사회주의가 위험에 직면하고 세계가 일극화방향으로 나가는 정세에 대처하여 **김정일**령도자께서 선군정치를 처음으로 실시하신것으로 알고있다.

하지만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는 보다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었다.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가 언제부터 시작되였는가 하는것은 그 력사를 거슬러올라가 보면 잘 알수 있다.

선군정치는 이렇게 시작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김일성**주석의 독창적인 선군사상과 령도를 빛나게 계승하여 선군정치를 실현할수 있는 조건을 하나하나 성숙시켜오시였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1960년 8월 25일에 있은 **김정일**령도자의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대한 현지지도였다.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대한 현지지도는 그이께 있어서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첫 현지시찰이라고 할수 있었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있었던 조선전쟁시기 제105땅크사단은 반공격으로 넘어간 인민군대가 서울을 해방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제105땅크사단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여 부대에 《근위 서울》의 칭호를 안겨주시였다. 그후 이 땅크부대는 첫 지휘관이였던 항일혁명투사 류경수의 이름과 함께 불리우게 되였다.

이날 부대를 찾으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부대의 군인회관 정문 채양우에 크게 써붙인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를 보시고 아주 좋은 구호라고 하시면서 이 구호에는 어떤 역경속에서도 오직

김일성동지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당과 수령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울데 대한 높은 요구가 담겨져있다고 하시였다. 그리고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사수하는것은 인민군대의 기본사명이며 투쟁전통의 핵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는 이 구호를 높이 들고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그때로부터 1960년대말까지 근 10년간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수백여차의 현지시찰을 단행하시는 과정에 군대에 대한 정치적령도와 군사작전적지휘의 기초를 쌓으시였으며 인민군장병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받으시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을 비롯한 인민군지휘성원들은 실지 **김정일**령도자를 군최고사령관으로 대하고 받들었으며 그이의 지시와 명령에 절대복종하는 기풍을 세웠다.

이렇게 **김정일**령도자께서 인민군장병들속에서 높은 령도적권위를 지니고계신데 대하여 누구보다 기뻐하신분은 **김일성**주석이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김정일**령도자의 비범한 군사적자질과 특출한 업적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이께서 정식 인민군대사업을 직접 맡아 지도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1960년대말, 바로 이때부터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김일성**주석의 선군사상과 선군령도를 계승하여 선군정치로 조선혁명을 이끌어오시였다.

선군정치의 첫 기슭에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선군정치를 펼치시던 첫 시기부터 탁월한 군령장으로서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시였다. 그가운데

서도 미제의 무장간첩선《푸에블로》호나포와 관련된 사건은 가장 인상적이고 력사적인 사건이라고 할수 있다.

《푸에블로》호로 말하면 1968년 1월 23일 조선동해에서 조선인민군의 용감한 해병들에 의하여 나포된 배이다.

1968년 1월 24일 조선중앙통신사는 다음과 같은 보도를 발표하였다.

《조선에서 새 전쟁도발책동에 혈안이 되고있는 미제침략군은 23일 동해안 N. 39° 17.4′, E. 127° 46.9′ 인 우리측 령해에까지 무장함선을 침입시켜 계획적인 적대행동을 감행하였다.

해상순찰과정에 이에 조우한 우리 해군함정들은 우리 조국의 연해에 깊이 침입하여 오만무례하게 저항해나서는 이 해적단에 대응사격을 가하여 미제침략군 수명을 살상하고 80여명을 생포하였으며 1 000여t급 함선과 이에 장비된 고사기관총을 비롯한 저격무기 수십정과 각종 탄약 및 수류탄 수만발을 포함하여 기타 수많은 간첩용무장장비들을 로획하였다.》

《푸에블로》호의 나포는 주권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응당한 자주권의 행사였으며 민족적존엄과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선인민과 인민군대의 자위적조치였다.

《푸에블로》호는 군사적의의가 있는 모든 대상들에 대한 정탐과 군용함선과 상선들에 대한 사진촬영 및 육안정찰 그리고 군사적관심사로 되는 해양관찰을 목적으로 하고있는 군사정탐선이였다.

새벽 2시에 《푸에블로》호가 나포되였다는 급보를 받은 당시 미국대통령 죤슨은《푸에블로》호가 공해상에 있었다느니, 간첩행위를 하지 않았다느니 하며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보복하겠다고 조선을 위협해나섰다.

미국은 두차례에 걸쳐 그 무슨 군사적보복조치를 취하기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으며 그에 따라 웰남으로 향하던 핵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와 4척의 구축함으로 구성된 함대를 조선연해방향으로 기동시켰다. 그리고 1개의 비행대대를 부랴부랴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한편 일본과 남조선에 주둔하고있는 미군에 비상동원령을 내렸다. 그리고도 성차지 않아 항공모함 《요크타운》호와 《레인저》호, 무장간첩선《배너》호를 련속 출동시키고《원산을 폭격하겠다》, 《배를 빼앗아 가겠다》, 《비행장을 하나 폭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푸에블로》호가 나포된지 3일째 되는 날인 1월 26일 조선에 주재하고있는 어느 한 나라의 대사는 이 사건이 엄중한 후과를 발생시킬수 있으므로 배와 선원들을 공해상으로 놓아주는 것이 좋을것 같다는 자기 정부의 의사를 공화국정부에 공식전달하였다.

세계의 이목이 조선에로 쏠리고있던 준엄한 시각 **김일성**주석께서는 **김정일**령도자와 자리를 같이 하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김정일**령도자께 《푸에블로》호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가, 최고사령관이라는 립장에서 한번 결심을 말해보라고 하시였다.

이에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수령님, 저는 미국놈들이 항복서를 내기전에는《푸에블로》호 선원들을 절대로 석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푸에블로》호는 우리의 전리품이므로 그놈들이 항복서를 낸다 해도 돌려주지 않겠습니다, 우리 인민군대가 나포한 미제무장간첩선을 먼 후날 박물관에 전시해놓고 후대들에게 이것은 우리가 미국놈들에게서 빼앗은 간첩선이라고 말해주겠습니다라고 결연히 말씀하시였다.

그로부터 얼마후인 2월 8일 **김일성**주석께서는 어느 한 연설에서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이다라고 선언하시였다.

이 무렵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래일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여도 오늘밤까지는 사회주의건설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어느 한 극장에 나가시여 예술인들의 예술공연을 지도하시고 공장과 농촌, 학교와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때 외국의 한 출판물에는 이런 글이 실렸다.

《평양은 매우 랑만적이다. 민족의 관심하에 체육대회와 예술축전이 성황리에 개막되고 올해 농사를 의논하게 될 농업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농민대표들이 평양으로 들어서고있다.

〈워싱톤은 과연 평양을 굴복시킬수 있는가?〉

정견이 서로 다른 100명의 인사를 대상하여 이런 질문을 하였는데 그들은 하나처럼 대답하였다.

〈전쟁은 벌써 끝났다. 평양은 이겼다.〉》

1968년 12월 23일 드디여 미국은《푸에블로》호의 불법침입과 정탐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에 정식 사죄하였다.

당시 미국대통령 존슨은 사죄문을 읽어보고나서 《미국이 생겨 력사에 남긴 사죄문은 오직 이것 하나뿐이다.》라고 개탄하였다고 한다.

그때 나포된 미제무장간첩선《푸에블로》호는 오늘 100여년전 미국침략선《셔먼》호가 조선에 기여들었다가 불타버린 평양의 대동강기슭 바로 그 지점에 끌려와 반미교양의 실물로 리용되고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푸에블로》호사건이후 미국의 대형간첩비행기《EC-121》격추사건때에도 군사적령장으로서의 지략과 작전지휘능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시였다.

최고사령관의 중책을 맡다

1990년대초 쏘련을 비롯한 동유럽나라들에서 사회주의정권이 련이어 무너지고 미국이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며 전횡과 독단을 부리는 조건에서 조선은 나라의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성된 정세와 조선혁명의 성숙된 요구를 반영하여 **김정일**령도자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중책을 맡겨주시였다.

사실 **김일성**주석께서 **김정일**령도자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중임을 맡기려고 생각하신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였다.

언제인가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민무력부장이였던 항일혁명투사 오진우를 만나신 자리에서 **김정일**동지처럼 신념이 강하고 영웅남아다운 배짱과 큰 통, 멸적의 의지를 지닌 정치가를 일찌기 보지 못하였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앞으로 **김정일**동지에게 최고사령관직무부터 넘겨주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때 인민무력부장은 인민군장병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대하고 받들고있다고 하면서 천출명장인 **김정일**장군께서 계시는 한 두려울것이 없다고 신심에 넘쳐 말씀올렸다.

1991년초 어느날이였다.

이날 **김일성**주석께서는 당시 만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이 기고만장하여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첨예화시키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인민군대의 고위장령들이 참가하는 협의회를 조직하시였다. 협의회에는 **김정일**령도자께서도 참석하시였다.

협의회에서는 조성된 긴장한 정세가 통보되고 앞으로의 대책을 토의하였다. 회의에 참가한 인민군대의 고위장령들은 한결같이 **김일성**주석께서 명령만 내리신다면 이번에는 미국과 맞서 끝장을 볼 때까지 한번 본때있게 싸워보겠다고 하면서 결사전을 맹세하였다.

그들의 격동된 모습을 보고계시던 **김일성**주석께서는 문득 의미심장한 어조로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확고하게 승리할수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이길수 있다고 신심에 넘쳐 대답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흥분된 그들에게 그러지 말고 차근차근 생각해보라, 만약 우리가 전쟁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고 재차 물으시였다.

전쟁에서 지다니? 그것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였다. 더우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주석으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그들이였다. 지금까지 그들은 오직 승리에 대해서만 확신하고있었던것이다.

김일성주석의 뜻밖의 물으심에 모두가 어떻게 대답을 올려야 할지 망설이고만 있었다.

이때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수령님,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 공화국이 지는 경우에는 지구가 깨여져 망할 때입니다.》라고 저력있게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의 확신에 넘친 그 대답에 **김일성**주석께서는 책상을 내리치시며 《과시 장군중의 장군이요!》라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는것이였다.

바로 **김일성**주석께서도 그러한 대답을 듣고싶으시였던것이다.

1991년 12월 24일, 평양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9차전원회의가 소집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김일성**주석의 제의에 따라 당과 군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계시는 **김정일**령도자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중임을 맡길데 대한 문제가 중요의제로 상정되였다. **김일성**주석의 제의는 회의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지지찬동을 받았으며 결과 전원회의에서는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중책을 맡게 된다는 결정이 채택되였다.

결정이 채택된후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김일성**주석앞에서 인민군대를 영원히 당과 조국, 인민을 목숨바쳐 보위하는 무적필승의 군대로 만들어나갈 자신의 결의를 엄숙히 표명하시였다.

다음날인 12월 25일 조선인민군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 참석하신 **김일성**주석께서는 회의참가자들에게 먼저 전원회의결정소식을 알려주시였다. 순간 장내에는 폭풍같은 만세의 함성이 터져올랐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끝없는 감격에 겨워있는 대회참가자들에게 《나는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나의 명령과 같이 여기고 그의 명령에 절대복종하며 최고사령관의 령도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나갈것을 기대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 **김정일**령도자께 최고사령관의 직책을 넘겨주신 력사의 그날은 바로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의 탄생일이였다.

참으로 **김일성**주석께서 **김정일**령도자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직책부터 넘겨주신데는 선군으로 시작되고 선군으로 전진해온 조선혁명, 주체혁명위업을 선군정치로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실것을 바라시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었다.

4) 선군정치의 전면적확립

김정일령도자께서는 1990년대 중엽 조성된 대내외정세를 깊이 분석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자신께서 이미전부터 실시하여오시던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고 선군정치를 보다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시였다.

하여 조선에서는 인민군대가 필승불패의 전투대오로 강화발전되고 혁명적군인정신이 온 사회에 일반화되였으며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국가기구체계가 새롭게 완비됨으로써 선군정치는 하나의 완성된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고히 자리잡게 되였다.

다박솔초소에 대한 시찰

1990년대 중엽에 들어서면서 조선은 력사에 류례없는 최악의 역경에 처하게 되였다.

이전부터《핵의혹》을 떠들며 조선을 압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던 미국은 1994년 **김일성**주석께서 서거하신 후 조선에 대한 정치, 군사적압력과 경제봉쇄의 도수를 더 높이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미태평양함대의 비행대를 총출동하여 남조선지역상공을 작전무대로 북침기습타격연습을 개시하였으며 남조선괴뢰군과 함께《을지 포커스 렌즈》,《독수리》등 대규모적인 북침전쟁연습을 년중 그칠사이없이 계속 벌려놓았다. 미국은 또한 전략정찰기들을 들이밀어 공화국북반부 전지역에 대한 정탐

행위를 대대적으로 감행하는 한편 항공모함전단을 조선동해에 끌어다놓고 핵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군사력을 사용하겠다고 내놓고 위협해나섰다. 하여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팽팽한 정세가 조성되여있었다.

당시 조선은 군사적으로뿐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심대한 위협을 받고있었다. 1990년대초 사회주의시장이 무너진 결과 조선은 일체 필요한것을 자본주의시장에서 사들이지 않으면 안되였는데 이를 기화로 미국은 조선에 대한 경제제재와 봉쇄를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미국은 《코콤》(와세나협정으로 바뀜)을 비롯한 각종 국제적인 통제수단들을 총발동시켜 조선에 대한 경제봉쇄를 더욱 강화하였다. 미국은 조선을 비최혜국 및 적국관세명단에 올려놓고 차별적인 관세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일본도 조선에 대해서만은 가장 높은 기본세률을 적용하였다. 일체 상품이 조선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국제적인 금융거래의 길을 완전히 차단해버림으로써 조선을 경제적으로 질식시키고 말리워버리려는것이 미국과 서방자본주의나라들의 속심이고 목적이였다.

결국 조선에서는 경제건설과정이 점차 침체상태에 들어갔으며 심각한 경제적난국이 조성되게 되였다.

설상가상으로 몇해째 련속 들이닥친 큰물과 해일, 가물 등 파국적인 자연재해로 하여 극심한 식량난까지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여기에 연료난, 동력난이 잇달아 겹쳐들었다.

이 엄혹한 시련과 난국은 조선의 매 가정, 매 사람의 생존자체를 엄중히 위협하였으며 국가의 안전을 지키느냐 못지키느냐 하는데까지 이르게 되였다.

사면팔방에서 조여드는 위협앞에 굴복하느냐 아니면 난관을 타파하면서 사회주의를 고수하느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 놓여있었던것이 당시 조선이 처한 력사상 가장 긴박한 상태였다.

이렇게 되자 서방세계에서는 조선이 조만간에 타협의 길을 택할것이라고 하면서 북조선개방설이 나돌기까지 하였다.

이 시각에 조선혁명과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김일성**주석의 한생을 돌이켜보시였다.

사실 주석의 한생은 선군혁명의 한생, 선군령도의 한생이였다고 말할수 있었다.

그렇다, 모든것을 주석의 뜻대로, 주석의 식대로 해나가자, 주석께서 간고한 조선혁명을 선군령도로 헤쳐오신것처럼 선군령도로 이 난국을 타개해나가자, 선군령도, 선군정치만이 조선을 살리고 사회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방책이며 최강의 보검이다.

이렇게 결심을 굳히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새해 1995년이 시작되는 날 금수산기념궁전(당시)에 계시는 **김일성**주석의 령전을 찾아 삼가 인사를 드리시고 력사적인 선군장정의 길에 오르시였다.

사실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을 잃고 처음으로 맞는 새해 아침 **김정일**령도자께서 신년사를 하시거나 학생소년들의 설맞이 공연을 보아주시리라고 생각하고있었다.

하지만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김일성**주석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1994년 신년사를 TV로 다시 방영하도록 하시고 자신께서는 조용히 인민군부대에 대한 현지시찰의 길에 오르시였다.

그이께서 새해 첫날에 찾으신 인민군부대가 바로 후날 세상사람들에게 다박솔중대로 널리 알려진 포중대였다.

꿈결에도 그리던 **김정일**최고사령관동지를 초소에 모신 영광을 지닌 중대군인들은 북받치는 격정을 누르며 만세의 환호를 터쳤다. 군인들로부터 새해의 첫 꽃다발을 받으신 그이께서는 《나는 1995년을 맞는 우리 당에 충실한 조선인민군 장병들을 열렬히 축하합니다.》라고 뜻깊은 새해축하인사를 하시였다.

군인들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포진지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키낮은 소나무들의 설경을 유정한 눈길로 바라보시다가 이런 곳을 다박솔중대라고 한다고 정겹게 말씀하시였다.

포진지에서 포병들의 화력복무훈련을 구체적으로 지켜보신 그이께서는 중대가 전투적기백이 있다고, 모든 중대들에서 이 중대와 같이 전투훈련을 싸움맛이 나게 한다면 인민군대가 일당백의 무적의 전투대오로 강화될것이라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당에 무한히 충실한 강대한 인민군대가 있는 한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다는것은 확정적입니다.》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찬바람 부는 포진지에서 오랜 시간 훈련을 보아주신 다음 중대교양실과 병실을 돌아보시고나서 중대군인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이 새해의 아침 어찌하여 **김정일**령도자께서 다박솔초소를 찾아주시였는지 그이께 꽃다발을 드린 병사들도 몰랐고 그 화폭을 신문과 TV에서 보는 인민들도 몰랐으며 조선에 이목을 집중하고 그이의 활동을 주시하던 세계도 아직은 다 몰랐다.

하기에 그해 1월초 외국의 한 통신은 이렇게 보도하였다.

《**김일성**주석을 계승할 **김정일**장군이 새해 정초임에도 신년사를 포기하고 군시찰을 단행했다는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하다. 흔히 새로 출마한 령도자가 첫 정치활동일정을 어느 분야에 정하는가 하는데 따라 그의 차후 정치의 방향이 결정되고 그가 의거하게 될 정치적력량이 확정된다고 볼 때 이 사실의 근저에 무엇이 깔려있는지는 두고보아야 할것이다.…》

다박솔초소에로의 길, 그것은 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내세워 선군정치로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김일성주석의 생전의 뜻과 위업을 기어이 완성하시려는 **김정일**령도자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결심을 내외에 선포한 력사적인 선택의 길이였다.

철령을 넘어 최전연으로

조선의 동부에 위치하고있는 철령은 오르면서 40리, 내리면서 40리나 되는 험한 령으로 알려져있다. 철령을 넘어서면 북과 남의 군사분계선이 동서로 길게 늘어져있다. 그래서 철령은 최전연의 관문이나 같다고 할수 있다. 이런 최전방에 최고사령관이 직접, 그것도 한두번도 아니고 무려 10여차례나 현지시찰나온다는것은 결코 범상한 일이라고 말할수 없다.

예로부터 동쪽관문으로 알려진 철령이 선군의 상징으로 되는것은 이 령의 아흔아홉고개에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장정의 험난한 행로가 비껴있기때문이다.

철령을 넘어 최전연부대들을 시찰하신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장정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였다. 그 길에는 적들의 총구가 노리는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고 아차 실수하면 돌이킬수 없는 후과가 빚어질수 있는 위험한 고비도 수없이 많았다. 적들은 **김정일**령도자께서 자주 최전연부대들을 시찰하시는데 대하여 신경을 곤두세우고 감시를 더욱 강화하였다. 그이의 신변안전을 념려하여 언젠가 일군들이 그이께 부디 사납고 험한 철령을 더는 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말씀드린적이 있었다.

그때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그들의 청을 들어주실수 없는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으시였다.

…나도 철령이 사납고 험한 령이라는것을 잘 안다. 령을 톺아오르다가 아차 실수하면 천길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진다는

것도 모르는바가 아니다. 그런데도 자꾸 철령을 넘나드는것은 철령너머에 사랑하는 나의 전사들이 최고사령관을 기다리며 조국의 방선을 지키고있기때문이다. 그들이 언땅에 배를 대고 적진을 지켜보며 밤을 지샐 때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는가. 그들은 이 최고사령관을 생각하며 온몸이 얼어드는것도 온몸이 물크러지듯 찌물쿠는 무더위도 참아내며 전연초소를 철벽으로 지키고있다. 그러니 내가 어찌 그들을 자주 찾아가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을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수 없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다박솔초소에 선군장정의 큰 자욱을 찍으신 그때로부터 거의 해마다 철령을 넘으시였다. 언젠가는 때늦게 많이 내린 진눈으로 하여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미끄럽기까지 하였지만 최고사령관이 전선길을 알자면 직접 차를 몰아보아야 한다시며 몸소 운전대를 잡으시고 철령을 넘기도 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후날 철령을 넘어 최전연부대들을 시찰하시던 나날을 돌이켜보시면서 나는 철령을 많이 넘었다, 비를 맞으면서도 넘고 눈을 맞으면서도 넘었으며 밤에도 넘고 새벽에도 넘었다, 그래서 철령을 잊을수 없다, 지금도 철령의 험한 령길들과 높고낮은 산봉우리들이 눈에 선하다, 최전연의 전역이 손금보듯 안겨온다고 감회깊이 회고하시고나서 《나는 지금까지 철령을 넘어 최전연군부대들을 시찰하면서 선군혁명령도를 해왔습니다. 철령은 선군혁명령도의 상징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한때 서방에서는 **김정일**령도자께서 최전연부대들을 현지시찰하실 때마다 쓰시던 모자를 포수모자라고 하며 그이께서 《범》을 잡으러 《사냥터》에 나오신다고들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영국군추격기비행사였고 한때 나토군사령부에서 일한적 있는 서방의 한 군사평론가는 자기가 발행하는

군사잡지의 특별란에 이런 글을 냈다.

《백두산의 령장이신 **김정일**장군께서 범을 잡는 포수들의 모자를 쓰시고 최전연을 시찰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제국주의련합의 압살이 최절정에 오른 이때 포수모자를 쓰고 적의 코앞인 최전연에 신출귀몰하는 **김정일**장군이 뜻밖에 나타나신것이다. 장군의 사격술은 너무도 명성이 높아 그이께서 〈사냥터〉에 이르시자마자 온갖 맹수들이 꼬리를 사리였다.》

군사평론가는 **김정일**령도자의 포수모자를 부각시키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시기 영국군의 유명한 원수였던 몽고메리의 군모를 언급하였다. 몽고메리는 늘 장군모표와 장갑병모표를 함께 나란히 꽂은 군모를 쓰고다니였다. 그는 자기의 군모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각 부대 관병들은 이 모자를 보기만 하면 내가 왔다는것을 인차 알게 될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모든 행동에 나의 관심이 크다는것을 알게 되며 내가 안전한 후방에 들어앉아 명령만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는것을 알게 될것이다. 나는 제1차 세계대전시기 소대장도 하였고 참모로도 복무하였지만 총사령관은 한번도 본적이 없었다. 이것은 관병들의 전투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였다. 그래서 나는 눈에 잘 띄우는 이런 모자를 쓰고다닌다.》

군사평론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썼다.《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의 포수모자는 몽고메리의 모자에 감히 대비할수 없는 모자이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세계제국주의련합세력에 단호히 맞서나서는 **김정일**장군께서는 직접 범사냥군의 모자를 쓰시고 〈범〉을 잡으러 나오신것이다. 그이께서 〈사냥터〉로 나오시자 목표로 삼은 〈맹수〉들은 어디론가 다 꽁무니를 사리고말았다. 그이께서 제일 처음 방아쇠를 당길 목표는 어느 〈범〉인가?》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장정의 발자취가 찍혀진곳은 철령만이 아니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최고사령관은 병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라도 다 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며 장마철 진탕길에 미끄러지는 차를 몸소 어깨로 미시며 150여굽이나 되는 전선중부의 오성산에만도 무려 7차례나 오르시였고 사나운 풍랑을 헤치시며 외진 섬방어대들도 빠짐없이 다 찾아주시였다. 지어 그이께서는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적들과의 거리가 불과 20～30m밖에 안되는 판문점에도 나가시여 인민군전사들에게 자주적근위병이라는 값높은 영예와 백승의 담력을 안겨주시였다.

전선동부에서 서부로, 서부에서 다시 중부와 동부로 쉬임없이 최전연부대들을 찾으시는 **김정일**령도자의 모습은 항일무장투쟁시기 빨찌산축지법을 쓰시며 일제를 통쾌하게 족치시던 **김일성**주석의 모습 그대로였다.

1996년에 2만 5 000여리, 1997년에 3만리, 1998년에 4만리, 대국상후 이렇게 해마다 늘어난 **김정일**령도자의 군현지시찰의 길은 륙해공군의 대련합부대지휘부로부터 외진 섬방어대들과 산간초소들에 이르기까지 군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다 잇닿아있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1996년 2월 27일 전선동부에 위치한 351고지를 시찰하시였다.

351고지는 비록 높지 않은 고지이지만 그 위치로 보아 전선동부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할수 있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적들도 이 고지를 타고앉아야 조선의 명산 금강산을 점령할수 있고 북쪽으로 계속 공격해갈수 있다는것을 알고있었기때문에 《서울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351고지는 내여줄수 없다.》고 하면서 351고지와 그 일대의 주요고지들을 끝까지

타고앉으려고 발악하였던것이다. 하지만 조선전쟁의 마지막 시기인 1953년 6월 인민군대의 드세찬 공격앞에 미군은 단 15분만에 고지를 내여주지 않을수 없었다. 이때부터 351고지는 조선인민군의 무비의 용감성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대소한추위에 못지 않은 맵짠 칼바람에 옷자락을 날리시며 고지의 정점에 오르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포대경으로 적들의 초소를 근엄하게 굽어보시였다. 부대의 한 지휘관이 그이께 적초소까지의 거리가 1 200m이며 적들이 무반동포로 351고지를 항시적으로 조준하고있기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보고드리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흔연히 웃음을 지으시며 일당백초병들이 초소를 튼튼히 지키고있기때문에 무서울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고지의 방어시설상태와 전선지대의 지형지물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351고지는 해안방어작전견지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공격작전견지에서도 전술적으로 중요한 고지이라고 하시면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351고지를 쟁취하고 사수한 영웅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부대를 떠나시면서 부대군인들이 351고지영웅들의 혁혁한 전투전통을 살려 앞으로 적들과의 결사전에서도 전군의 모범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미국은 **김정일**령도자의 351고지시찰소식을 듣고 긴장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북조선에 대한 압살이 최절정에 오른 그때 군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령도자께서 직접 최전연에 나오시였기때문이였다. 이것은 곧 미국과의 전면전쟁을 위한 작전전술과 전투준비를 현지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기 위해서였을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다.

사실 숨죽은 공장들과 생활난을 겪고있는 인민들의 정상을 보시면서 공장이나 농촌이 아니라 군인들을 찾아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는 **김정일**령도자의 심정은 형언할수 없이 쓰리고 아프시였다. 그때마다 그이께서는 지금은 그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회주의를 지키고 봐야 한다, 우리가 이제 승리의 통장훈을 부르게 될 때 인민들은 내가 왜 경제사정이 곤난하다는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나갔는가 하는 것을 리해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하시며 마음을 다잡고 분연히 길을 떠나군 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최전연부대들가운데서도 **김일성**주석의 령도사적이 깃들어있는 부대들은 아무리 멀고 험한 곳에 있다해도 빠짐없이 다 찾아가시였다.

1997년 4월 15일이였다. 이날은 **김일성**주석의 탄생 85돐이 되는 뜻깊은 명절날이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날도 철령을 넘으시여 또다시 전선동부 1211고지와 지혜산일대를 방어하고있는 부대들을 현지시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정중히 인사를 올리는 부대일군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고나서 나는 수령님의 탄생 85돐을 맞는 오늘 1211고지와 지혜산일대를 방어하고있는 인민군장병들을 만나보려고 왔다, 내가 수령님의 탄생기념일에 인민군부대를 시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나는 이번에 어느 부대에 가볼것인가 하는것을 많이 생각하다가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수령님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1211고지에 나와보기로 하였다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였다.

1211고지로 말하면 지난 조선전쟁시기 가장 가렬처절한 싸움이 벌어졌던 준엄한 결전장이였다. 전쟁시기 미군은 주타격방향을 1211고지에 두고 수십만의 대군과 수천대의 비행기, 땅크,

포를 비롯한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1211고지에 대한 발악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때 미군이 얼마나 많은 폭탄과 포탄을 퍼부었는지 산봉우리들의 높이가 낮아졌다고 한다. 인민군용사들은 적들의 폭격과 포격으로 아름드리나무들이 뿌리채 날아나고 바위들이 부서져 가루가 되는 속에서도 **김일성**주석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갱도에 의거하여 수백차에 걸치는 적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고지를 목숨으로 지켜냈다. 바로 이 1211고지방위전투에서 리수복영웅을 비롯하여 여러명의 공화국영웅들이 배출되였다.

* 리수복 ; 1951년 10월 30일 1211고지 좌측 무명고지를 적들로부터 빼앗기 위한 전투에서 적의 화구를 몸으로 막아 부대의 돌격로를 열고 18살의 꽃나이청춘을 바쳤다.

이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여러 시간동안 싸움의 흔적이 력력한 격전장들과 갱도들을 돌아보시면서 1211고지방위자들의 영웅적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적초소와의 거리가 불과 1 000m밖에 되지 않는 위험한 감시소에도 오르시여 부대군인들이 방어지대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튼튼히 꾸린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어 1211고지와 린접하고있는 지혜산에 오르시였다. 조선전쟁시기 **김일성**주석께서는 바로 이곳 지혜산에 오르시여 너럭바위우에 작전도를 펼쳐놓으시고 1211고지방위전투를 승리에로 조직지휘하시였다. 그날의 사연을 전해주는 현지지도표식비앞에 서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는 오늘 4월 15일을 최전연에서 맞다보니 금수산기념궁전에 가서 수령님께 경의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지혜산에 세운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표식비앞에서 수령님께 경의를 드립시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김일성**주석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와 격정을 금치 못하며 **김정일**령도자의 구령에 따라 현지지도표식비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거수경례를 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모든 군인들이 조국의 최전연초소를 철벽으로 지켜나갈데 대한 믿음을 안겨주시고 초소를 떠나시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최전연부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은 조선의 운명, 사회주의운명을 수호하기 위한 사생결단의 길이였으며 선군으로 시작된 조선혁명을 선군으로 기어이 완성하기 위한 거룩한 장정이였다.

국방공업을 최우선시하다

선군정치는 군사를 제일국사로 여기고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군사에 필요한 모든것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할것을 요구한다. 국력에서 기본은 군력이며 그것은 국방공업에 의하여 결정된다. 자체의 국방공업을 건설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무장장비와 군수품들을 만들어 군력을 튼튼히 다져나갈수 있고 적들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수 있다.

군수물자가 부족해서는 현대전쟁을 치를수 없다. 자료에 의하면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일반병종 집단군이 공격작전을 할 때 하루평균 탄약이 1 200t정도 소비되였다면 오늘의 전쟁에서는 하루에 탄약이 4 000t정도 소비되는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제4차 중동전쟁시기 수리아군이 이스라엘군에 대하여 반공격을 할 때 어느 한 사단은 1 500문의 포로 55분간 포병준비사격을 하였는데 포탄을 약 10만 5 000발 쏘았다고 한다. 미국은 1991년에 있은 만전쟁 40여일동안에 태평양전쟁시기 14개월동안

출동한 비행기수의 11배에 달하는 비행기를 동원하여 웰남전쟁 9년동안에 투하한 폭탄의 1.5배에 달하는 8만 8 500t의 각종 폭탄을 투하하였다.

탄약을 비롯하여 현대전쟁이 요구하는 그처럼 많은 군수물자를 제때에 원만히 생산보장하려면 자체의 강력한 국방공업을 창설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하는것이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국방공업을 중시하시였으며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국방공업을 창설하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언제인가 이전 쏘련은 조선과 같이 자그마한 나라에서 어떻게 자체의 현대적인 군수공업을 창설하겠는가고 하면서 국방에 필요한 무기와 전투기술기재들은 자기네것을 가져다 쓰라고 하였다. 그리고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태평양함대를 진출시켜주겠으니 조선에서 함선을 비롯한 큰 무장장비들을 자체로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고까지하였다. 이때 **김일성**주석께서는 남의 힘을 빌어 자기를 보위할수는 없다고 하시면서 자위적인 국방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끝끝내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국방공업을 창설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중요군수공장들을 찾으실 때마다 국방공업발전에 쌓으신 **김일성**주석의 업적에 대하여 회고하시며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책동으로 어려운 조건이지만 주석의 뜻을 받들어 군수생산만은 중단없이 정상화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새 세기에 들어와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것을 선군시대경제건설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으로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진두에서 지휘하시였다.

오늘 조선에서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그치는것이 아니라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전략적로선으로 되고있다.

오늘날 크지 않은 조선이 《유일초대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당당히 맞서 싸우며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해나가는 비결은 바로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국방공업을 최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일당백의 인민군대를 가지고있는데 있다.

조선의 국방공업의 위력과 관련하여 외국의 한 출판물은 《미국이 북조선과의 전쟁에서 패할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은 북조선이 대륙간탄도미싸일을 비롯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신흥군사강국이라는것이다. 이 신흥군사강국인 북조선의 굴복을 받아내려는 부쉬행정부의 주관적욕망은 물거품이 되여버릴것이다.》라고 평하였다.

국가체제로 고착된 선군정치

정치방식이 완성되자면 그에 맞는 국가기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조선에서는 군사선행의 원칙을 구현한 국방위주의 국가기구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을 통하여 선군정치가 하나의 체제화된 사회주의정치방식으로 완성되였다.

여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1998년 9월 5일에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총의에 따라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령도자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하였다.

회의에서는 새로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는데 여기에서는 **김일성**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모신다는것을 법화한것과 함께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기능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선군정치의 헌법적담보를 마련하였다.

조선인민은 이때 수정보충된 헌법을 《**김일성**헌법》이라고 부르고있다. 이 헌법에 의하여 국방위원회가 국방부문에서의 상설적인 최고주권기관인 동시에 행정기관으로서 조선혁명의 중추적기관으로 공식 선포되게 되였다. 헌법에 국방위원회의 지위에 대해 새롭게 명기한것은 단순히 립법기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군사를 국사중의 국사로 중시한다는것을 표명한것으로 된다.

이렇게 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국방중시의 정치헌법으로 완성되게 되였으며 조선의 국가기구체계는 선군정치실현을 국가기구적으로 담보하는 체제로 될수 있었다.

새로 수정보충된 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의 지위에 맞게 그 권능도 종전보다 훨씬 높여 규정하였다.

헌법에서는 국방위원회가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국방관리기관으로서 일체 무력에 대한 지휘통솔권뿐아니라 군수공업을 비롯한 국방사업전반에 대한 조직지도권까지 행사하도록 규제함으로써 그 법적지위를 더욱 높이였다. 또한 헌법은 국방위원회가 국방부문의 최고주권기관이기때문에 자기사업에 대하여 오직 최고인민회의앞에서만 책임지며 국방부문에서 독자적인 주권행사를 한다고 규정하였다.

조선의 군사중시의 사회주의헌법은 내외적으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1998년 9월 7일 남조선의《동아일보》는 이렇게 전하였다. …북은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를 열고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고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국정전반에 걸쳐 대폭 강화한후 **김정일**총비서를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하였다. **김정일**시대를 열었다. **김정일**총비서를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면서 국방위원장은 정치, 군사, 경제의 총체를 통솔지휘하여 사회주의조국의 국가체제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며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국력을 강화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령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임을 분명히 했다. …

그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200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라는 항목을 새로 내오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공화국의 최고령도자로 규정함으로써 선군정치체제를 보다 완비하였다. 또한 헌법에서는 국방위원장이 최고사령관으로서 나라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는데 대하여 규제하였다.

조선의 국가기구체계가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체제로 강화발전됨으로써 선군정치방식이 국가적기틀우에서 확립되게 되였으며 하나의 완성된 사회주의정치방식으로 고착되게 되였다.

선군정치방식의 선포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면서도 자신의 정치방식이 선군정치방식이라는데 대해서는 서둘러 세상에 정식 공포하지 않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말보다 실천을 중시하시고 선군정치방식을 위력한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완성하시려는 숭고하고도 원대한 뜻을 품으시였던것이다.

김일성주석의 서거후 세인이 뿜어대는 제나름의 의혹과 예측, 각이한 분석과 주장속에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선군장정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였다.

그렇게 몇년이 지난후인 1999년 2월초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선군정치는 자신의 기본정치방식이며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만능의 보검이라고 말씀하시여 자신의 정치방식을 두고 쌓여온 모든 의혹과 주장들에 비로소 명백한 해답을 주시였다.

선군정치, 그것은 전혀 새로운 정치술어로서 누구나 단번에 리해할수 있는것이 아니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2000년 정초에도 그에 대해 일군들에게 설명하시면서 자신께서는 몇해전에 인민군군인들속에서 높이 발휘되고있는 수령결사옹위정신과 결사관철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을 보고 그것을 혁명적군인정신이라고 하였으며 전당과 온 사회에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우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군대의 위력이 더욱 높아졌을 때 우리의 령도는 선군령도이고 정치방식은 선군정치라는것을 밝혔다고 말씀하시였다.

혁명적군인정신은 **김정일**령도자의 명령으로 인민군대가 맡아 완공한 어느 한 발전소건설장에서 발단되였다.

1996년 1단계가 완공된후 안변청년발전소라고 명명된 이 수력발전소의 건설은 현대적인 건설장비들을 가지고 건설한것이 아니였다. 당시 나라의 형편은 말할수 없이 어려웠기때문에 건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들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군인건설자들은 최고사령관의 명령관철에서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는 신념과 의지를 안고 희생적인 투쟁으로 건설을 진행하였다. 그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전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병사들의 정신이 아니다》라는 구호를 높이 부르며 방대한 공사의 돌파구를 열어제꼈다.

사갱을 굴진하던 한 구분대에서는 불시에 25m구간이 붕락되여 수십여명의 군인건설자들이 갱막장에 갇히게 되였다. 그들은 숨막히는 갱막장에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었지만 작업을 중단하지 않았고 구원전투를 벌리는 군인들이 배관을 자르고 그속으로 식사를 들여보내려 하자 《먹을것보다 굴진을 계속할수 있게 압축공기를 보내달라》고 웨쳤다. 이것은 군인건설자들의 불굴의 투쟁정신, 결사관철의 정신과 자기희생정신을 잘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1996년 6월 1단계준공을 앞둔 안변청년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여 물이 차있는 대형물길굴에까지 들어가보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이 발휘한 비상한 정신력과 위훈에 감동을 금치 못해하시며 발전소건설에서 발휘된 군인들의 불굴의 정신을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명명하시였다.

이러한 혁명적군인정신이 온 사회에 일반화되고 인민군대의 핵심적역할이 기정사실화되였을 때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자신의 정치는 선군정치라는데 대하여 정식 공포하시였던것이다.

선군정치는 이렇게 조선인민의 마음과 생활속에 자연스럽게 자리잡았으며 오늘은 완성된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확립되게 되였다.

2. 뜻으로 본 선군정치

1) 선군정치의 본질

선군정치를 리해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문제는 선군정치의 본질, 그 실상을 옳바로 인식하는것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 선군정치는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의 혁명적기질과 전투력에 의거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혁명령도방식이며 사회주의정치방식입니다.》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는 정치

군사를 제일국사로 한다는것은 군사를 나라의 제일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모든 사업을 군력강화에 지향시켜 풀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에서 군사는 나라와 민족의 생사존망,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대한 사업이며 반제군사전선은 사회주의의 최전선이다. 제국주의가 강도적인 힘의 론리를 추구하면서 사회주의를 압살하려고 덤벼드는 조건에서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군사력, 국방력을 백방으로 다지지 않고서는 사회주의를 지켜낼수 없고 인민대중

의 자주성도 실현할수 없다. 조선이 온갖 외세의 간섭과 압력을 단호히 물리치며 그 무엇에도 구애되지 않고 모든 일을 자기가 마음먹은대로, 자기의 배짱으로 내밀고있는것은 막강한 군사력이 있기때문이다.

선군정치는 강력한 군사력에 의거하여 조선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침략을 억제함으로써 제국주의의 침략정책에 타격을 가하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도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있다.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는 선군정치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조선반도의 안전을 수호하고 민족공동의 번영, 인민대중의 자주적지위와 권리를 담보해주는 애국, 애족, 애민의 정치로서 사람들에게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준다.

하기에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강한 군사력이 없이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도 사회주의도 지킬수 없으며 강성국가도 건설할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선군정치가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는 정치라는것은 인민군대강화에 첫째가는 주력을 돌리고있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정규무력인 군대는 자위적국방력의 중추를 이룬다. 이로부터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선군정치를 펼치심에 있어서 인민군대강화를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시였다.

여기서 주목되는것은 **김정일**령도자의 끊임없는 군현지지도였다.

한해가 시작되는 새해 정초부터 1년 12달 거의 매일과 같이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시는 **김정일**령도자의 현지시찰은 말그대로 불철주야이고 헌신적이라고 할수 있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병사들을 찾아가는것을 커다란 기쁨으로 여기시였고 모든 인민군부대들과 장병들은 그이를 모시는것을 최상의 영광으로 간주하고있었다. 이 과정속에 최고사령관과 병사들사이에 혈연적인

련계가 이루어지고 인민군대의 전투력이 급속히 강화되였다.

선군정치가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는것은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도 표현된다.

원래 국방공업은 군사력의 물질적기초이다. 강력한 국방력을 다지기 위해서는 군대를 강화하는것과 함께 국방공업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하지만 국방공업은 막대한 투자를 요구하는것으로서 경제와 사회생활의 발전에 지장을 주지 않을수 없다. 그래서 적지 않은 나라들이 국방공업이 중요하다는것을 알면서도 자체로 국방공업을 건설하고 발전시키는것이 아니라 주로 발전된 나라들에서 무기를 사오는 헐한 길을 택하고있는것이다.

국방공업과 경제건설의 이러한 반비례적인 공식을 타파하고 그것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국방공업도 발전시키고 경제도 발전시키는것이 바로 선군정치이다.

선군시대경제건설의 주요로선은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것이다. 국방공업은 중공업을 핵심으로 하고있고 현대과학기술이 집적되여있는 분야로서 국방공업의 발전은 곧 중공업과 경공업, 과학기술의 발전을 추동한다.

조선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김일성**주석의 현명한 령도밑에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의 병진로선을 실시하여왔다.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국방공업을 건설하신것은 **김일성**주석께서 혁명무력건설에서 이룩하신 최대의 공적으로 된다.

김일성주석의 업적과 뜻을 계승하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의 국방공업을 더욱 현대적이고 자립적인 국방공업으로 발전시키시였다.

사실 조선과 같이 작은 나라에서 막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나간다는것은 힘에 부친 일이 아닐수 없었다. 하지만 달리는 할수 없는것이 조선의 현실이였다.

그때를 돌이켜보시는 어느 한 기회에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감동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사실 숨죽은 공장들과 힘겨운 생활난을 겪고있는 인민들의 정상을 눈앞에 보면서 공장이나 농촌이 아니라 군인들을 찾아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는 나의 가슴은 형언할수 없이 쓰리고 아팠다. 그러나 나는 그때마다 지금은 그 어떤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회주의를 지키고 봐야 한다, 사회주의를 지켜내기만 하면 인민생활을 푸는것은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승리의 통장훈을 부르게 될 때 인민들은 내가 왜 경제사정이 곤난하다는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나갔는가 하는것을 리해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군 하였다.…

나라의 안전을 위해 모든것을 무릅쓰고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선군정치에 의하여 조선의 국방공업은 나라의 실정에 맞는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해낼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게 되였다.

선군정치에서는 이와 함께 온 사회에 군사중시의 기풍을 철저히 세워 전체 조선인민이 군사를 사랑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고있다.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는 정치

선군정치의 본질적내용의 다른 하나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그에 의거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도 힘있게 밀고나간다는것이다.

선행한 리론에서는 계급관계에서 출발하여 자본주의사회의 2대계급의 하나인 로동계급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가장 중요한 정치적력량으로 보았다. 물론 혁명의 주력군에 관한 선행리론은 당대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리론으로서 사회주의운동사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선행리론이 밝힌 혁명의 주력군에 관한 문제를 언제나 고정불변한것으로 보면서 오늘도 그것이 사회주의정치에서 그대로 적용되여야 한다고 보는것은 잘못된 견해라고 할수 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현시대의 발전과 변화된 사회계급관계를 깊이있게 분석한데 기초하여 혁명운동력사에서 처음으로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가장 중요한 정치적력량으로 내세우시였다. 선군정치가 군대를 주력군으로 한다고 할 때 그 의미는 인민군대가 직접 정권을 틀어쥐고 모든것을 좌지우지한다는것이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선군정치는 력사상에 존재한 군권정치, 군사독재와 확연히 구별된다.

력사는 군부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거나 독재자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군사력증강에 열을 올린 실례를 수많이 기록하고있다. 고대사로부터 근대사에 이르기까지는 론하지 않더라도 군국주의일본이나 파쑈도이췰란드의 정치가 바로 그러했다.

오늘의 현실에 눈을 돌려도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같이 힘의 정책을 추구하면서 군사력에 의거하여 주권국가들과 다른 민족에 대한 침략과 전쟁을 일삼고있는 나라들이 있다. 군사와 정치를 밀접히 련관시켰다는 한가지 리유로 선군정치를 이와 같은 류형의 정치계렬로 속단하는것은 잘못이다.

선군정치가 인민군대를 중요한 정치적력량으로 하는 정치라는것은 그것이 인민군대를 정치실현의 기수로 내세우고 그들의

투쟁정신과 기풍을 본보기로 하여 광범한 대중을 발동시켜나가고있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의 길은 전인미답의 길이며 시련과 난관을 항시적으로 동반하는 어려운 길이다. 이러한 길을 헤쳐나가려면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혁명의 핵심력량, 투쟁의 기수가 있어야 한다. 그런것만큼 사회주의정치의 기둥, 혁명의 핵심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그것을 어렵고 힘든 부문의 앞장에 내세우는것은 해당 정치의 위력을 충분히 발양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인민군대를 단순히 군사적력량으로만이 아니라 중요한 정치적력량으로 하는 선군정치는 군대가 령도자의 로선과 정책을 솔선 지지하고 받들어나가도록 하고있다.

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위협이 보다 로골화되고 자주적 인민이냐, 식민지노예냐 하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시고 그에 의거하여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인민군대를 경제정책관철에서도 선봉대로 내세우시였다. 식량문제, 먹는문제해결을 위한 투쟁만 놓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지난 세기 90년대 후반기부터 조선은 여러해동안 자연재해로 농사가 잘 안되고 미국의 경제봉쇄까지 받다나니 전례없는 식량난을 겪게 되였다. 조선의 현실적인 조건에서 농사를 잘 짓는것은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순한 경제실무적사업이 아니라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심각한 정치투쟁으로 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러한 형편을 헤아리시고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7년에 인민군대가 농촌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시였다.

그때 그이께서는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인민의 군대, 혁명의 군대인 인민군대가 자기의 도리를 지키자면 농촌지원전투를 잘해야 한다고, 사실 조선혁명의 기둥이며 주력군인 인민군대는 나라와 인민이 식량난으로 시련을 겪고있을 때에 농촌을 돕는데서 앞장에 서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이때부터 인민군대는 농촌을 지원하여 농업생산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농업뿐아니라 경제건설의 여러 부문들에 인민군대를 내세우는것은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특유한 현상이다.

이 모든것은 **김정일**령도자께서 인민군대를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한 혁명군대로 키우는데 많은 품을 들이신 결과에 가능한것이였다. 예로부터 천일양병 일일용병이라고 일러왔다. 음미해보면 그것은 평상시에 군사를 양성하는데 힘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뜻과 함께 군사는 오직 싸움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뜻을 담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하지만 선군정치를 실시하고있는 조선에서는 인민군대가 전시뿐아니라 평화시기에도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하고있다.

선군정치는 인민군대를 정치실현의 기수로 내세울뿐아니라 그를 본보기로 하여 사회의 전체 성원들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튼튼히 결속시키는 위력한 정치방식이다.

혁명과 건설은 그 어느 특정한 계급이나 계층, 정당에만 의거해서는 제대로 추진될수 없다. 혁명운동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광범한 인민대중이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가지고 하나의 정칙적력량으로 결속되여 떨쳐나설 때 혁명과 건설은 성과적으로 전진할수 있다. 사회주의정치실현에서 핵심력량을 내세우는것도 바로 그를 본보기로 하여 대중전체를 강력한 정치적 력량으로 만들자는데 있다.

선군정치가 인민군대를 본보기로 내세운다는것은 군대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으로 모든 사회성원들을 무장시켜 혁명대오 전반을 높은 사상정신적풍모를 지닌 위력한 정치적력량으로 만든다는것을 의미한다.

2) 선군정치의 사상적기초

선군정치는 인민군대를 중심에 놓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길을 정확히 밝혀주는 선군사상을 원리적, 사상적기초로 하고있는 정치방식이다.

정치의 과학성과 정당성, 위력은 바로 그것이 기초하고있는 정치리념, 정치사상에 의하여 규정된다. 선군정치가 그처럼 정당하고 불패의 위력을 지닌 정치방식으로 인정되고있는것은 바로 그 사상적기초인 선군사상이 정당하고 과학적이기때문이다.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김정일**령도자께서 심화발전시키신 조선혁명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지도사상이며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백과전서적인 혁명학설이다.

주체사상은 **김정일**령도자의 확고부동한 정치철학이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정치리념, 활동방식, 사상과 로선 등은 다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었다. 선군사상, 선군정치도 역시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그것을 구현하는 과정에 정립된 사상이고 정치방식이다.

선군사상이 주체사상을 뿌리로 하고있다는것은 우선 그것이 자주성의 원리를 구현하고있는데서 표현된다.

주체사상은 철저한 자주의 사상이며 자주성은 주체사상에 일관하게 관통되여있는 혁명의 기본리념이다. 선군사상은 자주성을 핵으로 하는 주체사상에서 출발하여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에서 군사를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고 혁명군대를 주력군으로 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데 대한 사상이다.

자주성이라고 할 때 그것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을 말한다.

자주성은 개별적사람에게서뿐아니라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도 생명이다. 나라와 민족은 사람들의 사회생활의 공고한 단위이고 운명공동체이다. 인류력사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국가가 발생하고 민족이 형성된 다음부터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자기 운명을 개척하고 발전시켜왔다. 그런데 해당 나라와 민족이 독자적인 국가, 독자적인 민족으로서 존립하고 발전할수 있는 근본요인은 자주성이다. 어떤 나라와 민족이든지 자주성을 가져야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있으며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때문에 자주성을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라고 하는것이다.

나라와 민족,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기본대상은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세력이다. 원래 제국주의는 침략과 략탈을 생존방식으로 하고있다. 19세기말-20세기초에 산업자본주의로부터 독점자본주의로 비대해진 제국주의는 그 자체가 침략과 략탈속에서 태여났을뿐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 인민대중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과정속에서 자기 존재를 유지하며 성장해왔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침략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유린말살하는데서 제국주의가 집요하게 매달리는 기본수단은 반혁명적폭력이다.

제국주의자들이 반혁명적폭력에 의거하여 나라와 민족,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유린말살하는 조건에서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자들과의 치렬한 힘의 대결과정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 조선속담에《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제격이다》는 말도 있듯이 총칼을 들고 달려드는 원쑤들과는 혁명의 무기로 맞서싸워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의 반혁명적폭력을 때려부실수 있는 힘, 혁명적폭력이 없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결코 실현될수 없다. 주체사상이 밝힌 이러한 자주성의 원리에 기초하고있는것이 바로 선군사상이다.

선군사상이 주체사상을 뿌리로 하고있다는것은 혁명의 주체에 관한 원리를 구현하고있는데서도 표현된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은 주체사상이 밝힌 혁명승리의 근본방도이다. 혁명의 주체란 다름아닌 인민대중,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과 의지로 굳게 결합된 혁명력량을 말한다. 사회적운동, 혁명운동은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생발전하는 주체의 운동이다. 이것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처음으로 밝혀진 혁명원리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체적요인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것은 주체사상의 근본요구이다. 선군사상은 혁명의 주체에 관한 주체사상의 이러한 원리에 기초하여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혁명의 주체를 비상히 강화하고 그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나갈것을 밝혀준다.

선군사상은 주체사상이 밝힌 사상론의 원리도 구현하고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자신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사람

들의 사상이 기본이며 사람들의 사상에 의하여 모든것이 결정된다는 사상론을 주장한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사상론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밝혀진 혁명원리로서 혁명과 건설에서 사람들의 사상의식, 인민대중의 정신력에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나갈것을 요구한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선군정치를 펼치심에 있어서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사람들의 혁명의식, 정신력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밝힌 사상론에 기초하여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가장 중시하며 사상정신적요인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시였다. 선군정치는 바로 전체 인민들이 인민군대가 창조한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우는 과정에 확립되였다.

주체사상이 독창적으로 밝힌 자주성의 원리와 혁명의 주체에 관한 원리, 사상론의 원리를 구현하고있다는데 바로 선군사상이 주체사상을 뿌리로 하고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고 그 정당성과 독창성, 과학성이 있다.

선군사상의 기초원리

선군사상은 그 원리부터가 참신하고 혁신적이며 현실적이라고 말할수 있다. 어떤 사상에나 출발적인 원리가 있기마련이며 바로 그 기초원리에 의하여 해당 사상이 대표되고 모든 내용이 전개된다고 할수 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선군사상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시면서 먼저 선군사상의 기초원리를 명백히 규정해주시였다. 그것은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된다는 총대철학이다.

총대철학에서 말하는 총대는 단순한 물리적수단으로서의

총대가 아니라 총을 잡은 군인집단, 혁명군대를 의미한다.

총대철학에 의하면 혁명은 우선 총대에 의하여 개척된다.

온갖 낡고 반동적인 사회제도를 뒤집어엎고 선진적인 사회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은 결코 청원이나 의회투쟁, 파업으로써 해결할수 없다. 인민대중이 낡은 사회제도를 혁명적으로 변혁하지 않고 그 어떤 점차적인 개량의 방법으로 처지를 개선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세계에 첫 사회주의국가를 탄생시킨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10월혁명만 보아도 그것은 다름아닌 혁명적병사들과 무장한 인민들에 의하여 수행되였다. 그밖에 성공한 혁명이나 실패한 혁명을 막론하고 어느것이든 다 혁명의 개척기에 총대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총대철학에 의하면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개척될뿐아니라 총대에 의하여 전진하며 완성된다. 혁명이 총대에 의하여 전진하며 완성된다는것은 총대에 의거하여서만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인민대중이 정권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하였다고 하여 그것으로 혁명이 다 끝나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은 민족해방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이룩된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전진하며 완성되여나가게 된다. 총대철학은 혁명을 끊임없이 전진완성시키기 위한 투쟁의 가장 위력한 무기도 역시 총대, 혁명군대로 보고있다. 그에 의하면 총대에 의하여 제국주의와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이 저지되고 혁명의 전취물이 수호되는것은 물론이요 자연개조, 사회개조, 인간개조사업을 다그쳐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창조와 건설사업에서도 총대, 혁명군대가 선봉적역할을 한다는것이다. 혁명군대의 사상정신으로 인민대중을 무장시키고 조국보위는 물론 사회주의건설에서도 군대가 커다란 위력을 발휘하고있는 조선의 현실이 그 전형이다.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인 맑스-레닌주의에서도 혁명의 개척기에 혁명적폭력이 노는 역할이 일정하게 론의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혁명과 조국보위에서뿐아니라 사회주의건설에서도 총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총대철학의 원리는 밝히지 못하였다. 총대철학에서는 혁명의 개척기뿐아니라 그 전기간 혁명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항구적요인을 총대로 보고있다. 총대에는 총대로 맞서고 혁명은 총대로 담보해야 한다는것이 총대철학의 진수이다.

총대철학과 마찬가지로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고 인민이라는 선군의 원리도 역시 기성리론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독창적인 원리이다. 이 원리의 의미는 로동계급의 당과 사회주의정권, 자주적인민의 운명이 혁명군대에 달려있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혁명군대가 강하면 로동계급의 당도 사회주의정권도 강하며 인민도 자주적인민으로 존엄떨치게 되지만 군대가 약하면 당도 정권도 유지할수 없으며 인민은 노예의 처지를 면치 못한다는것이다.

선군의 원리에 의하면 혁명투쟁에서 혁명군대이자 곧 당으로 된다. 군대이자 당이라는것은 혁명투쟁에서 혁명군대에 의하여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당의 존재와 발전, 그 위력이 보장된다는것이다. 원래 로동계급의 당은 그 창건부터 혁명군대에 의거하는것이 가장 리상적이라고 말할수가 있다. 물론 당창건이 먼저 선포되고 그후에 혁명군대가 나올수 있고 또 지금까지 혁명을 수행한 대다수 나라들에서는 이러한 혁명방식을 취하였다.

하지만 조선혁명의 경험은 먼저 군대를 창건하고 그에 의거할 때 당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닦을수 있고 그 대중적지반도 비상히 확대강화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혁명군대에 의하여서만 또한 당이 철저히 보위되고 유지된다. 혁명군대는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무장으로 옹호보위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는 당의 무장력으로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혁명적폭력을 짓부시고 당을 목숨으로 사수하는 당의 제일보위자이다. 혁명군대의 군사적보호가 없이는 그 어떤 당도 원쑤들의 반혁명적폭력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지기마련이다. 혁명군대는 당과 혁명에 대한 충성심이 높고 혁명적원칙성이 그 어느 집단보다도 강한것으로 하여 내외원쑤들의 온갖 비난과 중상, 도전으로부터 당을 정치사상적으로 견결히 수호하는데서도 앞장에 선다. 이것은 조선로동당의 발전력사가 뚜렷이 실증해준다.

혁명군대는 당을 보위할뿐아니라 당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도 결정적역할을 한다. 혁명적당은 군대가 키워내는 우수한 핵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기 대렬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해나가게 되며 가장 위력한 전투대오인 혁명군대가 당의 사상과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갈 때 혁명과 건설에서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다해나갈수 있다. 이처럼 군대이자 당이라는것은 군대가 당을 대신한다거나 군대가 당우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혁명적당과 혁명군대의 불가분리의 관계를 보여주고있다.

선군의 원리에 의하면 또한 혁명투쟁에서 혁명군대이자 곧 국가이다. 군대이자 곧 국가이라는것은 혁명군대가 있어야 사회주의국가를 세우고 유지할수 있다는것이다. 사회주의국가정권을 세우기 위한 투쟁은 인민대중과 반동세력사이의 가장 치렬한

힘의 대결전이다. 양보와 타협이란 있을수 없는 이 치렬한 정치투쟁에서 인민대중이 정권을 잡을수 있는 결정적힘은 총대에 있다. 력사는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정권은 총대에 의하여 세워지며 최초의 사회주의국가도 총대의 산아였다는것을 증명하고있다. 사회주의국가는 그 출현이후에도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위협을 받는다.

력사적으로 자본주의나라의 정치가들은 그 무슨《공산주의 위협》에 대해서 많이 말해왔는데 사실상은 사회주의국가들이 자본주의의 위협을 받았다는것을 력사가 말해주고있다. 한 나라에 대한 전복과 파괴, 침략이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고 유엔헌장과 국제법에도 명백히 저촉되지만 유감스럽게도 제국주의에 의한 주권유린행위는 어제도 오늘도 갖가지 형태로 나타나고있다.

혁명의 원쑤들의 정권전복시도는 내부에도 없다고 볼수 없다. 때문에 군력이 약하거나 군대를 틀어쥐지 못하면 이미 쟁취한 정권도 도로 빼앗기게 되지 않을수 없다. 이렇게 정권이 총대에서 나오고 총대에 의해 유지되기때문에 군대이자 곧 국가라고 하는것이다.

선군의 원리에 의하면 혁명투쟁에서 혁명군대이자 곧 인민이기도 하다. 그 의미는 혁명군대가 있어야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적지위와 존엄을 고수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다는것이다. 혁명군대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로 조직되며 그의 사명은 외래침략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나라와 인민의 안녕을 지키는데 있다. 자기의 진정한 혁명군대를 가지지 못한 인민들은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없으며 노예의 비참한 처지를 면할수 없다. 혁명군대가 있어야 근로인민들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고수하고 존엄을 빛내여나갈수 있으며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다. 더우기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세력의 간섭과 침략이 전례없이 로골화되고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강력한 군대를 가지지 못한 인민은 졸지에 나라도 잃고 현대판노예의 굴욕적인 처지에 빠지게 된다는것을 오늘의 이라크의 실태가 보여주고있다. 총대가 약하여 나라를 잃은 민족과 인민에게 차례지는것은 수치와 모멸뿐이다. 때문에 혁명의 총대이자 인민대중의 자주성이며 혁명군대의 운명이자 인민대중의 운명이라고 하는것이다.

군대는 당, 국가, 인민이라는 원리는 혁명과 건설에서 혁명군대야말로 당이 의거하여야 할 중요한 정치적력량이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선군혁명원리에서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된다는 총대철학과 군대는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선군의 원리는 둘 다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정립된 원리들로서 선군사상의 기초를 이룬다.

선군사상은 이 원리들로부터 출발하여 군력강화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며 총잡은 혁명군대의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선군혁명원칙과 그 실현을 위한 선군정치리론을 밝혀준다.

3) 선군혁명원칙

선군사상은 선군혁명령도, 선군정치를 실현함에 있어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혁명적원칙을 두가지 방향에서 밝혀주고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군사를 국사중의 국사로

여기고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울데 대한 군사선행의 원칙과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전반적혁명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선군후로의 원칙이다.

군사선행의 원칙

선군사상이 밝힌 선군혁명원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군사선행의 원칙이다.

군사선행의 원칙은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사업들 가운데서 군사를 중요한 사업으로 내세우고 여기에 힘을 넣는다는것이다.

일반적으로 군사라고 할 때 그것은 군대의 조직과 강화발전과 같은 군건설, 군대의 훈련이나 전쟁과 같은 군사활동, 무장장비의 생산과 관련된 국방공업, 민간무력의 준비와 군사시설건설 등 군대를 강화하고 국방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모든 사업들을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이다.

그런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는 군사 이외에도 많은 중대한 문제들이 제기된다. 당을 창건하고 정권을 세우며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는것을 비롯하여 따져놓고보면 어느 하나도 중요치 않은 일이란 없다. 혁명과 건설의 이러한 여러 사업들가운데서 군사를 가장 중시하는것이 바로 군사선행의 원칙이다.

군사중시의 관점과 립장은 당과 국가의 로선과 정책작성에서 군사문제를 기본으로 내세우는데서 표현된다. 로선과 정책의 수립은 정치실현의 필수적이며 관건적인 조건으로서 그 중심에 무엇을 놓는가 하는것은 해당 정치의 성격과 실현방향을 규정하는 핵심적문제로 나선다. 때문에 군사를 중요한 사업으로 내세운다고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나가는데서 군사문제를 중심에 놓고 그것을 선차적으로 해결하는 관점에서 투쟁목표와 과업, 그 수행방도를 규정하는 것이다.

군사중시의 관점과 립장은 이와 함께 모든 부문, 단위에서 군사문제부터 해결하는 방향에서 사업을 조직진행해나가는것을 통하여 표현된다. 혁명과 건설의 매 부문, 매 단위들은 혁명의 근본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분야들이며 당과 국가의 로선과 정책은 이러한 부문, 단위들에서의 사업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실현되여나간다. 군사선행의 원칙은 결국 당과 국가로부터 매 부문과 단위들이 군사중시의 립장에서 군사를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을 철칙으로 규정하고있다.

군사선행의 원칙은 군사를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내세울뿐아니라 군사에 최대의 힘을 넣을데 대한 원칙이다. 군사에 최대의 힘을 넣는다는것은 나라의 모든 인적 및 물적자원을 군사력강화에 동원한다는것이다. 사실 강한 군사력을 마련한다는것은 조련치 않은 일이다. 군사력을 강화하고 유지하자면 고도의 인내력을 가지고 때로는 희생까지 각오하고서라도 나라의 인적 및 물적자원을 국방력강화에 최우선적으로 돌려야 한다. 군사력강화에 힘을 돌린다고 해도 사정과 형편을 보아가며 인적 및 물질적여유가 생기기를 기다리는것은 군사선행의 원칙과 아무런 인연이 없다. 결단코 모든것을 군사에 총집중시키며 그 성과에 토대하여 경제문제도 풀어나가는것이 바로 군사선행의 원칙이다. 그 리유는 지극히 명백한바 경제는 오늘 당장 발전시키지 못하더라도 후에 보충할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군력이 약하여 나라를 잃으면 그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보상할수 없기때문이다.

군사선행이 혁명과 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해야 할 근본원칙으로 되는것은 두가지 리유에서부터라고 말할수 있다.

하나는 군사선행의 원칙이 강력한 군사력을 마련하는 확고한 담보이기때문이다.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되는것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마련하는것은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그런데 군사분야는 방대한 투자가 요구되고 품이 많이 드는 분야이다. 게다가 강력한 군사력은 력사와 전통이 오래고 인구가 많으며 경제적잠재력이 큰 나라라고 해도 저절로 갖추어지게 되는것이 아니다. 설사 작은 나라라고 하여도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으면 그 어떤 대적과도 당당히 맞설만한 군사력을 마련할수가 있다. 문제는 군사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지고 꾸준히 힘을 넣는가, 못넣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정치지도부로부터 시작하여 매 개별적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군사를 중시하는 옳바른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길 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려는 념원을 실현할수가 있다.

군사선행의 원칙은 모든 문제를 군사중시의 관점에서 보고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군대강화와 관련한 문제부터 해결하며 군사에 필요한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해나가도록 함으로써 가장 빠른 기간에 전반적군사력을 비상히 강화할수 있게 한다.

군사선행이 혁명과 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나라의 전반적인 국력을 강화하는 옳바른 방도로 되는것과도 관련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운동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그들의 지향에 맞게 발전시키는것을 통하여 그 종국적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군사선행의 원칙은 비단 군사력강화만이 아니라 정치사상적위력, 경제력, 과학기술적위력 등으로 이루어지는 전반적국력을 강화할수 있게 하는 혁명의 원칙이다. 선군정치에 의하면

혁명군대는 나라의 중요한 정치적력량인것만큼 군대를 강화하는 것은 곧 혁명의 정치적력량을 강화하는것으로 되며 군사력의 물질경제적토대의 튼튼한 축성은 국방공업의 선도적발전에 기초한 전반적경제발전을 가져온다. 그리고 군사력의 현대화에 필요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의 해결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첨단수준에 올려세우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할뿐아니라 그것을 경제분야에 응용하여 커다란 덕을 볼수 있게 한다. 때문에 군사가 단순히 소비분야이며 군사에 힘을 넣으면 경제발전이 저애를 받는다는 견해는 일면적이고 피상적이라고 할수 있다. 군사력강화만을 위한 군사선행이 아니라 군사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를 혁명과 건설의 다른 분야에 도입하여 일석다조의 효과를 보게 하는것이 군사선행의 원칙인것이다. 선군사상에 의하여 군사선행의 원칙이 혁명과 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워짐으로써 군력을 기본으로 하는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이 마련되게 되였다.

선군후로의 원칙

선군후로의 원칙은 군사선행의 원칙과 함께 선군혁명원칙의 쌍벽을 이룬다. 군사선행의 원칙이 혁명과 건설의 여러 분야들가운데서 어디에 보다 큰 힘을 돌려야 하는가를 밝혀주는 원칙이라면 선군후로의 원칙은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나가는 혁명력량가운데서 어느 집단을 주력군으로 내세워야 하는가를 밝혀주는 원칙이다.

선군후로는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는 원칙이다. 이것은 혁명군대를 혁명력량을 꾸리는데서 본보기집단으로,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나가는데서 기둥집단으로

내세운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혁명의 주력군이라고 할 때 그것은 혁명의 주체를 이루는 여러 계급과 계층, 집단들가운데서 혁명성과 조직성, 전투력이 가장 높으며 혁명의 주공전선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혁명의 핵심부대를 말한다. 때문에 혁명의 주력군을 옳게 규정하고 내세울 때 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그 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수 있다.

김정일령도자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선군후로의 원칙은 그 내용을 크게 두가지로 갈라볼수 있다.

하나는 혁명군대를 핵심, 본보기로 하여 혁명력량을 꾸려야 한다는것이다.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고 그 대렬을 확대하는것은 반혁명세력에 비한 혁명력량의 압도적우세를 보장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혁명력량을 이루는 계급, 계층, 사회적집단들가운데서 사상정신적준비정도와 조직력이 가장 강한 집단을 혁명군대로 보고 그를 본보기로 하여 혁명력량을 강화해나가는것이 선군후로의 원칙이다.

선군후로의 원칙은 혁명대오를 꾸리는데서뿐아니라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나가는데서 혁명군대를 기둥으로 내세워야 한다는것을 다른 하나의 내용으로 하고있다.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반제군사전선을 지키는 사업도 사회주의건설의 가장 어렵고 힘든 분야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임무도 혁명군대가 맡아 수행하도록 하며 전체 인민을 혁명과 건설에 적극 불러일으키는데서도 혁명군대가 선도자적역할을 하도록 하는것이 선군후로의 원칙이다.

총체적으로 선군후로의 원칙은 군대가 조국보위, 전쟁수행의 역할만이 아니라 혁명과 건설전반에서 보다 폭넓고 책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선행한 맑스-레닌주의리론에서는 유물사관의 원리에 기초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을 자기의 로동력밖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무산자로서 혁명에서 잃을것은 철쇄밖에 없는 계급으로, 분산적으로, 개별적으로 일하는 농민이나 지식인과는 달리 집단로동을 하며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장성강화되는 계급으로 보고 그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규정하였다.

이것은 19세기 중엽 서방자본주의나라들의 사회계급관계와 현실을 반영한 리론으로서 사회주의운동에서 어길수 없는 혁명의 공식처럼 되여왔다. 그때로부터 한세기도 더 되는 세월이 흐른 오늘 시대적환경으로 보나 로동계급의 사회적처지와 로동운동의 실태로 보나 현대자본주의사회의 로동계급을 산업자본주의시대나 프로레타리아혁명시기의 로동계급과 같이 볼수 없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 한편 사회주의사회의 발전과정 역시 사회계급관계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혁명의 주력군에 관한 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고정불변한것으로 될수 없으며 계급관계에 기초해서만 해결할 문제도 아니다. 그리고 사회의 어느 계급, 계층 또는 어느 사회적집단이 혁명의 주력군으로 되는가 하는것은 그가 혁명과 건설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그의 혁명성과 조직성, 전투력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러한 새로운 기준에서 볼 때 혁명의 주력군으로는 혁명의 제일생명선인 반제군사전선을 지켜서있고 혁명성과 조직성, 전투력이 가장 강한 사회적집단인 혁명군대만이 될수 있다는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명백히 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혁명에 참가하는 군대나 사회주의나라군대라고 하여 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력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수 있는것은 아니며 혁명군대의 풍모와 자질을 저절로 갖추게 되는것도 아니라는것이다.

아무리 좋은 종자라 해도 가꾸지 않고 내버려두면 쭉정이밖에 기대할수 없는것처럼 혁명군대도 당과 수령의 정확한 령도를 받아야 혁명의 주력군으로 될수 있고 주력군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감당해낼수가 있다. 한마디 부언하고싶은것은 선군후로는 로동계급을 홀시하는것이 아니라 로동계급의 선진적인 역할도 혁명군대에 의해서만 보장될수 있다는것이다. 때문에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선군후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자신께서는 로동계급을 귀중히 여기며 그를 더욱 혁명화하고 그의 역할을 높이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고 하시였다.

선군후로는 군사선행과 마찬가지로 혁명과 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된다. 선군후로가 혁명과 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되는것은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벌려나가기 위한 담보가 바로 혁명군대를 주력군으로 내세우는데 있다는것과 관련된다.

4) 선군정치는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

선군정치가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이라는것은 그것이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와 발전에 가장 적합한 주되는 정치방식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는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근본리념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은 혁명의 근본원칙이다. 조선의 선군정치는 바로 이러한 혁명의 근본리념, 근본원칙을 가장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정치방식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선군정치에 의해서만 혁명의 근본리념,

근본원칙을 지키고 사회주의의 여러 정치방식들의 실현을 담보할수 있다고 확신하시고 그것을 사회주의의 기본정치방식으로 규정하시였다.

선군정치는 제국주의와의 정치군사적대결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근본리념, 근본원칙을 수호할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에 대한 제국주의자들과 적대계급의 공세에서 기본은 군사적공세인것만큼 군사력을 강화하는것은 곧 사회주의의 원쑤들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이룩하게 하는 결정적담보로 된다.

선군정치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실시되는 여러 정치방식들의 실현을 담보해주는 정치방식이다. 조선에서는 선군정치와 함께 인덕정치가 사회주의정치방식으로 되고있으며 그밖에 국가활동의 기본방식으로서 사회주의적민주주의가 실시되고있다.

선군정치는 이러한 사회주의정치방식들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로, 담보로 되는 정치방식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덕정치는 총대와 모순되지 않으며 강한 총대를 전제로 한다. 인덕정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이며 이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정치이다. 그런데 인민대중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를 실시하자면 사회주의제도자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원쑤들의 온갖 침해로부터 사회주의제도를 견결히 수호하는 위력한 무기는 다름아닌 선군정치이다. 때문에 인덕정치는 선군정치를 전제로 하지 않을수 없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 역시 마찬가지이다. 미국이 조선의 그 무슨 인권상황과 민주주의실태에 대해 떠들어대고있는데 사실상 오늘날 조선에서는 선군정치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되여 국가사회생활에서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참답게 누려가고있다. 이것은 선군정치가 사회주의사회의 존립과 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사회주의의 기본정치방식으로 된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선군정치가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이라는것은 그것이 사회주의가 존재하는 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정치방식이라는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원래 선군정치는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위협에 대처하여 출현하고 견지되여왔다. 침략과 략탈은 제국주의의 고유한 본성이며 생존방식이다.

제국주의는 생리적으로 다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수가 없다. 지난날의 제국주의도 그러했지만 국가독점자본에 기초하고있는 현대제국주의는 더 많은 리윤을 위하여, 정치경제적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침략과 전쟁에 매여달린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전쟁의 근원은 제국주의에 있다. 제국주의의 침략성은 대금융독점자본과 군부가 유착된 산군복합체가 출현함으로써 더욱 강화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 출현한 산군복합체는 국가독점자본의 특수한 존재방식으로서 제국주의나라들의 군국화를 촉진하고있으며 국가안의 국가와 같은 권력을 행사하면서 군수산업의 확대증진과 침략전쟁을 추구하고있다. 이것이 오늘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나라들의 정치경제적구조이다. 현 세계에서 침략과 전쟁의 가장 주되는 세력은 미국이다. 미국이 요란하게 떠드는 《평화전략》이나 《반테로전략》은 뒤집어놓은 침략과 전쟁전략이며 포악한 힘의 정책의 변종이다.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미국이 세계제패야망을 버리지 않는 한 사회주의와 제국주의간의 대립과 투쟁은 계속되며 사회주의수호의 무기인 선군정치는 반드시 필요한것이다.

선군정치는 사회주의를 수호할뿐아니라 사회주의건설과정을 적극 추동한다.

결국 선군정치는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나서는 2대문제 즉 사회주의의 수호와 건설을 다같이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말할수 있다. 때문에 선군정치는 사회주의위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하여 그 전력사적과정에 걸쳐 반드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인 정치방식으로 되는 것이다.

5) 선군정치의 근본바탕

선군정치는 인민군대가 창조한 혁명적군인정신을 근본바탕으로 하고있는 위력한 정치방식이다.

혁명적군인정신이 선군정치의 근본바탕이라는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적군인정신에 기초하여 선군정치가 확립되고 공고화된다는것을 의미한다. 혁명적군인정신의 창조와 일반화과정이자 선군정치의 전면적확립과정이고 선군정치의 위력이자 곧 혁명적군인정신의 위력이라고 할수 있다.

선군정치의 근본바탕인 혁명적군인정신은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인민군대의 고결한 혁명정신이며 여기에서 근본핵으로 되는것은 수령결사옹위정신이다.

혁명은 수령의 위업이며 혁명의 승리는 수령의 탁월한 령도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는것만큼 수령을 결사옹위하는것은 혁명의 요구이고 혁명가들의 마땅한 본분이다.

인민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에서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

희생정신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결사관철의 정신은 당과 수령이 제시하는 사상과 로선, 명령과 지시를 가장 정당한것으로, 절대적인것으로 받아들이고 한몸이 그대로 불사신이 되여 한치의 드팀도 없이 관철하고야마는 혁명정신이다. 영웅적희생정신은 조국과 인민, 동지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고결한 혁명정신이다.

선군정치의 근본바탕인 혁명적군인정신은 선군시대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혁명정신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기적을 창조하고 위훈을 떨치게 하는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사상정신적무기이다.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를 상징하고 대표할수 있는 지배적인 사상과 정신이 있기마련이며 그것이 해당 시대나 사회의 정치에 영향을 주는것은 필연적이다. 타민족에 대한 극도의 증오와 멸시, 배척으로 특징지어지는 파시즘이 파쑈독재정치를 낳고 인류를 무서운 재난과 불행, 고통속에 몰아넣은 세계대전을 일으켰다는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혁명적군인정신은 로동계급의 계급의식, 혁명정신의 최고표현이다. 혁명적군인정신은 그 성격에서 철저히 로동계급적인 혁명정신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로동계급의 계급의식, 혁명정신을 가장 견결하고 투철하게 체현하고있다. 조선에서 인민군대는 로동계급의 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기 위하여 손에 총을 잡고 나선 자각적인 투사들의 집단인것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위해 한몸바치려는 사상적각오가 다른 그 어느 사회적집단보다도 투철하며 이것이 바로 혁명적군인정신에 체현되여있다. 인민군대의 필승의 신념과 의지가 구현된 혁명적군인정신에는 로동계급의 리익을 두고는 어떤 흥정도 하지 않으며 죽어도 원칙만은 저버리지 않는다는 견결한 정신이 깃들어있다.

혁명적군인정신이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의 최고표현이라는 말속에는 오늘의 시대에는 로동계급도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무장하여야 자기의 계급적본분과 사명을 다해나갈수 있다는 의미도 내포되여있다.

선군정치가 혁명적군인정신을 근본바탕으로 하는 정치라는것은 그것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무장시키는것을 정치실현의 근본문제로 내세우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인민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에는 혁명하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가 높은 수준에서 구현되여있다. 혁명적군인정신에는 어떤 역경속에서도 드놀지 않고 오직 자기 당과 수령만을 굳게 믿고 끝까지 따르며 높이 받들어나가는 수령결사옹위정신과 결사관철의 정신, 조국과 인민, 혁명동지들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치는 영웅적인 희생정신뿐아니라 높은 집단주의정신과 강한 조직성, 규률성, 견결한 혁명적원칙성과 투철한 반제계급투쟁정신, 고상한 도덕의리적, 문화정서적 풍모를 비롯한 선군시대 혁명가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모든 정치사상적풍모가 최상의 높이에서 훌륭히 구현되여있다. 바로 이런것으로 하여 혁명적군인정신은 선군시대 모든 사회성원들이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정신으로, 선군혁명을 힘있게 추동하는 위력한 혁명정신으로 되는것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무장시키는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에서 특기할것은 군민일치를 혁명적군인정신에 기초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발전시키신것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혁명적군인정신이 온 사회에 차넘치도록 하기 위해 군민일치가 혁명적군인정신에 기초한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로 되여야 하며 그것이 사회의

밑뿌리라는 사상을 새롭게 제시하시였다.

선군정치가 혁명적군인정신을 바탕으로 하고있다는것은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발전시키는데서 혁명적군인정신의 위력에 의거하고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할수록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더욱더 로골화되고 강화되고있다.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혁명하는 군대와 인민의 가장 힘있는 무기는 사상의 힘이다. 물론 사회주의를 수호하는데서 군사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것은 철저히 혁명적인 사상정신과 결부되여야 한다. 핵무기의 개수나 비행기, 땅크의 대수, 병력수가 아무리 량적으로 많다고 하여도 군대와 인민에게 사회주의를 지키려는 정신이 부족하면 그것은 무용지물과 같다. 군사적타격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사상정신의 위력에는 한계가 없다. 높은 사상정신적위력에 군사적위력이 안받침될 때 제국주의와의 대결전에서 승리할수 있다. 제국주의와의 대결이 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이 가장 심각하고 첨예하게 벌어지는 오늘의 시대에 반제대결전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자면 전체 인민이 사생결단의 투쟁정신인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무장하여야 한다.

선군정치에서는 사회주의를 발전시키고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이룩해나가는데서도 혁명적군인정신에 의거하고있다.

혁명적군인정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나가게 하는 군대와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다. 혁명적군인정신에는 혁명군대와 인민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높이 발휘하여야 할 애국의 열정과 헌신의 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 비상한 창조정신과 완강한 공격정신이 다 담겨져있다.

6) 선군정치의 3대혁명력량

선군정치에 관한 리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선군정치가 의거하고있는 혁명력량에 관한 내용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의 혁명적당과 무적필승의 혁명무력, 혁명대오의 일심단결, 이 3대혁명력량이 선군정치의 기둥이고 주체혁명위업의 위력한 추진력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적력량은 일정한 정치방식을 실시하는 정치적집단이나 그의 사회적지반을 의미한다. 일정한 정치방식이 얼마나 정당하고 그 정치리념이나 정치적목적이 어느 정도로 실현되는가 하는것은 그것을 지지하고 받드는 정치적력량의 규모와 준비정도, 역할에 달려있다. 사회의 광범위한 력량의 지지를 받으며 그들이 정치적으로 튼튼히 준비되고 역할이 높을 때 해당 정치방식은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정치방식으로서 자기의 생활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지만 정치적지반이 미약하고 그들이 준비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기의 정치리념이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된다.

조선의 선군정치는 혁명적당과 혁명무력, 일심단결이라는 든든한 3대혁명력량에 의하여 떠받들리고 실현되여나가는 공고하고 위력한 정치방식이다.

주체의 혁명적당은 선군정치의 향도적력량이다. 이것은 당이 선군정치실현에서 령도적지위를 차지하고 령도적역할을 수행하는 정치조직, 정치적력량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원래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령도, 수령의 정치는 당을

통하여 실현된다. 혁명적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의 전위조직이며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을 이끌어나가는 혁명의 참모부이다. 때문에 당을 떠나서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령도, 수령의 정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중추적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선의 선군정치에서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하고있는것은 어디까지나 조선로동당이다.

조선로동당은 군대와 인민을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함으로써 선군정치를 받드는 향도적력량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나간다.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전략전술적령도는 사회와 혁명발전의 앞길을 정확히 밝혀주며 광범한 대중을 조직하고 동원할줄 아는 혁명적당만이 할수 있다. 사회주의건설의 옳은 전략과 전술이 탁월한 수령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면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조직지도하는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당의 지위와 역할은 다른 그 어떤 조직이나 단체도 대신할수 없다. 국가정권을 포함하여 사회주의사회의 모든 조직과 단체들가운데서 사회와 혁명에 대한 정책적, 전략전술적령도를 사명으로 하여 출현하고 또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있는 조직은 오직 혁명적당이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선군정치의 실현을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확고히 보장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이 선군정치의 기둥, 선군혁명의 향도자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고있는 근본요인은 당안에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가 철저히 확립되여있기때문이다.

조선에서 인민군대는 선군정치를 받드는 중요한 정치적력량이다. 그것은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인민군대보다 더 위력한 정치적집단은 없기때문이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운동에서는 로동계급이 혁명의 기본정치적력량으로, 기둥으로 되여왔다. 이와는 달리 선군정치에서는 인민군대를 기본정치적력량으로, 기둥으로 내세운다. 인민군대는 사회주의를 지키는데서 기둥으로 되고있다.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를 지키는것은 선군정치의 첫째가는 목적이며 이것은 인민군대가 있으므로 하여 성과적으로 달성되고있다.

인민군대는 무엇보다도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수령옹위의 제일전초병이다. 현시기 공화국을 반대하는 제국주의 반동들의 공세는 혁명의 수뇌부에 집중되고있다. 인민군대는 혁명의 총대를 틀어쥐고 사회주의의 운명인 혁명의 수뇌부를 노리는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원쑤들의 책동을 단호히 물리치는 힘있는 정치적력량인것으로 하여 사회주의를 지키는데서 기둥으로 된다. 조선에서 가장 어려웠던 1990년대 중엽에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의 구호를 맨 처음으로 든것도 인민군대이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 희생적으로 투쟁한것도 다름아닌 인민군대이다.

인민군대는 또한 사회주의제도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총대로 믿음직하게 지켜가는 위력한 정치적력량이다. 오늘 공화국과 미국과의 대결은 힘의 대결이며 반제군사전선은 나라와 민족, 사회주의의 존망을 판가리하는 혁명의 기본전선으로, 제일생명선으로 되고있다. 총대가 약하면 민족의 자주권도 사회주의제도도 잃게 되고 제국주의의 노예로 되는 길밖에 없다는것은 수난많은 조선민족사와 간고한 조선혁명의 장구한 로정에서 찾은 피의 교훈이며 진리이다.

오늘 인민군대는 선군의 기치밑에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끝까지 지켜싸울 만단의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있으며 그 어떤 대적도 단매에 짓부셔버릴 무진막강한 위력을 가지고있다.

인민군대는 사회주의를 지키는데서뿐아니라 부강조국건설에서도 기둥으로 되고있다. 부강조국을 건설하는것은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선군정치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이다. 인민군대는 불굴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으로 부강조국건설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강력한 전위대이다. 사회주의부강조국건설에서 인민군대의 선봉적역할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맡아 수행하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다. 보다 중요한것은 인민군대의 사상정신과 투쟁기풍에 있다. 인민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과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배우는 과정에 조선인민은 혁명군대와 같이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정치적력량으로 준비되게 되였으며 이 세상에 점령못할 요새도 못해낼 일도 없다는것을 실체험으로 깨닫게 되였다.

일심단결은 당, 혁명군대와 함께 선군정치의 3대혁명력량의 하나이다. 그것은 일심단결이 선군정치의 실현을 안받침하는 공고한 사회정치적지반이기때문이다.

해당 사회의 정치가 성과적으로 실현되여나가려면 사회정치적지반이 든든해야 한다. 아무리 정치방식이 정당한것이라고 하여도 그를 지지하는 사회정치적지반이 정치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여있지 못하면 그것은 지상공론에 불과한것으로 되고만다.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 정치적지반에 의거할 때 정당한 정치방식도 자기의 위력과 생명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수 있다.

선군정치는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에 의거하고있는 위력한 정치방식이다. 일심단결은 조선식사회주의의 참모습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전체 인민이 수령의 두리에 하나와 같이 굳게 뭉쳐있는것으로 하여 조선은 세계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된 나라로 공인되고있다.

조선의 일심단결은 우선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사상적

전일체인것으로 하여 선군정치의 실현을 안받침하는 공고한 사회정치적지반으로 된다.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은 하나의 사상, 하나의 중심에 기초한 단결로 되여야 사회주의정치실현의 위력한 무기로 될수 있다. 중심이 없는 단결, 사상의지적으로 결합되지 못한 실무적단결은 참다운 의미에서의 단결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그것은 자그마한 정치풍파에도 쉽게 깨여지고만다. 혁명의 수뇌부는 조선로동당과 군대와 인민의 운명이며 일심단결의 근본핵이다.

오늘 조선의 일심단결은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여 더욱더 공고발전되고있다. 군대와 인민이 사상과 투쟁기풍에서 하나가 되여 수령의 령도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고있기에 선군정치가 그처럼 굳건하고 위력한것이다.

조선의 일심단결은 또한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에 기초한 도덕의리적순결체인것으로 하여 선군정치의 실현을 안받침하는 공고한 사회정치적지반으로 된다. 사랑과 의리는 인간의 아름다운 사상감정이며 진실한 인간관계의 기초이다. 혁명적동지애는 같은 사상과 목적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사이의 사랑과 의리이다. 동지들사이의 사랑이 곧 단결이며 혁명적동지애로 뭉친 단결을 깰 힘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주체의 혁명적당과 무적필승의 혁명무력,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에 의거하고있는 조선로동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며 그 정당성과 생활력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3. 현실로 본 선군정치

1) 총대로 실현하신 수령영생위업

김정일령도자께서 1990년대 중엽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확립하시면서 이룩하신 업적가운데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것이였다.

수령영생위업이라는 말은 **김정일**령도자께서 처음으로 쓰신 말이였다. 그것은 조선혁명을 개척하고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업적을 대를 이어 후세에 길이 전하고 인민들의 마음속에 주석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계시도록 한다는것이다.

혁명의 시원을 열어놓은 선대수령을 사후에 어떻게 받들어 가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명맥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며 후대들의 도덕관을 보여주는 기본척도로 된다.

오랜 인류사와 국제혁명운동사는 수많은 세대들의 교체와 후계자들을 알고있지만 어느 후대들도 선대수령의 영생문제를 바로 제기하고 해결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숭고한 도덕의리로부터 출발하시여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앞장에 어느 사회적집단보다도 조직력이 있고 전투력이 강한 인민군대를 내세워 주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민족의 대국상이후 **김일성**주석을 생전의 모습 그대로 모실 금수산기념궁전(당시)을 태양의 성지답게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할 방도를 모색하시다가 이 책임적인 사업을 인민군대에 맡기기로 결심하시였다.

사실 조선에는 건설능력과 건축기술, 재능이 높은 관록있는 기술력량과 건설전문기업소들이 많았다. 하지만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선군시대 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대에 대한 남다른 믿음을 안으시고 그들에게 태양의 성지건설공사를 맡겨주시고 자주 공사현장을 찾으시여 군인건설자들을 고무해주시였다.

금수산기념궁전(당시)건설에 동원된 인민군대안의 설계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금수산기념궁전(당시)광장 주석단설계를 최상의 수준에서 끝내고 불과 두달남짓한 사이에 주석단건설을 완공하였다. 이어 궁전외랑건설, 궁전광장돌포장공사, 궁전운하다리와 도로확장공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하게 완공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금수산기념궁전(당시)건설뿐아니라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는 사업에서도 인민군대가 앞장에 서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총대로 수령영생위업을 실현해나가는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2) 군사강국의 위용떨치다

무적의 인민군대

김정일령도자의 탁월하고 비범한 선군령도가 있었기에 오늘 조선은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하게 올라서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도전을 짓부시며 조국보위전,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일찌기 적과의 싸움에서 승패를 결정하는것은 병력의 수자나 무장장비가 아니라 군인들의 사상의식이라는 철리를 밝히시고 언제나 인민군대의 정치사상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기울이시였다.

1994년 12월 하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적과의 대결은 군사적힘의 대결인 동시에 사상의 대결이다, 나는 군건설과 군사활동에서도 사상론을 주장한다, 군사적타격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사상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 위력은 원자탄보다 더 강하다, 군사력에서 기본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이라고 말씀하시였다.

1995년의 첫 일정으로 다박솔초소에 대한 현지시찰을 진행하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그날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혁명군대의 위력은 본질에 있어서 사상의 위력이며 따라서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철의 전투대오로 강화발전시키자면 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나라의 군대와 인민이 정치사상적으로 무장해제되면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에서 패하고 사회주의를 수호할수 없다는것은 력사가 확증한 진리이다.

총포소리없이 사회주의나라들을 안으로부터 와해붕괴시키는데서 재미를 본 미국은 그 수법을 조선에서 재현시켜보려고 하였다. 1997년 3월부터 공화국을 겨냥하고 자유아시아방송을 시작한 미국은 그후 이 방송과 VOA방송의 조선말방송시간을 2배로 늘이였을뿐아니라 값눅은 진폭변조라지오로도 들을수 있게 중파대역에서도 방송을 불어대고있다.

김일성주석의 서거후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끈질긴 반공화국압살책동과 사상문화침투가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던 시기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침투책동을 짓부시는 한편 인민들을 견결한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는 사업, 특히 인민군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끊임없는 현지시찰을 진행하시면서 언제나 부대의 정치사상교양사업실태부터 료해하시였으며 모든 인민군군인들을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들로 키우도록 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시면서 그를 위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주시였다.

하기에 오늘 조선의 인민군대는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서의 위력을 떨치고있다.

2002년 4월 어느날 전투임무를 수행하던 어느 한 부대의 4명의 인민군군인들은 갑자기 들이닥친 세찬 파도에 밀려 쪽배와 함께 망망대해로 흘러가고있었다. 이미 파도에 노는 부러지고 먹을것마저 떨어졌으며 마실 물도 없었다. 며칠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파도와 싸우다나니 말할 기운조차 없었다. 타드는 갈증에 못이겨 바다물을 퍼마셨는데 갈증을 덜기는 고사하고 열물을 토하며 정신까지 잃군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기어이 살아서 최고사령관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굳은 결심을 품고 신발끈으로 꺾어진 노를 이어가지고 쉬임없이 저어갔다.

그러던중 3일째 되는 날인 4월 15일(**김일성**주석의 탄생일)이였다. 이날 군인들은 배의 널판자를 뜯어내여 그 우에 쏟아져내리는 비물을 받아마시였다. 그런데 저녁에 점차 날씨가 개이면서 북두칠성이 유난히 빛을 뿌렸다. 4명의 군인들은 **김일성**주석께서 자기들을 **김정일**령도자의 품으로 기어이 살아돌아가라고 이렇게 비를 내려주고 북두칠성까지 비쳐주신다고

하면서《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의 노래를 부르며 방향을 잡아 노를 더욱 힘차게 저었다. 그들은 생사를 가늠하지 못할 그 시각에도 자기의 령도자를 그리며 힘을 내여 끝끝내 부대로 돌아왔던것이다.

자기의 최고사령관을 위해서라면 전군이 자폭용사가 되고 총폭탄용사가 되겠다는것이 오늘 인민군군인들속에 차넘치는 숭고한 사상정신세계이다.

김정일령도자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군은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서뿐아니라 일당백무적강군으로서의 위력도 세계의 면전에서 뚜렷이 과시하였다.

1999년 6월 서해해상사건이 일어났을 때였다.

당시 미국의 부추김을 받은 남조선괴뢰군은 《북방한계선》을 주장하면서 6월 4일부터 수십척의 각종 함선들을 공화국령해에 불법침입시켜 평화적인 어로작업을 하던 어민들의 신변을 위협하고 고기잡이를 방해해나섰다.

《북방한계선》은 황해남도와 경기도의 도경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섬들가운데서 백령도, 소청도, 대청도를 비롯한 5개의 섬마을을 련합국군사령관의 군사적통제밑에 둔다고 명백히 규정한 정전협정의 합의와 조항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그 5개 섬은 물론 공화국의 령해안의 바다도 저들의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남조선괴뢰들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강도적인 《해상분계선》이였다.

미군부호전계층의 비호밑에 남조선괴뢰군은 비법적인 《북방한계선》을 주장하면서 사전에 서해해상사건을 조작하기 위한 면밀한 작전안을 세웠다. 이 작전에 따라 6월 4일부터 매일과 같이 도발을 걸어오던 남조선괴뢰군은 15일에 이르러 공화국의 평화적어선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상적인 순찰활동을 수행

하고있던 조선인민군 해군함정들에 총포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이에 조선인민군 해병들은 무자비한 불벼락을 안기였다. 당시 력량대비를 보면 남조선괴뢰군은 대형구축함 2척과 쾌속정 20척, 땅크상륙함과 경비함, 보급선, 구조선 등 완전전투장비를 갖춘 40여척의 전투함선들외에 2개의 해병대대 력량이였고 조선인민군 해군의 력량은 서해해상에서 정상적인 경계근무를 수행하던 10여척의 경비정들뿐이였다.

조선인민군 해병들은 불의의 선제타격으로 우세를 차지하였던 남조선괴뢰군을 제압하고 반공격으로 이행하여 된벼락을 안기였다. 조선인민군 해병들은 첫 포탄으로 적함선의 심장부에 통구멍을 내고 두번째 포탄도 그 구멍으로 기관을 관통시켜 순식간에 배 한척을 두동강냈다. 해상전투가 벌어져 30분도 못되는 사이에 조선인민군 해병들은 적함 2척을 완전히 바다에 처박고 10여척을 격상시켰으며 적해병 100여명을 살상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날 전투에서 된매를 맞은 남조선괴뢰군은 저들의 함선들에 다시는 조선인민군 경비정과 맞서지 말라는 지령을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허세를 부리던 저들의 죄행이 세상에 알려질것이 두려워 이미 전투과정에 술한 기자들과 촬영기들을 동원하여 찍어두었던 사진, 록화물들을 모두 회수하고 전투에 참가했던 장교들과 사병들이 외부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일체 격페시켜놓는 놀음까지 벌려놓았다.

그후에도 여러차례의 서해해상사건이 일어났으나 그때마다 무적의 인민군대는 적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을 가하군 하였다.

2010년 남조선괴뢰들은 또 한차례의 톡톡한 징벌을 받았다.

그때 남조선괴뢰군은 그 무슨 군사연습을 한답시고 조선서해 연평도에서 공화국의 령해를 겨냥하여 포사격훈련을 하였다.

이에 인민군군인들은 무자비한 타격으로 적들의 포진지를 불바다로 만들어놓음으로써 일당백무적강군의 위력이 과연 어떤것인가 하는것을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하였다.

강위력한 국방공업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지난 세기말 고난의 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그처럼 어려웠던 시기에도 국방공업을 강화발전시키는것을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조국과 혁명,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는 가장 사활적인 문제로 보시면서 여기에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1998년 여름 어느 한 공장을 찾으실 때 있은 일이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날 공장의 여러 직장들을 돌아보시고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으며 3명의 기술자들을 친히 만나주시였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기재를 보시고나서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의도대로 완성된 조선식의 기재라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연구소책임일군들의 사업도 료해하시고 앞으로 더 큰 성과를 올리고 더 많은 청년과학자들을 키워내라고, 일만 잘하면 2중영웅이 아니라 3중영웅, 5중영웅도 될수 있다고 크나큰 믿음을 베풀어주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그때로부터 다섯달도 못되여 또다시 공장을 찾으시여 일군들과 로동자들, 기술자들에게 새로운 비약의 나래를 안겨주시였다. **김정일**령도자의 거듭되는 믿음과 사랑에 고무된 그 공장의 기술자들과 로동계급은 기세충천하여 아름찬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단 며칠사이에 풀고 넉달동안에 근 1만건의 설계도면과 공정기술문건들을 완성하였으며 수백건의

가치있는 창의고안, 합리화안을 생산에 도입하여 기재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오늘날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한 조선의 국방공업은 다방면적이고 종합적인 생산체계와 고도로 현대화된 생산설비들을 갖추게 되였으며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자기들에게 필요한 모든 전투기술기자재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척척 만들어냄으로써 자립적국방공업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있다.

인공지구위성《광명성1》호와《광명성2》호, 운반로케트《은하》의 제작과 성과적인 발사 그리고 2차에 걸쳐 진행된 성공적인 지하핵시험 등은 모두 공화국의 국방공업발전수준을 능히 가늠케 하고있다.

2010년에는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맞으며 진행된 열병식장에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을 세상에 공개함으로써 선군조선의 무궁무진한 국방공업의 위력을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하였다.

3) 핵무기보다 강한 일심단결

혁명의 수뇌부와 일심단결

조선은 령도자와 인민, 군대가 혼연일체를 이룬 일심단결된 나라이다.

일심단결이야말로 조선특유의 참모습이다.

자기 령도자의 사상에 기초한 일심단결이 있어 조선은 언제나 승리만을 기록하여왔으며 세상에 자기의 위력을 한껏 떨치고있다. 오늘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방대한 무력을 동원시키

면서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것은 조선이 강력한 핵억제력을 보유하고있는데도 있지만 그보다 더 위력한 무기인 일심단결이 있기때문이다.

핵무기보다도 더 위력한 무기인 일심단결, 그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공고하고 철통같은것이다. 바로 여기에 지구상의 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과의 싸움에서 공화국이 련전련승하는 근본요인의 하나가 있다.

이러한 일심단결이 과연 어디에 기초를 두고있으며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령도자와 인민이 혈연적으로 굳게 결합된 혼연일체에 있다.

김정일령도자께서 2001년 7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여일간 로씨야를 방문하실 때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로씨야방문을 위해 조국을 떠나신 날부터 조선인민은 오직 한마음 그이의 안녕만을 바랐고 친어버이를 기다리듯 그이께서 돌아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였다.

당과 국가, 군대의 지도간부들과 중앙과 지방, 공장, 기업소의 모든 책임일군들과 인민들은 **김정일**령도자의 외국방문기간 두배, 세배의 더 높은 실적을 내기 위하여 뛰고 또 뛰였다. 그리고 TV화면에서 대외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려나가시는 그이의 활력에 넘치신 모습을 뵈옵고 환호를 올리며 격정을 터뜨리기도 하였다.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낮에도 밤에도 모든 화제는 **김정일**령도자의 로씨야방문소식과 관련한것이였고 기상수문국의 전화기들은 그이께서 이어가시는 로씨야방문로정을 따라가며 그곳 날씨를 물어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전화문의로 만통화상태였다.

로씨야방문을 마치고 조국에 돌아오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8월 23일 로씨야방문소감에 대하여 말씀하시고나서 나는 로씨야를

방문하는 전기간 조국과 인민을 한시도 잊어본적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오래동안 가있으니 조국과 인민이 무척 그리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을 잊을수가 없었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조국인민들이 나를 생각한것처럼 나도 우리 인민들과 전사들을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로씨야에 가있으면서 조국인민들을 생각하며 그리워하였고 조국인민들은 로씨야에 가있는 나를 생각하며 그리워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입니다.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는 주체조선의 참모습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수자가 있다. 15만 3 110건

이 수자는 1995년 1월 1일부터 2003년 2월 18일까지의 기간에 **김정일**령도자께서 인민들이 삼가 올린 편지를 보아주신 총 건수이다.

이 기간에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매해 평균 1만 9 130여건, 매달 평균 1 570여건, 매일 평균 50여건의 편지를 보아주시였다. 편지들은 모두 평범한 인민군전사들, 로동자, 농민, 학생소년들이 올린것이였다. 이 시기로 말하면 그이께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진두에서 조직지휘하시느라 한초한초가 귀중한 때였다.

혼연일체를 이루고있는 조선의 참모습은 사진에 깃든 사연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2006년 12월 어느날이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내가 이제 동무들에게 아주 귀하고 훌륭한것을 보여주겠다고 하시면서 여러장의 사진을 내놓으시였다.

어느 한 인민군부대 녀병사들의 입대할 때의 사진과 살이 오르고 체중이 몰라보게 늘어난 현재의 모습을 찍은것들이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일군들에게 이것 보오, 입대할 때 몸무게가 얼마 안나갔는데 지금은 다 70kg이상 되였다고 하시면서 그 사진을 보고 또 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이 병사들은 고난의 행군때에 입대한 동무들이여서 몸이 약했다고, 그래서 자신께서 늘 가슴이 아파 애를 많이 썼는데 이제는 보람을 느끼게 되였다고, 내가 오늘처럼 기뻐보기는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부모들이 사진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새해전에 부모들이 사진을 볼수 있게 고향이 먼 병사들의 사진은 비행기편에라도 다 보내줍시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대홍수로 신의주지구에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을 때였다.

피해지역을 돌아보던 한 외국인이 무너진 집터에서 그릇가지를 주어모으는 한 로인에게 《로인님, 항차 살아갈 길이 막막하지 않습니까?》라고 물은적이 있었다.

로인은 그의 물음에 《막막하다니? 우린 그런 걱정 안하우다.》라고 흔연히 대답하였다. 의아해진 외국인은 또다시 《집이 다 허물어졌는데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집은 무너졌지만 마음의 기둥은 더 든든해졌다오.》

《마음의 기둥이라구요?》

《우리 장군님께서 계시지 않소. 장군님 계시면 아무 걱정 없수다. 두고보시우. 이제 우리가 더 잘살게 되지 않나.》

그 로인의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인민군군인들을 동원시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주시고 그들이 피해를 입은것보다 몇배나 되는 집과 가산을 일식으로 안겨주시였던것이다.

일본의 한 언론인은 《**김정일**, 자주와 존엄의 상징》이라는 글을 발표했는데 그 글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었다.

《중국에는 〈귤화위지〉(귤이 탱자로 변했다)라는 말이 있다.

다음과 같은 고사에서 유래된 말이다. 중국의 회강 남쪽은 제나라, 회강 북쪽은 초나라였다. 한번은 제나라 대부 안자가 초나라에 갔더니 초왕이 잔치를 차려 대접하였다. 술이 몇순배 돌았을 때 한 관리가 어떤 사람을 묶어가지고 와서 〈제나라사람인데 도적놈입니다.〉라고 고했다. 초왕이 넌지시 안자에게 물었다.

〈제나라사람들은 본래 도적질을 잘하시오?〉

그 말에 안자는 〈듣자니까 귤이 강남에서 나면 귤이 되고 강북에 옮겨오면 탱자가 된다는데 잎은 비슷하지만 맛은 딴판입니다. 풍토가 다르기때문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제나라에 있을때에는 도적질을 모르다가 초나라에 오면 도적이 되니 어인 일인가요?〉 하니 초왕은 아무말도 못했다 한다.

〈백성이 선정에서는 선인이 되고 악정에서는 악인이 된다.〉는 교훈적인 이야기이다.

김정일총비서의 사랑과 믿음의 정치는 공화국의 모든 사람들을 선인으로,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키워주고있으며 조선사회에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이라는 위대한 현실을 꽃피우고있다.

오늘날 서방의 정치계가 가장 리해 못해하는것은 공화국에 대립되는 정치세력이 없다는것이다. 그들이 만약 공화국에 와서 인덕의 정치풍토에서 령도자와 인민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룬 현실을 목격한다면 새로운 〈답〉을 찾게 될것이다.》

군대와 인민이 하나의 모습으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일찌기 유기체의 동맥에는 경화현상이 있을수 있지만 인민군대와 인민들사이의 혈연적관계에서는 그 어떤 자그마한 틈과 불신도 있을수 없다, 이것은 **김일성**주석의

뜻이고 의지인 동시에 군민관계에 대한 자신의 철학이며 좌우명이라고 하시였다.

선군정치의 새로운 력사를 펼치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군민관계를 공고한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군민일치를 실현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군대와 인민이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를 이룩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1996년 1월 어느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는것은 우리 당이 군건설에서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인민군대가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적과 싸워 승리할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전쟁에서는 우리가 진격을 하다가 필요에 따라 후퇴할수도 있다, 이런 경우 인민군대가 인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난 항일혁명투쟁시기 항일유격대가 맨주먹으로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할수 있은것은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호를 받았기때문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유격대원들은 인민들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적들과 싸웠으며 언제나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였다, 우리는 모든 인민군장병들을 우리 당의 군민일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이 인민의 군대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군민일치는 당과 군대와 인민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그 어떤 강적과도 싸워이길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이다, 적들은 우리에게 군민일치와 같은 위력한 무기가 있는것을 제일 무서워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주둔지역인민들을 적극 도와주고있는 어느 한 부대의 책임일군들을 치하하시면서 나는 군민관계에서 제기되는 긍정적인 자료들을 보고받을 때가 제일 기쁘다, 내가 인민군대에서 인민들의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인민

들을 성심성의껏 도와주라고 하였는데 그 부대 지휘부일군들이 제일 먼저 셈이 드는것 같다, 그 부대일군들의 모범을 널리 소개선전하여 인민군대안의 모든 일군들과 군인들이 그들처럼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1998년 2월 22일 인민군지휘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지금 어떤 사람들은 군민일치라고 하면 군대에 원호물자나 잘 보내주면 다 해결되는것처럼 생각하고있는데 군민일치는 그런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군대가 인민을 돕고 인민이 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군민일치에서 기본은 군대와 인민의 사상의 일치, 투쟁기풍의 일치를 보장하는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로부터 얼마후에는 군민일치가 오늘날 사회의 밑뿌리로 된다고 하시면서 군민일치를 보장하는데서 인민군대가 앞장서도록 하시였다.

조선인민이 고난의 행군을 하던 어느해 가을 한 인민군부대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부대 군인들은 겨울철땔감을 준비하다가 잃어버린 구분대의 소대신 그와 비슷한 다른 소를 끌어왔다.

이 사실을 료해한 부대정치위원은 군인들을 모여놓고 인민의 재산을 털끝만큼도 다치지 말아야 한다고 하신 **김일성**주석의 유훈을 어기고 군민관계를 흐리게 해서야 어떻게 **김정일**최고사령관의 전사들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고 절절히 이른 다음 소를 끌고 100여리의 밤길을 걸어 다음날 새벽에 농장에 도착하여 소임자에게 넘겨주며 용서를 빌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그 정치위원을 군민일치의 모범으로 특별히 평가하시고 전군에 그러한 모범이 일반화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인민군대안에서는 군민관계에서도 군대가 주인이 되고 모범이 되여야 한다는 자각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게 되였으며 그 과정에 인민군군인들은 인민들을 적극 도와주고 사랑하고 존경하며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위해서라면 물과 불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여드는 미풍을 높이 발휘하였다.

인민군대가 있어 자기들의 운명이 수호되고 행복한 생활이 담보되고있다는것을 실생활을 통해 깊이 체험한 인민들은 성심성의를 다하여 인민군군인들을 친혈육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진심으로 원호하였다.

1999년 6월 서해해상사건때 조선인민군 해병들과 인민들사이에 오고간 뜨거운 군민의 정은 군민일치가 얼마나 공고하고 높은 경지에 이르렀는가를 뚜렷이 보여준 하나의 축도였다.

그때 남조선괴뢰함정들이 순찰중인 공화국의 경비함정들을 고의적으로 들이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기 바쁘게 부근의 제대군인들과 전쟁로병들이 달려와 수류탄을 달라고, 자기들도 해병들과 함께 원쑤놈들을 족치겠다고 떨쳐나섰다. 그런가 하면 아들들이 피흘리고있는데 죽을 먹은들 뭐라는가고 하면서 터밭의 올감자를 다 캐가지고 나온 할머니, 종축으로 쓰려고 정성들여 키워온 돼지를 서슴없이 손수레에 싣고 달려온 녀성 등 인민들의 원군모습은 해병들의 마음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이때 주변마을녀성들은 해병들에게 《온 나라 어머니들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라는 제목의 위문편지도 써보냈다.

《…용감하세요. 복수해주세요. 오만한 침략자무리를 바다에 모조리 처넣고 이기고 돌아오는 조국의 아들들을 온 나라 어머니들은 기다립니다.》

군대를 원호하는 기풍이 날로 높아가는 속에 원군미풍열성자들의 대오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전국도처에서 우리 학교—우리

초소, 우리 공장—우리 초소, 우리 농장—우리 초소운동이 힘있게 벌어졌다.

2002년 11월에 열린 전국원군미풍열성자대회는 원군사업이 전 사회적규모에서 얼마나 힘있게 벌어지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었다.

군민일치가 활짝 꽃펴나는 과정에 인민들속에서는 인민군군인들이 창조한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우는 기풍이 날이 갈수록 높아갔으며 군대와 인민이 점차 하나의 모습으로 일색화되여갔다.

인민들은 인민군대의 사상과 투쟁기풍,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였다. 하기에 고난의 행군이 여러해 계속되는 속에서도 조선인민은 필승의 신념과 결사의 각오로 혁명과 건설을 다그쳤고 평범한 나날에는 엄두를 못내던 거창한 일들을 해제꼈다. 난관과 시련이 겹쌓인 어려운 나날에 조선인민이 거의나 인력으로 청년영웅도로와 대규모소금밭건설, 대규모발전소건설과 토지정리, 간석지건설과 같은 대자연개조사업을 성과적으로 해낼수 있은것은 인민군대의 사상과 투쟁기풍으로 투쟁한데 있었다.

그뿐이 아니였다.

인민군대의 락천적인 생활기풍, 알뜰한 살림살이기풍을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가운데 온 사회에 혁명적기백이 차넘치고 공장과 일터, 거리와 마을이 사회주의맛이 나게 그 면모를 일신하였다.

서방의 한 방송도 북조선사회의 밑바탕에는 **김정일**최고사령관의 휘하에 군과 민이 완전한 일치를 이룬 무서운 위력이 있다, 이것을 알아야 진짜 북조선을 알수 있다, 전략미싸일의 성능은 계산할수 있어도 그 몇천, 몇만배의 성능을 가진 군민일치의 힘을 자기들은 결코 산출해낼수 없다고 전하였다.

4) 강성대국건설에로

군대가 앞장에서 헤쳐간 고난의 행군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시기 인민군대에 사회주의건설의 중요부문들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낄데 대한 중요한 과업을 맡겨주시고 그 수행에서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생전에 시련과 난관이 가로막을 때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의 가장 어려웠던 1930년대말의 고난의 행군에 대하여 자주 말씀하군 하시였다. 그 고난의 행군은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을 포위섬멸하려는 일제의 토벌공세에 대처하여 **김일성**주석께서 부대를 이끄시고 단행하신 난파이즈로부터 베이다딩즈에로의 100여일간에 걸친 류례없이 간고한 행군으로서 조선혁명의 명맥을 지켜내고 혁명의 새로운 앙양기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장거였다.

1938년 12월 상순부터 1939년 3월말까지 진행된 고난의 행군은 **김일성**주석께서 후날 말씀하신것처럼 엄혹한 자연과의 투쟁, 극심한 식량난과 피로와의 투쟁, 무서운 병마와의 투쟁, 간악한 적들과의 투쟁,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자기자신과의 투쟁이였다. 초보적으로는 살아남기 위한 투쟁, 나아가서는 적들과 싸워 이기기 위한 투쟁이 바로 고난의 행군이였다.

김일성주석의 서거후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반공화국압살책동과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1990년대 후반기 조선인민

은 온갖 시련과 난관의 고비를 넘어야 하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세계의 이목이 대국상을 당한 조선의 평양으로 쏠리고있던 때인 1994년 11월 9일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최고사령관명령 제0051호를 하달하시여 평양시에 청류다리(2단계)와 금릉2동굴을 건설하도록 하시고 그 과업을 인민군대가 맡아 수행하도록 하시였다. 이것은 조선인민군은 조국보위의 수호자일뿐아니라 인민의 행복을 마련하는 창조와 건설의 힘있는 주력군임을 내외에 널리 선언한것이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그후 적들의 압살책동과 전쟁책동이 날로 우심해지고있는 어려운 정세하에서도 경제건설의 관건적고리라고 할수 있는 농업, 전력, 석탄, 철도운수 등 주요부문들에 인민군대를 파견하시여 그들이 앞장에서 고난의 행군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고 그뒤를 따라 전체 인민이 떨쳐나 조성된 경제적 난국을 타개해나가도록 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특히 농업전선을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선의 하나로 규정해주시고 인민군대가 종전처럼 주변농장들에 나가 농사를 도와주는 식으로가 아니라 농사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하며 긴장한 정세속에서도 대담하게 인민군부대들을 곡창지대를 비롯한 벌방지대들에 이동전개시켜 알곡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인민군군인들은 나라의 주요 곡창지대들에 달려나가기 바쁘게 영농도구들을 수리정비하고 거름을 생산하여 영농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었으며 모내기와 김매기, 가을걷이를 불이 번쩍나게 해제꼈다. 그들은 비록 서툰 농사일이였지만 철두철미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만 하였으며 아침에는 포전에 제일 먼저 나가고 저녁에는 제일 늦게 들어오며

헌신적으로 일하였다. 뿐만아니라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제기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로 뚫고나갔으며 먹을것이 생기면 죽이라도 농장원들과 갈이 나누어먹으며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활짝 꽃피워나갔다.

전력, 석탄공업부문에 파견된 인민군군인들도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고난의 행군의 첫 시기 례년에 드문 왕가물로 수력발전소들의 수위가 낮아져 발전량이 현저히 떨어지고 화력발전소들에는 중유와 석탄을 원만히 대주지 못하여 전기가 제대로 생산되지 못하고있었다. 어디에서나 요구되는것은 전기였다. 산업의 동력인 전기문제를 풀어야 전반적인 경제를 추켜세우고 생산을 정상화, 활성화해나갈수 있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인민군대가 대규모수력발전소들과 함께 중소형발전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도록 과업을 주시는 한편 물량이 부족하여 수력발전소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조건에서 화력발전소들에 나가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도록 하시였다. 또한 나라의 주요 탄광들에 인민군부대들을 보내시여 전력생산에 필요한 석탄을 무조건 생산보장하도록 하시였다.

이 과정에 인민군군인건설자들은 서해갑문건설의 2배에 달하는 대자연개조공사인 안변청년발전소건설을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며 성과적으로 준공하였으며 그 나날에 혁명적군인정신도 창조하게 되였다.

한편 각지 탄광들에 파견된 인민군군인들은 침수된 갱들을 원상복구하고 수많은 전차와 탄차를 수리하였으며 석수가 쏟아지고 붕락이 계속되는 위험속에서도 석탄생산을 늘여나갔다.

조선의 전력생산에서 많은 몫을 담당하고있는 북창화력발전

련합기업소에 달려나간 군인들은 그곳에 배낭을 풀어놓자마자 힘찬 로력투쟁을 벌려 전력생산을 장성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인민군대는 몇십년이 걸려도 하기 힘든 방대한 토지정리사업도 단 몇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높은 질적수준에서 훌륭히 수행하였다.

서해의 명승 구월산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조선의 6대명산의 하나로, 인민의 문화유원지로 그 모습을 빛내이게 된것도, 룡문대굴과 송암동굴이 선군조선의 지하절경으로 그 황홀경을 드러내고 천고의 수림속에 수수천년 묻혀있던 울림폭포가 인민의 사랑을 받는 유원지로 전변된것도 인민군대의 영웅적위훈과 뜨거운 애국심을 떠나서 결코 생각할수 없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인민군군인들의 불굴의 정신력으로 완공된 녕원발전소를 찾으시여 군인건설자들이 1t의 철강재, 1포대의 세멘트가 그처럼 귀하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력으로 대규모수력발전소를 일떠세운것은 경탄할만 한 성과이라고 하시면서 녕원발전소의 성과적완공은 불가능을 모르는 인민군대의 무한대한 정신력의 위력과 자립적민족경제의 거대한 잠재력에 대한 자랑찬 시위로 되며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악랄한 압살책동을 과감히 짓부시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리고 녕원발전소건설을 몸소 발기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김일성**주석께서 이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고 하시면서 인민군군인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주석의 유훈이 드디여 빛나게 관철되게 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군인건설자들은《언제여, 오르라, 너의 절정에 오르면 평양이 보인다!》라는 글발을 언제에 쓰고 녕원발전소를 건설하였다고 한다.

조선에서 인민군대가 경제건설의 중요한 몫을 맡아 수행하고있는데 대해 미국의 어느 한 방송은 이렇게 전하였다.

《현실적으로 이 나라 군대는 전쟁준비뿐아니라 경제건설은 물론 농업에서도 주력부대로 되고있으며 사회안전분야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있다. 1997년 북조선의 주요건설대상에서나 농업에서 성과가 있었다면 그것은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목숨으로 지키는 군대의 주동적인 역할에 의하여 이룩된것이다. 군대는 이 나라 사회주의정치실체를 고수하는 유일한 주력군으로 되고있을뿐아니라 북조선이 처한 모든 경제적난관을 극복하는데서 말그대로 최고사령관의 돌격대, 주력부대로 활동하고있다. …군대의 주동적인 역할과 헌신적인 노력이 없다면 북조선이 현 난국을 타개할 엄두도 내지 못하였을것이며 사회주의존재자체도 지탱할수 없을것이다.》

강계정신의 창조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고난의 행군시기 자강도인민들이 인민군군인들의 혁명적군인정신을 적극 따라배워 강계정신을 창조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1996년 1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오늘보다도 래일을 위하여 살며 투쟁하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 이것이 나의 인생관입니다. 이 말은 자기는 락을 보지 못하더라도 조국의 앞날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한몸을 바칠 각오를 가지고 살라는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제국주의의 책동속에서 사회주의를 지켜나가자니 시련도 많고 고난도 많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혁명의 길에서 물러설수 없다고 하시면서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이것이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신념이고 배짱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후 **김정일**령도자께서는 1997년 3월 17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우는데서 군수공장로동계급부터 불러일으켜 그들이 앞장서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강조하시였다

흔히 경제적난관에 봉착하거나 경제개발을 하는 나라들을 보면 국가지도자들이 외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대외교섭의 길에 오르거나 경제구조와 관리방식을 개혁하는것이 상례이다. 서방은 그때 조선이 자기의 경제구조를 세계화의 흐름에 맞게 개혁한다면 많은 원조를 줄것처럼 외교적경로를 통해 암시를 보내여왔다.

그러나 언제나 사상론을 주장하시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성된 경제적난국을 타개하는 길을 인민들의 무궁무진한 사상정신력을 발동시키는데서 찾으시였다. 이런데로부터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온 나라 인민들이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하시면서 그 본보기를 다름아닌 제일 어려운 고비를 겪고있는 자강도에서 창조하도록 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1998년 1월 16일부터 21일까지 -30℃를 오르내리는 대소한의 강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북변에 위치하고있는 자강땅을 찾으시여 도안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현지지도과정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살며 싸우려는 자강도안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들의 드높은 투쟁모습을 목격하게 되시였다.

도안의 일군들과 인민들은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는 불굴의 투쟁정신과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불과 1년사이에 여러가지 형식의 중소형발전소들을 수많이 건설하였다. 뿐만아니라 이미 건설하여놓고도 세워두었던 중소형발전소들을 보수정비하여 거기서만도 적지 않은 전기를 생산하였다. 전기가 나오니 숨죽었던 공장들이 하나둘 동음을 울리며 돌아가기 시작하였다.

자강도사람들은 농사에서도 전국의 모범이 되여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많은 량의 거름을 생산하여 뜨락또르로 밭에 날랐고 뜨락또르가 없으면 달구지, 발구, 손달구지, 등짐으로 실어내였다. 그런가 하면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일터와 마을을 사회주의맛이 나게 문화위생적으로 꾸리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키였다.

도안의 인민들은 강하천정리도 알뜰히 해나갔고 뽕밭조성도 착실히 하면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리였다.

비록 풀죽으로 끼니를 에우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겨운 전투를 벌리고있는 그들이였으나 모두의 얼굴마다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넘쳐흐르고 가는곳마다 흥겨운 노래소리가 울리였다. 조선에서 대용식료품이란 말이 제일먼저 나온 곳이 자강도였다. 그만큼 당시 자강도사람들의 식량난은 극도에 달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지칠줄 모르는 열정을 안고 남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생활의 극한점을 웃음으로 극복하면서 뛰고 또 뛰였다.

날과 달이 바뀔수록 도의 면모는 새롭게 일신되여갔다.

사람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듯 높아갔다.

자강도인민들은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안고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라는 구호를 부르며 고난의 행군의 날과 달을 승리로 아로새겨왔다. 이렇게 되여 자강도인민들은 **김정일**령도자께서 과업을 주신 때로부터 2년남짓한 기간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그이를 자기 도에 모실수 있게 되였던것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1998년 1월 17일 조선로동당 자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연형묵에게 이번에 자강도에 와서 자강도로동계급이 당의 믿음을 신념으로 간직하고있다는것을 확신하였다고, 자강도사람들의 정신상태가 매우 좋다고, 큰 힘을 얻었다고 하시면서 거듭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6일간에 걸치는 현지지도기간에 그이께서 걸으신 로정은 연 6 000여리에 달하였고 돌아보신 대상은 근 20개 단위를 헤아렸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자강도에 가실 때마다 힘과 고무를 얻기때문에 자강도는 고난의 행군시기에 자신께 정든 고장이라고 하시며 자강도에서 창조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강계정신으로 부르도록 하시고 그것을 온 나라가 따라배우도록 하시였다. 이것은 온 사회에 혁명적군인정신이 더욱 세차게 나래치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21세기의 새로운 혁명적대고조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사람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살게 하는 강성대국건설, 이것은 **김일성**주석의 한평생의 소원이였고 념원이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강성대국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키

시기 위하여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지펴주시였다.

2008년 12월 24일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로 말하면 **김일성**주석께서 해방직후인 1945년 10월부터 새 조국 건설과 전후복구건설, 사회주의건설단계에 이르는 전기간 무려 47차례나 찾아가시여 그곳 로동계급을 불러일으켜 혁명의 난국을 타개하고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신 력사적인 고장이다.

특히 **김일성**주석께서는 1956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이후 이 기업소(당시 강선제강소)를 찾으시여 이곳 로동계급에게 사회주의건설에서 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한 천리마운동의 불씨를 안겨주시였다.

이 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때려부시고 온갖 애로와 난관을 용감하게 이겨내면서 창조적열의와 재능을 남김없이 발양하여 생산에서 일대 고조를 일으키면서 천리마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강선의 로동계급이 지펴올린 천리마대진군의 불길은 전국에 퍼져나갔으며 이때부터 강선은 천리마의 고향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도 21세기의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지펴주시기 위해 이날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찾으시였던것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날 **김일성**주석의 거룩한 자욱이 새겨져있는 소중한 사적물과 사적자료들을 보시면서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는 부강조국건설을 위해 한생을 바쳐오신 주석의 애국헌신과 수령과 인민의 혼연일체의 위력을 보여주는 위대한 력사의 체험자, 증견자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어 새로 건설된 초고전력전기로를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강선의 로동계급은 자체의 설계, 자체의 기술, 자체의 힘으로 단 몇개월사이에 최첨단전기로를 성과적으로 일떠세움으로써 강철생산을 급격히 늘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제강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강철공업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초고전력전기로를 자력으로 훌륭히 건설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천리마의 고향인 강선이 끓어야 온 나라가 들끓고 강선의 로동계급이 소리치며 내달려야 전국의 로동계급의 발걸음이 더 빨라질수 있다고 하시면서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세차게 지펴올릴것을 호소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지펴주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조선인민은 놀라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였다.

혁명의 주력군인 인민군대도 자기의 위력을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녕원발전소건설을 성과적으로 끝낸 군인건설자들에게 강성대국건설의 대결전장인 희천발전소건설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최단기간내에 끝낼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주시였다.

2009년 3월 희천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발전소건설이 10년이상 걸려야 하는 방대한 과제이지만 인민이 하루빨리 덕을 보게 하자면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까지 무조건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희천발전소건설을 빠른 속도로 추진시키기 위하여 수십차례에 걸쳐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강력한 건설력량, 지휘력량도 꾸려주시였다. 그리고 발전소건설

정형을 수시로 알아보시고 운수수단들과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도록 필요한 대책을 다 세워주시였다. 군인들과 그 가족들, 돌격대원들이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느낄세라 숙식조건을 비롯한 후방사업과 생활보장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도록 하신 **김정일**령도자의 뜨거운 사랑은 온 건설장에 기적창조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오르게 하였다.

희천발전소건설에 동원된 군인건설자들은 물길굴, 송전선공사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들은 가장 어려운 공사의 하나인 언제기초콩크리트치기를 비롯하여 여느때 같으면 몇년 걸려야 할 방대한 작업량을 단 5개월사이에 해제끼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2009년 9월 17일 희천발전소건설장을 또다시 찾으시여 건설장에 흐르는 분과 초가 그대로 비약과 혁신이고 이 열정의 도가니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 비상한 속도를 《희천속도》라고 명명해주시였으며 2010년 1월에는 희천발전소건설장을 또다시 찾으시여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군인건설자들은 물길굴을 뚫으며 선군시대의 창조물이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끄떡없을 만년대계의 창조물로 거연히 솟아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라는 글발을 새기고 언제건설과 물길굴공사에 자기들의 깨끗한 량심을 다 바치였다. 군인건설자들은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마침내 10년이 걸려야 할 방대한 량의 룡림언제건설을 착공한 때로부터 700여일이라는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내여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것을 다시한번 세상에 과시하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로 하여 조선은 사회주의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당당한 지위에 올라섰을뿐아니라 경제건설의 모든 부문에서도 기적과 변혁을 창조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2009년 12월 성진제강련합기업소를 찾으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성강의 로동계급이 주체철생산체계를 완성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이곳 로동계급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체철 더하기 사상, 이것이 바로 성강의 정신력이라고 하시였다.

주체철이란 강철생산에서 수입용콕스탄을 쓰지 않고 조선에 무진장한 무연탄을 연료로 하고 립철을 원료로 산소열법으로 생산해낸 철을 말한다.

조선에서 주체철생산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사업은 이미전부터 진행되여왔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생전에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람이라면 주체철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주체적인 강철공업건설의 초행길을 개척하시였으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조선식 제철제강법의 완성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시였다.

주체강철의 탄생을 일일천추로 바라시던 **김일성**주석의 유훈은 선군시대에 와서 **김정일**령도자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였다.

삼복철강행군길과 눈보라강행군길을 헤치시며 성강땅을 여러차례 찾으시여 **김일성**주석의 주체철사상을 구현해나가자고 간곡히 당부하신 **김정일**령도자의 절절한 호소를 받들고 성강의

로동계급은 주체철생산체계를 기어이 완성해내고야말았다.

성강에서 주체철생산체계의 완성에 뒤이어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서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 가스화암모니아공정에 필요한 1만 5 000㎥능력의 대형산소분리기생산을 자체의 기술과 힘에 의거하여 짧은 기간내에 끝냈으며 화학공업부문에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생산공정을 현대화하였다.

2010년 2월 현대적으로 꾸려진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찾으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깃털마냥 부드럽고 포근한 새하얀 비날론솜을 쥐시고 크나큰 격정속에 오래도록 보고 또 보시며 비날론솜은 목화솜이나 양털에 못지 않는 훌륭한 방직원료라고 하시면서 주체솜이 쾅쾅 생산되고있는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선군시대의 위대한 창조물들은 비단 이것만이 아니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 개건확장된 현대적인 기술장비와 생산체계를 갖춘 3월5일청년광산, 마그네샤생산기지인 대흥청년영웅광산 등 그 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났다.

거의 1개 군에 맞먹는 토지를 얻는 대계도간석지건설에 동원된 과학자, 기술자, 건설자들은 부족한것이 많고 난관과 시련이 앞을 막아나섰지만 대자연의 횡포한 광란과 싸우며 끝끝내 자체의 힘으로 그처럼 막기 힘든 방파제를 성과적으로 쌓았다.

그리고 **김일성**종합대학, 함흥화학공업대학을 비롯한 인재양성의 전당들이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변되고 선군혁명문학예술의 발전으로 **김일성**상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아리랑》과 대형요술공연,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김일성**상계관작품들인 연극《산울림》과《오늘을 추억하리》와 같은 문학예술작품들이 련이어 창조되였다. 특히 **김일성**상계관작품 대집단체조

와 예술공연 《아리랑》은 그 내용이 심오하고 형식이 새로울뿐아니라 규모가 방대한것으로 하여 기니스기록집에 오르게 되였다.

김일성상계관작품들인 연극 《산울림》과 《오늘을 추억하리》는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어떻게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 하는 심오한 철학적내용을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조선인민의 사랑을 받으며 오늘도 련일 대절찬속에서 공연되고있다.

김일성상계관작품 연극 《산울림》은 이미 수십여년전에 창작공연되였는데 새 세기에 들어와 재창조공연되면서 강성국가건설에로 부르는 조선로동당의 부름에 여운을 남기며 메아리쳐가는 산울림처럼 우렁차게 화답하는 조선인민의 투쟁모습을 그리고있다. 그리고 **김일성**상계관작품 연극《오늘을 추억하리》는 고난의 행군시기 온갖 시련을 이겨내며 군자체의 힘으로 발전소언제를 건설하는 어느 한 군의 일군들과 인민들의 투쟁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날에 와서 고난의 행군시기에 대한 추억이 슬픔에 대한 추억이 아니라 신념과 의지에 대한 추억이라는 심오한 철학적내용을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강한 여운을 남기고있다.

최첨단돌파전의 열풍

조선인민은《과학기술은 강성대국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이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조선에서 세차게 타오른 최첨단돌파전의 열풍은 CNC기술의 개발리용 하나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최근년간 조선은 CNC기술을 자체로 개발하고 적극 도입해나가고있다.

CNC기술은 세계적으로 몇개 나라밖에 소유하지 못하고있다.

오늘 조선에서 방송을 들으면 CNC노래가 울려나오고 TV를 보면 CNC라는 표현이 자주 울려나오고있다. 그만큼 오늘 조선의 모든 부문에서 현대화의 된바람이 세차게 일고있다.

《로동신문》2011년 3월 23일부에 실린 《장군님과 CNC》라는 제목의 글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우리 장군님의 정치실력의 폭과 깊이에 대하여서는 세계가 잘 알고있다. 남조선언론인들이 평양에 왔을 때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뵈온 자리에서 지금은 아날로그시대가 아니라 디지탈시대인데 디지탈식으로 대화를 하자고 하신 한마디의 말씀에 깜짝 놀랐던 일이 있다. 이 사실이 남조선경향각지에 급속히 전파된 사실만으로도 새 세기의 높은 지향을 한품에 안으신 우리 장군님의 정치적매력, 지성적매력에 대하여 충분히 감각할수 있는것이다. …

조선에 있어서 CNC는 단순한 영어자모만이 아니였다. 광고를 위한 문자도 아니였다. 그것은 지식경제시대 조선의 새 모습을 담고있었다. 그이께 있어서 CNC는 이미 최첨단돌파전의 강력한 무기로 되였다.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을 향하여 나가고있는 조선의 목표는 무엇인가. 조선의 미래를 틀어쥐고계시는 **김정일**장군의 정치방향, 정치축은 과연 무엇인가. **김정일**정치의 높이는 어디에 있는가. CNC는 그것을 상징하는것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CNC화를 통하여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종자를 틀어쥐시였으며 CNC라는 말과 함께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지름길을 열어나가고계시는것이다.》

이 글은 조선의 CNC기술이 비단 오늘날에 와서 발전한것이 아님을 잘 알수 있게 하여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조선을 최첨단과학기술로 무장한 위력한 경제강국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그이의 정력적이고도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선은 CNC기술분야에서 당당한 패권을 틀어쥔 과학기술강국으로서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있다. 하기에 오늘 조선의 이르는곳마다에는 CNC기술로 장비된 공장, 기업소들과 첨단설비들로 갖추어진 목장, 경공업공장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있다.

그 대표적인 공장이 희천련하기계종합공장이다. **김정일**령도자의 최첨단돌파사상이 자그마한 기계공장에 불과하였던 이 공장을 오늘은 세계의 CNC기술을 단연코 따라잡고 앞서나가는 21세기 표본공장으로 전변되게 하였다.

오늘 조선에서의 첨단돌파전은 강철공업과 전력공업, 화학공업뿐아니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이 모든것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과학기술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려던 **김정일**령도자의 령도가 낳은 또 하나의 위대한 전변이고 기적이였다.

5) 련전련승을 기록한 조미핵대결전

준전시상태선포와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탈퇴성명

1991년 만전쟁이후 기고만장해진 미국은 공격의 화살을 조선에 집중하면서 조선의 핵무기개발설을 대대적으로 내돌려 세계여론을 오도하는 한편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았다는 날조된 《죄명》을 씌워 조선에 대한 일방적인 핵사찰 압력소동을 벌렸다.

원래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미국이 남조선에 1 000여개의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조선반도를 핵전쟁의 위험한 발원지로 전변시킴으로써 발생하였다. 1950년대 후반기 핵미싸일 《오네스트죤》을 남조선에 실전배비하면서부터 시작된 미국의 핵무기반입책동은 1980년대 전반기 20세기 악마의 무기인 중성자탄의 반입으로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다. 남조선은 말그대로 미국의 극동지역 핵전시장으로 전환되였다.

공화국은 남조선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철수시키고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며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들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1985년 12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조약가입후 1년 6개월내에 국제원자력기구와 체결하게 되여있는 핵담보협정이 체결되지 못하고있었다.

그후 공화국정부는 남조선당국의 핵무기부재선언이 발표되고 미국이 핵위협을 하지 않겠다고 담보한 조건에서 1992년 1월 30일 국제원자력기구와 핵담보협정을 체결하고 그해말까지 다섯차례의 비정기사찰을 성실하게 받았다. 이 과정에 조선의 평화적핵활동의 투명성이 세계의 면전에서 명명백백하게 확증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일부 불순계층을 부추겨 1992년 말 제6차 비정기사찰을 앞두고 조선이 제출한 핵물질재고량초기보고서내용과 저들이 측정한 결과사이에 불일치가 있다고 하면서 이것을 구실로 핵활동과 관련이 없는 2개의 일반군사대상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요해나섰다. 만약 공화국이 이에 응한다면 그것은 곧 교전일방인 미국의 정탐행위를 합법화해주고 모든 군사대상들을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시초로 될것이며 나아가서는 적들앞에 무장해제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뻔한 리치였다.

조선은 이 날강도적인 요구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이렇게 되자 미국은 특별사찰에 응하지 않으면 그레네이더나 빠나마, 이라크의 전철을 밟게 될것이라느니, 그 무슨 집단제재를 가하겠다느니 하면서 조선을 위협해나섰다.

1993년 1월 26일에는 이미 중지했던《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한다는것을 공포하고 미군무력의 대기동을 개시하였다. 조선반도와 그 주변 수역에는《토마호크》순항미싸일,《F-117》스텔스전투폭격기,《B-1B》전략폭격기 등 핵무기를 적재한 신형전투기들과 함선, 각종 핵타격수단들이 대대적으로 집결되고 미국본토와 괌도, 하와이,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군기지들에서 신속반응전개무력을 비롯한 20여만의 침략무력이 전쟁연습에 동원되였다. 전쟁연습기간 미국본토와 세계 각지에 전개된 미군무력이 조선반도를 겨냥하여 대기태세에 들어가고 핵무기사용시의 지휘통신체계까지 발동되였다.

《팀 스피리트93》합동군사연습의 강행은 조선반도의 핵위기를 각일각 극한점으로 몰아갔으며 조선반도에는 일촉즉발의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세계는 평양의 반응을 주시하였다.

이러한 때인 1993년 3월 8일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미국의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조치로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34호《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하여》를 하달하시였다.

이날 오후 5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이 전파를 타고 온 세상에 공포되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백전백승의 혁명무력으로 자라났으며 전민이 무장하고 전국이

요새화됨으로써 그 어떤 침략자도 일격에 소탕할 만단의 준비가 되여있다.

민족의 자주성과 나라의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자기의 존엄을 유린당하면서까지 평화를 구걸하지 않을것이다.

만약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새 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을 위하여, 피로써 쟁취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 침략자들에게 섬멸적인 타격을 주고 영웅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다시한번 떨칠것이다.

원쑤들은 우리 공화국의 한치의 땅, 한포기의 풀도 함부로 건드릴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나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우리 나라에 조성되고있는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우리 공화국과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조치로서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1. 전국, 전민, 전군이 1993년 3월 9일부터 준전시상태로 넘어갈것.

2. 조선인민군 륙해공군부대들과 조선인민경비대, 로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전체 대원들은 높은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적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원쑤들이 언제 어느때 덤벼들어도 일격에 소멸할수 있게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출것.

3. 전체 인민들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전쟁관점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한손에는 마치와 낫, 다른 손에는 총을 들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킬것.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 》

명령은 자자구구가 원쑤의 심장에 비수를 박는것과 같이 예리하고 준절하였다.

김정일령도자의 명령에 따라 인민군대의 대타격집단들과 기계화부대들이 전투진지들을 차지하고 당장이라도 전투에 림할 준비를 갖추었다.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전투복장을 하였으며 기관총을 설치한 자동차들이 평양을 비롯한 도시들을 순찰하였다.

최고사령관명령이 하달된 때로부터 열흘남짓한 기간에 150여만명의 청년학생들이 인민군대입대를 탄원한 사실 하나만 놓고 보아도 조선인민의 기세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잘 알수 있었다. 젊은 시절에 유능한 추격기비행사였던 70고령의 한 전쟁로병은 나에게 비행기를 한대 달라, 그리고 거기에 제일 위력한 폭탄을 실어달라, 돌아올 때 쓸 연유는 필요없다, 그러면 나는 침략자들의 소굴에 날아가 한목숨 바쳐 원쑤들을 까부시겠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조선인민과 인민군대의 멸적의 모습이였다. 이것은 미국으로서는 예견치 못하였던 강타였다. 그러나 일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공화국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한지 4일이 지난 3월 12일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 정부성명을 발표하였다.

공화국정부성명에서는 나라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것을 엄숙히 선포하고 이것은 미국의 핵전쟁책동과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안의 일부 계층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응당한 자위적조치이며 이러한 원칙적립장은 미국이 조선에 대한 핵위협을 중지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서기국이 독자성과 공정성의 원칙으로 돌아설 때까지 달라지지 않을것이라는것을 천명하였다.

이것은 세계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며 자기 의사를 거역할

나라가 세상에 없다고 오만하게 행동하던 미국에 정면으로 맞서 판가리결전을 벌릴 **김정일**령도자의 단호한 결심을 담은 선전포고나 다름없는것이였다.

이 폭탄선언이 나가자 세계는 또다시 죽가마끓듯 하였다. 공화국정부성명이 나간지 30분도 안되여 중국과 로씨야,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신문, 통신, 방송들이 조선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성명을 긴급중대소식으로 대서특필하였다. 보도들은《북조선의 핵개발을 막으려고 한 미국의 전략이 북조선의 탈퇴선언으로 실패하였다.》,《조선의 결정은 미행정부를 쇼크상태에 빠지게 하였다.》,《강타, 또 강타! 조선이 먼저 급소타격!》,《총 한방 쏘지 않고 미국과의 대결에서 완전승리!》라고 조선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미국을 야유하였다.

특히《**김정일**최고사령관의 무비의 담력은 세계에 널리 알려졌던 명장들의 담을 다 합친것보다 더 크다.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담력앞에서는 원자탄도 맥을 추지 못한다.》,《지금의 대결은 북조선지도자의 령도예술의 최절정을 보여주고있다.》라고 격찬하였다. 미국의 한 출판물까지도《최고사령관 **김정일**각하의 담대한 기상과 결단성있는 담력이 있어 조선을 함부로 건드릴수 없다.》고 평하였다.

미국무성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담당 차관보는《북조선이 이처럼 강력한 태도로 반격해나오리라는것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북조선은 단결력에 있어서나 군사력에 있어서 특수한 나라이기때문에 미국에 어떠한 타격을 가해올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20여만의 대병력과 최신군사장비들을 동원하여 위협적으로 나오던 미국은 원래 계획했던 기일보다 앞당겨 3월 18일 아침 8시《팀 스피리트93》전쟁연습의 중지를 선포하고말았다.

그러면서도 공화국의 반격이 무서워 전쟁연습에 동원시켰던 병력을 4월말까지 그대로 두기로 하였다.

적들의 강박에는 강타로,《응징》에는 무자비한 징벌로 단호히 맞서나가시는 **김정일**령도자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철의 의지에 세계는 크게 탄복하였다. 세계를 더욱 놀라게 한것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였던 그 시기 **김정일**령도자께서 새로 건설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시였다는 사실이였다. 그때 학생들은《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라는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봄철야영을 떠났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최고사령관의 중임을 맡으신후 첫 반미대결전을 이렇게 승리적으로 결속하심으로써 사회주의와 인민의 운명, 조국의 안전을 지켜주시였다.

작고도 큰 나라

미국은 1993년 조선의 핵문제를 걸고드는것과 함께 새 전쟁도발계획인《작전계획 5027》까지 의도적으로 내돌리면서 조선에 대한 군사적공세를 취하였다. 미국이 이것을 내돌린것은 조선의 심리를 건드려보자는데도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조선의 대답은 천만뜻밖의것이였다.

저들의《작전계획 5027》의 람발에 놀랄줄 알았던 조선이 전체 인민이 준전시상태로 넘어갈데 대한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하달하는것으로 대답해나섰던것이다.

공화국의 대응조치에 당황망조해진 미국에 또 하나의 불길한 징조가 나타났다. 그것은 조선에 대한 군사적공격에 앞서 진행한 모의전쟁결과였다.

전쟁최초의 90일동안에 미군사망자는 5만 2 000명, 남조선 괴뢰군사상자는 49만명, 재정지출은 610억US$…

모의전쟁에 참가했던 당시 남조선주둔 미군사령관 개리 락크는 그때의 상황에 대해 《뉴스 위크》에 이렇게 고백했다.

《만약 조선전쟁을 일으켰더라면 미군 10만명을 포함하여 미군과 남조선군 병력의 총 손실은 100만명, 조선전쟁에 미국이 지출하는 비용은 1 000억US$, 남조선의 경제적손실액은 1조 US$이상에 달했을것이다.》

너무도 놀라운 사실로 하여 미국의 클린톤대통령은 조선전쟁을 포기하고 평양과 회담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극에서 극으로의 전환이였다.

결국 미국은 1994년 **김정일**령도자께 북조선에 경수로를 제공해주며 전력생산보장을 위한 중유제공을 책임진다는 대통령의 담보서한을 보내였다. 이것은 선군으로 다져온 공화국의 군력이 낳은 필연적인 귀결이였다.

수세에 빠진 미국은 이번에는 미싸일문제를 들고나와 조선을 압살하려고 하였다.

1998년 8월 공화국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를 발사하여 단번에 자기의 궤도에 진입시켰다.

조선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에 제일 놀란것은 미국이였다.

미공화당패거리들은 민주당행정부의 대조선정책에 구멍이 뚫렸다, 북조선의 붕괴를 가져오지 못한것은 물론 핵동결이라는 기본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숱한 식량이나 떼우며 북조선에 끌려다니기만 했다, 이번에 발사된 북조선의 미싸일은 알라스카나 하와이, 캘리포니아주까지 타격할수 있다, 미국인의 머리우에 핵구름이 떠돌게 되였다고 클린톤을 공격하였다. 클린톤행정부는

힘에 의한 강경정책으로 돌아설수도 없었고 공화당의 반발도 피할수 없는 처지에 빠지게 되였다.

이러한 때 미국의 공화당패거리들은 미중앙정보국을 내세워 북조선이 비밀지하핵시설을 가지고있다는 정보자료를 류포시켰다.

조선이 금창리의 깊은 산속에 지하갱도를 건설하고 거기서 핵폭탄을 제조한다는 금창리위기설이였다.

날로 가중되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처하여 1998년 12월 2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대변인성명을 발표하시였다.

《…불을 불로 다스리는것은 우리 혁명군대의 기질이며 고유한 대응방식이다.

외과수술식 타격이요, 선제타격이요 하는것들은 결코 미국만의 선택권이 아니며 그 타격방식도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우리 인민군대의 타격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 타격을 피할자는 이 행성우에 없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피하지도 않으며 일단 전쟁이 강요된다면 다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것이다.

미제가 대화와 협상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끌어가고있는 오늘의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우리의 혁명무력은 미제침략군의 도전을 추호도 용서치 않고 섬멸적인 타격으로 대답할것이라는것을 주체조선의 존엄을 걸고 엄숙히 선언한다.…》

핵폭탄과도 같은 성명이 발표되자 미국의 오만한 태도는 자라목처럼 움츠러들었다.

결국 미국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금창리의 텅 빈 지하갱도를 돌아보았다. 있지도 않는 핵제조지하갱도설을 류포

시키면서 국제적인 대조선포위환을 형성하려고 시도하던 미국은 또 한번 세계의 면전에서 커다란 창피를 당하였다.

사태가 이렇게 번져지자 클린톤은 자기들의 대북조선정책을 전면검토한다는것을 발표하고 공화당패거리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고있는 강경매파인 전 국방장관 페리를 대통령특별고문겸 대조선정책조정관으로 들여앉혔으며 1999년 5월 하순에는 그를 위시한 미국고위급대표단을 평양에 보냈다.

페리는 **김정일**령도자께 올리는 미국대통령 클린톤의 친서를 가지고왔다. 페리는 그해 9월 15일 20페지에 달하는 대조선정책보고서(일명《페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 기본내용은 첫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및 미싸일활동은 미국의 사활적인 리익은 물론 지역적 및 세계적인 안전에 심각한 후과를 미치고있으므로 미국은 이러한 활동을 중지시키는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것, 둘째로, 협조공간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및 미싸일관련활동을 중지시킬수 있다면 미국은 북조선과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남조선의 반공화국정책과 합류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는것, 셋째로, 미조기본합의문을 교체하는 방법이 아닌 보충의 방법으로 미조사이의 모순을 해소해야 한다는것, 넷째로, 미국의 정책은 지어 도발에 직면한다하더라도 인내성있게 일관한 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는것, 다섯째로, 현재 취하고있는 조선접근정책은 현 행정부의 임기가 끝나도 계속 유지되여야 한다는것이였다.

페리의 보고서제출후 미국의 대조선강경립장에서는 일정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것은 공화국의 초강경자세에 눌리운 미국이 울며 겨자먹기로 취한 또 한걸음의 양보였다.

6자회담의 결과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조선과 미국의 대결전은 계속 첨예하게 벌어졌다.

미국대통령 부쉬는 2001년 6월 6일 핵사찰수락, 미싸일발사중지, 상용무기의 축감 등을 골자로 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어 부쉬는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사용할 지하시설파괴용소형핵무기를 개발할것과 조선에 대한 핵공격계획을 세울것을 지시하였다. 이것은 핵무기보유국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비핵국가의 근본리익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를 조성하지 말고 핵전쟁을 피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근본정신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였다.

또한 2002년 1월 부쉬는 조선을 《악의 축》으로 지명하고 핵선제공격명단에 포함시켰으며 9.11사건이 터지자 마치도 때를 기다렸다는듯이 《반테로전》의 미명하에 저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전복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반테로전》의 구실로 아프가니스탄을 타고앉았고 뒤이어 이라크를 점령하였다. 돌이켜보면 미국은 자기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작은 나라를 해치는것쯤은 식은죽먹기로 알고 군사적으로 저들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면 마구 덤벼들어 하루아침에 한 나라의 제도와 정권도 마음먹은대로 전복시키군 하였다.

그러나 조선에서만은 그런것이 절대로 통할수 없었다.

조선은 미국의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서고 미국이 총을 휘두르면 대포를 내대였다.

조선은 2002년 6월 외무성대변인성명을 비롯한 여러 기회에

조선반도핵문제를 평화적으로 가장 공정하게 해결할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조미가 평등한 자세에서 직접회담을 하는것외에 다른 길이란 없다는것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조미쌍무회담에 나설것을 인내성있게 기다렸다.

그러나 2002년 10월초 미국무성차관보 켈리가 미국대통령특사의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 후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더욱 절정에 달하였다. 켈리는 평양방문시 핵 및 미싸일문제, 상용무력축감문제, 인권문제에 대해 거론하였는데 여기서 조선이 극비밀리에 고농축우라니움계획을 추진하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안보상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선이 핵계획을 포기하지 않으면 앞으로 조미대화도 없고 관계개선도 없을뿐아니라 조일관계, 북남관계도 차단시킬것이라고 하면서 극히 위협적이며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미행정부의 견해를 대변한 켈리의 태도에 분격한 조선측은 그에게 미국의 가증되는 압살위협에 대처하여 공화국은 나라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하여 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한것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정식 통지하였다.

켈리를 통해 조선의 립장표명을 전달받은 부쉬행정부는 조선이 《핵무기개발계획》을 시인했다고 하면서 유럽과 아시아나라들에 특사와 대표단들을 련이어 파견하여 조선의 핵문제를 유엔안보리사회에 넘겨야 한다고 해당 나라 정부들을 설복하는 한편 조미기본합의문의 4개 사항중 유일하게 리행되여오던 중유제공마저 완전히 중단하였다.

그후 미국은 2002년 11월 29일과 2003년 1월 6일 두차례에 걸쳐 국제원자력기구를 내세워 조선에 핵계획을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포기할것을 요구하는 기구결의들을 채택하게 하였으며 만일 조선이 몇주일내로 그 결의들을 리행하지 않으면

유엔안보리사회에 넘겨 제재를 가할것이라는 최후통첩까지 보내게 하였다.

조선은 미국이 《선핵포기》의 명분으로 강제핵사찰을 요구하는것은 곧 이라크식사찰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미국이 이라크의《대량살륙무기개발》이라는 허위정보를 조작하고 유엔안보리사회를 리용하여 이 나라를 체계적으로 무장해제시켜왔다는것은 비밀이 아니였다. 근 10년간에 걸치는 유엔무기사찰단의 사찰과정에 이라크무기의 90%이상이 해체되고 허약해질대로 허약해진 이 나라가 전쟁수행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자 미국은 유엔안보리사회를 제쳐놓고 이라크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던것이다.

미국이 대조선정책실현에서 선핵포기, 후대화를 주장하며 2002년 12월부터 중유납입을 중단한데 대처하여 공화국정부는 조미기본합의문에 따라 년간 50만t의 중유제공을 전제로 하여 취하였던 핵동결을 해제하고 전력생산에 필요한 핵시설들의 가동과 건설을 즉시 재개하기로 하였다. 이어 조선은 2003년 1월 10일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완전탈퇴를 선언하였다.

원래 공화국은 이미 1993년 3월에 강제적인 핵사찰을 요구하는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를 선언하였었다. 그런데 그후 클린톤미행정부와의 회담이 진행되고 그 결과로 조미기본합의문과 미국대통령의 담보서한이 발표되자 그 효력발생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놓았었다. 그러던것을 부쉬행정부가 핵선제공격을 운운하면서 조미기본합의문의 리행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국제원자력기구를 내세워 한사코 핵사찰과 핵포기를 강요하는 조건에서 더이상 조미기본합의문과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는것을 확인하고 림시 정지시켰던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탈퇴를 가동시켰던것이다.

급해맞은 미국은 조선에 《레드라인》(금지선)이라는 금을 그어놓고 조선이 봉인된 핵페연료봉을 재처리하는 경우 군사적 공격도 불사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내였다. 한편 부쉬행정부는 북핵문제는 북미간의 문제가 아니라느니 북조선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 탈퇴조치가 국제공동체성원국들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느니 하면서 조선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문제를 유엔안보리사회에 상정시키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의가 소집되기 3일전인 2003년 4월 6일 공화국은 외무성대변인성명을 통하여 조선반도핵문제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취급하는것은 조선에 대한 로골적인 압력이며 그 자체가 곧 전쟁의 전주곡이라고 규탄하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끝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에 도용된다면 나라의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전쟁억제력을 갖추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라고 엄숙히 천명하였다.

하여 4월 9일에 열린 조선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문제를 론의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비공식회의에서는 로씨야와 중국을 비롯한 대다수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성원국들의 반대로 조선을 반대하는 그 어떤 결정도 문건도 채택하지 못하고말았다. 회의에서 로씨야와 중국은 만약 조선에 대한 제재결의안이나 의장성명이 발표되면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영원히 해결할수 없게 된다, 제일 좋은 방도는 조미직접대화를 하는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립장을 반대하였다.

유엔에서 대조선제재결의를 채택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미국은 이번에는 개별적나라들을 찾아다니며 대량살륙무기전파방지안보체제를 내올것을 제안하였으며 선제차단전략을

추진하여 조선의 해상을 봉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공화국은 강하게 반발해나섰다. 조선은 2003년 6월 8일 외무성대변인성명을 통하여 미국이 국제적압박과 봉쇄작전으로 조선을 붕괴시킬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라는것, 공화국은 일단 자주권이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적인 물리적보복조치로 대응할것이라는것을 단호히 언명하였다.

한편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후 조약밖에서 핵무기를 만드는 실천단계에 들어간 공화국은 2003년 7월 뉴욕접촉경로를 통하여 미국측에 자기들이 폐연료봉재처리를 성과적으로 끝냈다는것과 미국이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포기하려 하지 않고 핵위협을 그만두지 않는 조건에서 부득불 핵억제력을 갖추기 위해 생산된 플루토니움을 모두 무기화하기로 하였다는것, 앞으로 때가 오면 새로 가동하고있는 5MW시험원자력발전소에서 폐연료봉들을 꺼내여 재처리를 계속하려 한다는것 등에 대하여 통보해주었다.

결국 부쉬행정부는 대화를 통하여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할것을 결정하고 이를 위해 조선에 다자회담과 그 테두리안에서 조미쌍무회담을 진행할것을 제기하였다.

미국은 처음에 3자회담(조선, 미국, 중국)을 진행한 다음 5자회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국, 중국, 일본, 남조선)을 하자고 하였다.

이에 조선은 로씨야를 참가시켜 6자회담을 진행할것을 제기하였다.

원래 조선은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미국에 의하여 산생된 문제인것만큼 조미직접대화를 통해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미국이 한사코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국제화하여 놓은 조건에서 모든 유관국가들을 다 참가시켜 조선반도의 비핵화실현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조성할것을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을 위한 첫 6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국, 중국, 로씨야, 일본, 남조선) 회담이 2003년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리게 되였다.

6자회담의 기본취지는 조선문제에 책임이 있는 6개국이 모여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실현하는것이였다.

그러나 6자회담은 처음부터 미국의 부당한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실현과 평화문제는 뒤전으로 물러나고 조선의 핵포기만을 강요하는 회담으로 화하고말았다.

회담은 1차때부터 공화국의 정당한 요구조건과 미국의 부당하고 오만무례한 조건의 대결로 하여 매우 치렬하게 진행되였다. 1차회담에서 미국은 끈질기게 조선에 핵포기를 강요하였으며 조선은 미국의 오만한 요구에 강경하게 대답하여나섰다.

결국 미국의 협박식외교와 조선의 자주외교의 대립과 충돌로 하여 제1차 6자회담은 아무런 결실도 없이 끝나고말았다.

미국은 2004년에 들어서면서 이해를 대조선압살정책을 실현하는 해로 정하고《반테로전》을 조선에로 확대하려고 시도하였다.

미국의 무모한 책동에 분격한 공화국정부는 그해 1월초에 미국핵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녕변핵시설을 참관시켰다. 자국에 돌아간 미국핵전문가들은 미국회상원이 주최한 녕변핵시설참관과 관련한 공개청문회에서 조선이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능력과 기술이 충분할뿐아니라 실제로 핵억제력을 가지고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면서 부쉬행정부의 현 대조선정책이 북조선으로 하여금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게 만들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미국내에서 북조선의 강화되고있는 핵억제력에 대처하여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고있다는 비난이 고조되자 부쉬행정부는 할수 없이 강경자세를 철회하고 6자회담의 조기개최를 조선에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1차회담이 진행된지 근 6개월이 되여오던 2004년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베이징에서는 조미사이의 핵문제해결을 위한 제2차 6자회담이 진행되게 되였다.

이때 조선측은 미국의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포기대 조선의 핵무기계획포기의사를 공약하고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서 공화국이 핵무기계획과 그 관련시설들을 동결하는 대신 유관측들이 동시행동방법으로 대응한 보상을 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미국은 시종 조선에 선핵포기를 강요하면서 검증가능하며 되돌려세울수 없는 완전한 핵계획페기(CVID)만을 주장하였다. 미국측 수석대표는 회담탁에 마주앉아서도 저들은 이번에 북조선과 협상하려는것이 아니라느니, 행정부로부터 그 어떤 협상권한도 부여받지 못했으므로 북조선의 제안에 대답할수 없다느니 하는식으로 오만하게 행동하면서 회담에 불성실하게 참가하였다.

결국 2차 6자회담도 아무런 결실이 없이 끝나고말았다.

그로부터 4달이 지나 베이징에서는 2004년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3차 6자회담이, 2005년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제4차 1단계 6자회담이,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제4차 2단계 6자회담이 진행되였다.

4차 2단계 회담에서 참가국들은 조선반도비핵화에 관한 9.19공동성명을 합의발표하였다.

공동성명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1. 6자는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조선반도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실현하는것이 6자회담의 목표라는것을 일치하게 재확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들을 포기하며 멀지 않은 시기에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을 리행할것을 공약하였다. 미국은 조선반도에 자기의 핵무기가 없으며 핵 또는 상용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하거나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확언하였다. 남조선은 자기의 령토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면서 1992년 조선반도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따라 핵무기를 접수하거나 배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언하였다. 1992년 조선반도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준수되고 리행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에네르기의 평화적리용권리를 가지고있다는것을 천명하였다. 기타 참가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고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토의하기로 합의하였다.

2. 6자는 호상관계에서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들 그리고 공인된 국제관계규범들을 준수하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은 서로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쌍무적정책들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한 과거와 현안 우려사항들을 해결하는 기초우에서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3. 6자는 에네르기, 무역, 투자분야에서 쌍무적 및 다무적 방법으로 경제적협조를 추동할것을 공약하였다.

중국, 일본, 남조선, 로씨야,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에네르기자원을 제공할 용의를 천명하였다. 남조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200만kW발전능력의 전력제공과 관련한 2005년 7월 12일 제안을 재확언하였다.

4.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룩

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것을 공약하였다.…

9.19공동성명에는 조미쌍방과 유관측들의 의무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명백히 밝혀져있었다. 미국측은 공동성명초안에 검증가능하며 되돌려세울수 없는 완전한 선핵포기요구가 반영되지 않게 되자 마지막까지 반대하다가 다른 참가국들의 설득에 못이겨 하는수없이 그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9.19공동성명에 수표하고 돌아앉기 바쁘게 검증가능하며 되돌려세울수 없는 완전한 선핵포기요구를 다시 들고나왔으며 인권과 미싸일전파를 전면에 걸고 조선에 대한 제재와 봉쇄의 도수를 계단식으로 높이였다. 이렇게 되여 9.19공동성명에 대한 6자의 기대는 점차 허물어져가게 되였다.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가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강하게 반발하여나선 공화국은 2005년 2월 핵무기보유를 당당히 선언하고 2006년 7월에는 장거리미싸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년 10월 9일에는 1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시험에 앞서 조선은 외무성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의 날로 가중되는 핵전쟁위협과 제재압력책동으로 국가의 최고리익과 안전이 엄중히 침해당하는 준엄한 정세가 조성된것과 관련하여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핵시험을 하게 된다는것을 세계에 공포하였다.

조선이 100% 자체의 힘과 지혜로 그것도 첫번에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한 사실은 짐작으로만 공화국의 핵무기보유를 의심하고있던 미국을 비롯한 서방나라들을 놀래우고도 남음이 있었다.

미싸일발사에 이어 단행한 지하핵시험은 세계의 면전에서 미국의 강경책동에 조선이 어떻게 초강경대응책으로 맞서는가를 보여준 위력한 실력행사였다. 이렇게 되자 미국정부는 2008년 미국방성년례보고서에서 로씨야, 중국, 인디아, 파키스탄에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핵무기보유국으로 공식인정하였다.

2009년 4월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공지구위성《광명성2》호를 성과적으로 발사하였다.

그러자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공화국의 평화적인 위성발사에 대해서 문제시하고 그것을 구실로 유엔제재결의안을 발표하였다. 작은 나라는 위성발사도 할수 없다는 강도적인 론리가 적용된것이였다. 그러나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귀중히 여기는 공화국은 세계에 자기의 위용을 다시금 과시하였다.

유엔제재결의안의 채택과 그 실시를 위한 미국의 움직임이 날로 강화되여가자 조선은 2009년 5월 2차 지하핵시험을 진행하였다. 이것은 미국에 있어서 또 한차례의 커다란 타격이 아닐수 없었다.

미국은 또다시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력소동을 발광적으로 감행하였으며 이러한 책동은 그러지 않아도 자기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있던 6자회담의 영원한 결렬을 초래케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2009년 4월 14일 성명에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공화국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비난규탄하는 강도적인 의장성명을 발표한데 대하여 단호히 규탄배격하면서《6자회담은 더는 필요없게 되였다.》,《6자회담은 그 존재의의를 돌이킬수 없이 상실하였다. 6자회담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우리의 무장해제와 제도전복만을 노리는 마당으로 화한 이상 이런 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것이며 6자회담의 그 어떤 합의에도 더이상 구속되지 않을것이다.》고 자주적립장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하였다.

미국은 반공화국적대시정책에 계속 매달리면서 추종세력들을 사촉하여 조선에 대한 제재와 압력을 가하는 한편 6자회담에로의 복귀를 강박해나섰으나 조선은 6자회담은 영원히 없다며 끄떡하지 않았다.

7월에 아프리카에서 열린 제15차 비동맹국수뇌자회의에 참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연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와 평등을 생명보다 귀중히 여기는 존엄높은 뽈럭불가담나라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자주권존중과 주권평등의 원칙이 없는 대화와 협상이란 있을수 없다. 미국과 그에 추종한 다수의 참가국들이 이 원칙을 줴버림으로써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은 영원히 종말을 고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런가 하면 7월 23일 타이의 푸케트에서 진행된 제16차 아세안지역연단 상회의에서 연설한 공화국대표단 단장은 《유엔헌장 제1장 제2조에는 〈본기구는 그의 모든 성원국들의 주권평등의 원칙에 기초하고있다〉고 명시되여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국제법을 떠나 유엔헌장자체를 유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주권존중과 평등의 원칙에 기초하고있던 6자회담은 다름아닌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의하여 종말을 고하였다.》고 선언하였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파탄은 전적으로 미국과 그에 추종한 유엔의 그릇된 처사에 있었다.

공화국은 외무성성명에서 6자회담이 왜 종말을 고하게 되였는가 하는데 대하여 이렇게 밝혔다.

《…6자회담은 그 구성의 복잡성으로 하여 자주권존중과 평등의 원칙이 없이는 성립될수 없는 회담이였다. 다른 참가국들은 모두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들이거나 미국의 군사동맹국들이고 오직 우리 나라만이 유일한 뽈럭불가담나라로 회담에 림하였다. 참가구성의 극심한 불균형성으로 하여 그 어느 회담에서보다도 생명처럼 요구되는것이 바로 참가국들사이의 자주권존중과 평등의 원칙이였다.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에서 합의채택된 공동성명의 첫머리에 〈호상존중과 평등의 정신〉이 명시된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런데 지난 4월 5일에 있은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를 계기로 6자회담의 생명이였던 이 원칙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의 위성발사는 남들이 하는것과 꼭같은 국제법적절차를 다 밟아 합법적으로 진행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름아닌 6자회담 참가국들이 앞장에 서서 우리의 위성발사에 대하여서만은 차별적으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끌고가 규탄하고 반공화국제재를 실동에 옮기는 적대행위를 감행하였다.

우리가 이미 성명들에서 밝힌바와 같이 이로써 6자회담은 우리의 평화적인 과학기술개발까지 가로막아 정상적인 경제발전자체를 억제하는 마당으로 전락되였다. 결국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여 나중에는 저들이 던져주는 빵부스레기로 근근히 연명해가게 만들자는것이 바로 6자회담을 통해 노리는 다른 참가국들의 속심이라는것이 명백해졌다. 이처럼 6자회담은 적대세력의 변함없는 반공화국압살책동에 의하여 개최초기의 목표와 성격으로부터 돌이킬수 없이 변질퇴색되고말았다.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우리의 위성발사권리까지 백주에 강탈하려드는 무도한 짓만 벌리지 않았어도 사태는 오늘과 같은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수도 있었다.

지금 6자회담재개를 주장하는 참가국들은 애초에 회담을 파괴하고 대결을 발단시킨 저들의 이 처사에 대하여서는 고집스럽게 침묵을 지키고있다. 6자회담밖의 일부 나라들이 문제의 이러한 배경과 본질을 모르고 다른 대안이 없는것처럼 생각하면서 6자회담재개주장에 무턱대고 동조하는것은 사태해결에 백해무익하다.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를 남들이 6자회담에

나오라고 하면 나가고 나오지 말라고 하면 안나가는 그런 나라로 보려는것부터가 어리석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우리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도와 방식은 당사자인 우리가 제일 잘 알게 되여있다. 현사태를 해결할수 있는 대화방식은 따로 있다.…》

결국 미국과 그에 추종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참가국들의 불공평한 책동으로 하여 6자회담은 완전히 결렬되게 되였다.

6자회담의 결과는 미국이야말로 평화의 교살자라는것을 다시한번 증명해주었으며 동시에 미국의 강권과 전쟁책동이 날로 우심해지고있는 오늘날 자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쟁억제력을 보다 강화해나가야 한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진행된 조미회담과 6자회담을 관통해보면 회담의 진전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는 조선의 평화적인 핵활동이 아니라 미국의 변함없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이라고 해야 옳을것이다. 사실 미국으로서는 조미직접회담이나 6자회담은 다 달갑지 않은것이였다. 그것은 회담탁에 마주앉으면 싫든좋든 핵포기문제와 함께 조선과의 관계정상화, 평화협정체결, 경수로제공 등을 론의하는 주고받기식 협상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고 그렇게 되면 대국인 미국이 작은 나라인 조선에 대폭 양보하는것으로 되므로 조선을 압살하려는 초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게 되기때문이였다.

공화국의 최고목적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면 미국의 최종목적은 조선의 사회주의에 대한 붕괴였다. 여기서 핵문제는 하나의 구실, 방패에 불과하였다.

조선이 평화적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였다면 미국은 전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조선은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조미사이에

신뢰가 조성되여 미국의 위협을 더이상 느끼지 않게 되면 지금까지 만든 모든 핵무기를 철페하겠다는것을 여러차례 천명하였다.

문제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시급히 철회하는것이였다. 이에 대해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는 2005년 2월 22일부 사설에서 《평양정부에 〈적대의도가 없다〉는 세마디 말만 해주면 핵문제해결에 돌파구가 열릴지도 모르겠는데 부쉬와 라이스는 그러한 표현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폭로하여 바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변경여부가 조선반도의 핵문제해결에서 기본이라는것을 강조하였다.

미국이 조선을 계속 적대시하면서 압박도수를 더욱더 높일수록 조선이 자기의 생존권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계속 초강경조치를 취하게 될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그렇게 되면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언제가도 해결될수 없는것이다.

이것은 지난 6자회담과정의 심각한 총화이며 결과였다.

1905년과 2005년

2005년 2월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조선의 핵무기보유를 선언하는 폭탄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이미 부쉬행정부의 증대되는 대조선압살정책에 맞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단호히 탈퇴하였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

그후 문필가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외무성성명을 통하여 조선이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는것을 선포하자 온 세계가 깜짝 놀라 벅적 끓고있는데 미제와 일본반동들은 전전궁궁하면서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조선이 핵무기를 가지고있는데

대하여 지지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때 한 문필가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김정일**령도자께 지금 인민들속에서 이번에 내보낸 외무성성명에 대한 반영이 대단하다고, 막 끓고있다고 말씀드렸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그의 말을 긍정하시면서 말씀하시였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원쑤들에 대하여서는 절대로 굽어들거나 추호도 양보하지 말고 강경하게 맞서나가야 합니다. 우리 나라가 1905년에는 망국조약을 강요당했지만 100년이 지난 2005년에는 핵무기를 보유한 최강국의 존엄을 떨치고있는데 대하여 응당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1905년 자기 나라를 지킬 변변한 무력이 없어 국권을 강탈당해야 했던 때로부터 꼭 한세기가 되는 2005년에 조선은 자기 식의 핵기술을 소유하고 핵보유국으로 당당히 솟아오르게 되였다.

이 지구상에서 핵무기를 처음으로 만들어낸것은 미국이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바야흐로 막을 내리우던 시기였다.

패망이 명백해진 도이췰란드땅에서 특수부대들이 암약하였다.

이전 쏘련과 미국이 도이췰란드의 핵기술을 절취하기 위해 파견한 비밀요원들이였다. 그때로부터 얼마후 제2차 세계대전종결 및 전후처리와 관련한 포츠담회담장에 미국대통령 트루맨이 의기양양하여 나타났다.

세계는 핵무기를 가진 미국의 발밑에 있다는 자신심의 표시였다.

쓰딸린은 즉시 꾸르챠또브원사에게 핵시험에 더욱 박차를 가할것을 촉구했다. 이전 쏘련은 국가의 총력을 여기에 기울였다. 천문학적수자에 달하는 막대한 인적, 물적, 지적자원이 소모되였다. 4년후 이전 쏘련도 핵시험에서 성공하여 원자탄을 가지게 되였다.

핵을 가진 두 렬강은 각기 자기 중심의 세력권을 형성하고 동서방 랭전의 시대를 열어놓았다.

여러 나라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한 길에 뛰여들었다.

영국, 프랑스, 중국이 나섰다.

쏘미 두 핵보유국은 치렬한 대치상태속에서도 다른 나라들이 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서로 손을 잡았다.

1954년 가을 마오쩌둥이 베이징에 온 흐루쑈브에게 말했다.

《우리는 원자력, 핵무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측면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당신들과 의논하려 합니다.》

《우리의 대가정에는 핵우산 하나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모두가 그걸 가지고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

흐루쑈브의 대답이였다.

1963년 여름 이전 쏘련, 미, 영은 중국이 원자탄을 제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모여 대기, 우주공간 및 지하에서 핵시험금지에 관한 조약이라는것을 만들어냈다.

그후 1968년에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이 나왔다.

이 조약의 기본내용은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를 만든 미국, 이전 쏘련, 영국, 프랑스, 중국을 핵무기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이외 나라들이 핵무기를 가지지 못하게 하자는것이였다. 이때부터 핵렬강들이 휘두르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몽둥이가 핵을 가지려는 나라들을 내리눌렀다.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와 리비아, 남아메리카의 브라질, 중근동의 이라크, 발칸반도의 이전 유고슬라비아, 경제대국이라고 떠드는 일본이 무진 애를 썼으나 종내 핵무기보유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바란다고 해서, 돈이 있고 기술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가질수 있는 핵무기가 아니였다. 핵문제는 가장 첨예한 정치적문제,

해당 나라 지도부의 신념과 배짱, 담력과 의지에 관한 문제였다. 핵무기를 만들자면 그야말로 험산준령을 넘어야 했다.

조선이 바로 그 험한 산을 넘었다.

세계제패를 꿈꾸는 미국을 비롯한 핵렬강들과 그 추종세력들의 모두매가 무서워 다른 나라들은 포기하고만 큰 험산준령을 조선은 사생결단의 의지로 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보유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자위적인 조치였다.

미국은 저들의 세계제패야망에서 제일 걸림돌로 되고있던 공화국을 제압하기 위하여 1990년대말부터 조선의 핵문제를 세계적으로 여론화시키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조선에 대한 국제적인 경제제재를 감행하는 한편 전쟁책동에 매달렸다.

그러나 조선은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단호히 맞섰다.

공화국의 단호한 립장으로 1994년 클린톤대통령이 흰기를 들고 나앉았고 미국의 강경보수세력도 한풀 기가 죽었었다.

그러나 부쉬행정부가 집권하면서부터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다시 첨예화되기 시작하였다.

2002년 켈리가 부쉬특사로 공화국을 방문한 이후 미국은 조선의 초강경의지를 꺾어보기 위하여 1995년부터 해마다 제공하던 중유를 차단했고 경수로발전소건설도 중단시켰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처하여 조선은 녕변핵발전소에 설치했던 감시카메라를 뗐으며 그다음에는 국제원자력기구사찰원들을 추방했고 나중에는 핵발전소를 재가동시켰다.

이렇게 되자 미국은 조선의 핵문제를 국제원자력기구 관리리사회에 끌고가 공화국을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하게 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리성을 잃고 길길이 날뛰는 부쉬일당의 뒤통수를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탈퇴라는 강력한 철퇴로

다시한번 내리치도록 하시였다.

그때가 2003년 1월 10일이였다.

그후 3월 20일 이라크전쟁을 일으킨 미행정부는 다음 목표는 조선이라는것을 암시하면서 위협해나섰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라크전쟁을 계기로 양보는 곧 죽음이며 오직 그 어떤 첨단무기에 의한 공격도 압도적으로 격퇴할수 있는 막강한 전쟁억제력을 갖추어야만 전쟁을 막고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할수 있다는것을 철의 진리로 보여주고있다고 하시면서 강력한 전쟁억제력인 핵억제력을 갖추도록 하시였다.

당시 부쉬일당은 조선이 가지고있던 8 000여개 핵페연료봉재처리를 《마지노선》이라고 정해놓고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조선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핵페연료봉재처리를 시작하고 2003년 3월말에는 그 소식을 뉴욕접촉선을 통하여 미국에 통보하였다.

부쉬일당은 어떻게 하나 조선의 페연료봉재처리를 막아볼 심산으로 베이징3자회담장에 나와 선핵포기를 주장하면서 위협공갈했다.

이에 맞서 조선은 미국이 제멋대로 그어놓은 이른바《마지노선》을 강행돌파하였다. 이렇게 되자 부쉬는 2003년 7월 하순 이딸리아수상과 함께 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전례없이 **김정일**령도자를 《미스터 **김정일**》이라고 호칭하고 그후 국무성에 6자회담에 나가라는 지시를 떨구었다. 하지만 미국은 6자회담에 나와서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려세울수 없는 핵페기를 주장했다.

미국의 거만하고 끈질긴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이 날로 첨예화되고있던 2003년 9월 3일 조선은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회의에서 《조미사이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이 취한 대외적조치를 승인함에 대하여》를 결정으로 채택하였다.

6자회담에서 미국이 선핵포기만을 주장한것으로 하여 이러한 회담에 더는 필요도 흥미도 기대도 가지지 않는다, 미국의 핵전쟁공격을 막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방위수단으로서 핵억제력을 유지하고 계속 강화해나가는 길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였다는것이 이 결정의 기본내용이였다. 결국 공화국의 핵억제력강화는 법적으로 고착되게 되였으며 이것은 전쟁열에 들떠있던 부쉬일당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조선은 이처럼 2003년에 정정당당한 명분과 론거를 가지고 핵무기보유에로 나갔다. 그리고 온 세상에 조선의 핵무기보유가 미국의 대조선압살책동에 의한 어쩔수 없는 선택으로 되였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알리였다.

2004년 조선은 미국핵전문가대표단 성원들로 하여금 무기급플루토니움을 제눈으로 직접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나라 국제문제전문가들은 조선은 미국의 선제공격전략에 대처하여 처음에는 전쟁억제력, 다음에는 핵억제력을 갖추겠다는 립장을 표명하면서 계단식으로 대미초강경조치들을 취해왔다, 원래 대국들에게는 유리한 환경이, 약소국가들에게는 불리한 조건이 형성되여있는 오늘의 국제관계속에서 비핵국가들이 핵무기를 가지려 한다면 국제공동체의 눈밖에 나게 되여있고 모두매를 맞게 되여있다, 하지만 북조선은 핵문제와 관련하여 국제공동체의 눈밖에도 나지 않고 모두매도 맞지 않았다, 오히려 많은 나라들의 리해와 지지를 받았다, 바로 여기에 조선외교의 능란함과 저력이 있다고 평했다.

반만년의 유구한 조선력사에서 2005년은 자기 조국을

초대국으로 떠올린 력사적인 대경사의 해였다.

조선의 핵무기보유선언이 발표되자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긍정적인 반영들이 쏟아져나왔다.

미국《노틸리스》전략연구소의 한 조선문제전문가는 자기의 론평에서 《조선이 잃을것, 털어버리게 되는것은 항시적이던 미국의 침략위협과 미국의 핵선제공격, 미국이 동맹국들과 세계를 동원하던 반조선정책》이며 《조선이 얻게 될것은 핵보유국이라는 강력한 지위, 상용무기를 줄이고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는것과 조선이 하나가 되는 원동력》이라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한 신문에 실린 《중국전문가의 눈으로 본 조선의 핵무기시험》이라는 기사에는《조선은 핵시험을 통해 잃는것보다 얻는것이 더 많다. 득실관계를 따져놓고보면 조선에 득이 실보다 많다. 조선은 재래식무기에 대한 투자를 대폭 줄여 절약한 다음 더 많은 자원을 경제발전에 돌릴것이다.》라고 씌여져있었다.

서방의 한 출판물은 《미국의 힘의 론리가 북조선에는 통하지 않는다. 북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실패했다. 미국이 조선반도 남부를 타고앉은지 60년, 전쟁이 끝난지 50여년, 랭전이 종식된지 16년, 그러나 북조선은 여전히 사회주의정권을 유지하고있다. 북조선의 **김정일**령도자는 지난 10년간 미행정부와의 결투에서 앞장서나가고 있다. 그분은 클린톤정부와의 외교를 통하여 1994년에는 핵계획동결협정을 체결했고 부쉬시기에는 플루토니움으로부터 핵무기를 만들고 우라니움농축을 추진하여왔다. 이제 미국은 평양으로 핵장사를 가야 할 형편이다.》라고 썼다.

조선의 핵보유는 핵군비경쟁을 위한것이 아니다.

공화국의 핵무기보유사명은 어디까지나 전쟁억제에 있다.

조선은 자기 나라에 대한 군사적공격과 그 위협을 억제할 수 있을만 한 핵억제력만 있으면 된다고 공식발표하였다. 망국의 력사를 새긴 1905년으로부터 꼭 한세기가 되는 2005년에 핵무기보유를 선언함으로써 조선은 망국의 력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을것이라는것을 세계에 확고히 인식시켰다.

핵무기보유의 선언, 이것은 선군의 위력으로 수년간에 걸치는 조미핵대결전에서 련전련승만을 기록한 조선이 미국에 대고 부른 통장훈이였다고 할수 있었다.

6) 통일의 새 시대가 펼쳐지다

통일의 리정표 - 6.15공동선언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는 조선의 통일운동에서도 극적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근 70년동안 북과 남은 정치, 군사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서로 대치상태에 놓여있었다. 특히 남조선괴뢰들은 자기의 손우의 동맹국인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에 보조를 맞추면서 동족인 공화국을 주적으로 간주하고 북에 대해서는 언제나 거부감을 가지고있었다. 하기에 남조선괴뢰들은 북이 제안하는 합리적인 통일방안들은 물론 북남협력과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일방적으로 일축해버리는 한편 날이 갈수록 반공화국전쟁책동에만 열을 올리였다.

이러한 남조선괴뢰들의 고질적인 견해를 깨뜨리고 북과 남이 화해와 협력, 민족공조의 길로 나갈수 있도록 추동한것은 전적으로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와 잇닿은 능숙한 외교지략이였다.

필승의 보검인 선군정치로 하여 미국에 아부굴종하면서 동족인 공화국을 반목질시하던 남조선집권층도 련북의 길로 나서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7천만 조선민족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2000년 6월 13일 남조선의 김대중대통령이 **김정일**령도자를 만나뵙기 위하여 평양방문의 길에 올랐다.

이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직접 그를 마중하기 위하여 평양비행장에 나가시였다.

비행기안에서 수행원으로부터 **김정일**령도자께서 마중나오시였다는것을 알게 된 김대중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 큰 충격을 받았다. 사실 그는 이날 아침 방북의 중압감때문에 아침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청와대를 출발한 상태였다. 비행기안에서도 줄곧 평양에 가면 누가 비행장에 마중나올지, 회담이 제대로 될지 걱정만 하고있던터였다.

만세의 환호가 천지를 진감하고 감격과 환희의 파도가 설레이는속에 **김정일**령도자께서 김대중대통령을 뜨겁게 맞이하시였다. 나라가 갈라져 55년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북남수뇌분들의 상봉이고 포옹이였다. 이것으로써 조선의 통일은 이루어진듯 싶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김대중의 두손을 잡으시고 이번에 김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데 대해 온 겨레모두가 진심으로 기뻐하고있다고 하시며 어려운 길을 걸어온 그를 섭섭치 않게 해드리겠다고 사려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김대중과 함께 조선인민군 륙해공군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으며 승용차를 타시고 수십만 평양시민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시며 숙소인 백화원영빈관까지 동행하시였다.

이날 남조선과 세계의 많은 통신, 방송, 출판물들은 북남수뇌분들의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앞을 다투어 특별보도하였다.

평양의 상황이 현지시간으로 생방되던 서울의 어느 한 호텔 기자쎈터에만도 이른새벽부터 무려 284개의 언론기관(그중 외신기관 173개)들에서 온 1 200여명의 기자들이 대형전광판을 통해 평양상봉을 지켜보았으며 흥분과 격정속에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세계의 주요 신문, 방송, 통신들도 **김정일**령도자께서 친히 비행장에 나오시여 김대중을 마중하시고 함께 차를 타고 숙소까지 동행하신데 대하여 파격적인 례우, 이번 상봉과 회담의 긍정적인 결실을 예고해주는 토핑뉴스로 보도하였다. 미국의 CNN TV방송, 일본의 NHK방송 등 많은 방송들은 정기방송까지 중단하면서 앞을 다투어 평양상봉소식을 보도하였다. 당시 유엔사무총장이였던 코피 아난은 성명을 발표하여 북남수뇌회담을 개최한 **김정일**령도자의 구상과 지혜에 경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이번 회담이 북남통일은 물론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의 항구적평화와 안정을 향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속에 6월 14일 **김정일**령도자와 김대중대통령사이에 단독회담이 진행되였다.

기본의제토의에 앞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북남수뇌상봉이 진행되고있는 이 순간에 남조선에서 불쾌한 사건이 일어난데 대하여 통보하시면서 남조선에서 력사적상봉을 축하하여 공화국기발을 대학들에 게양한 학생들을 당국이 사법처리하겠다고 하는데 한쪽으로 상봉하면서 다른쪽에서 탄압하는것은 우리를 불쾌하게 한다, 이런 형편에서 이 회담을 계속해야 하겠는가고 준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사실 전날 남조선의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10여개 대학들에서는 공화국기와 조선지도를 내걸고 평양상봉을 열렬히 지지환영하였다.

김정일령도자의 뜻밖의 말씀에 순간 당황해난 김대중은 다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것을 재삼 다짐하였다.

그의 말을 들으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2000년대를 맞이하는 첫해에 우리가 처음으로 상봉하는것만큼 7천만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희망과 미래에 대한 락관을 주는 선언적인 문건을 하나 내놓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나라의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그 주인인 조선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시면서 여기에 동의하는가고 물으시였다. 김대중은 이에 전적인 동의를 표시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어 북남수뇌들이 55년만에 처음으로 만났는데 온 겨레앞에 뭔가 큰 선물을 안겨주어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시면서 민족공동의 통일방안을 합의해놓자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는 오래전부터 서로 다른 리념과 체제가 존재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두 제도의 공존에 기초하여 련방제방식으로 통일하자는것이라는것, 당장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받아들일수 없다면 통일방도에 대한 합의를 쉽게 하기 위하여 공화국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남북련합제안에 공통성이 있으므로 두 제안을 조절하여 공동의 통일방도를 만들어 통일을 지향시켜나가자고 말씀하시였다. 이 사리정연하고도 건설적인 제안에 김대중은 이번에도 전적인 동의를 표시하였다. 회담에서는 이밖에도 북과 남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방문단교환문제와 남조선에 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의 북으로의 송환문제, 북남협력교류문제와 당국간 대화문제를 비롯한 통일실현에서 나서는 중요문제들이 상론되고 합의되였다.

단독회담은 무려 4시간나마 진행되였다. 회담결과 5개항목으로 된 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에 친히 수표하시였다. 이어 두 수뇌분은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된것을 축하하여 축배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였다. 북남공동선언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되였다.

6.15북남공동선언의 채택발표는 7천만 조선민족에게 커다란 기쁨과 환희를 가져다주었다. 각계각층 사람들과 정당, 단체들은 북과 남의 두 수뇌분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통일의 새로운 리정표가 마련된데 대하여 열렬히 지지환영하였다.

남조선의 언론들도 북남공동선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환영하면서 《통일문제의 자주적해결, 남북통일방안의 공통점 모색, 〈리산가족〉상봉과 경제, 사회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 및 당국간 대화 계속 등 5개 항은 〈우리도 할수 있다. 통일을 이룰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다. 그것도 비공개장소에서의 은밀한 합의가 아니라 생방송으로 전세계, 온 인류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룩한 합의이기때문에 그 약속이 더욱 값지다. 이제 남북관계는 한개의 큰 산을 넘었다. 단 한번의 만남으로 이런 정도의 합의를 도출해낸것은 수뇌회담의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일이다.》(남조선신문 《동아일보》 2000. 6.15), 《6.15남북공동선언의 채택으로 남북은 반목과 대립, 대결로 지나온 불행과 과거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화해와 협력에로 나아가 통일로 이어지는 디딤돌을 마련했다.》(《경향신문》 2000. 6. 16)라고 북남공동선언의 의의를 대서특필하였다.

북남공동선언의 채택을 축하하여 중국의 쟝쩌민주석과 로씨야의 뿌찐대통령은 **김정일**령도자께 전보와 친서를 보내였으며 미국의 클린톤대통령은 성명을 발표하여 북남공동선언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희망적인 출발로 될것이라고 환영하였다.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세계 180여개 나라의 국가 및 정부수반들과 정당, 사회단체 책임자들이 그를 적극 지지환영하였으며 주요 통신, 방송들이 선언의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력사적인 평양상봉의 기간은 불과 2박3일, 시간으로는 55시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55시간동안에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지난 55년동안에 이룰수 없었던 민족사적장거를 단행하시고 통일의 새로운 리정표를 7천만 조선민족에게 안겨주시였다.

2001년 1월 3일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일군들에게 평양상봉과 6.15북남공동선언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지난해에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이루어지고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됩니다.》라고 강조하시였다.

평양상봉의 마지막 날인 6월 15일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김대중일행의 출발을 앞두고 일정에도 없었던 오찬을 베푸시였다.

이날 연회장에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번에 김대통령과 남측정치인들이 평양에 와서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우리는 이번에 북과 남이 합의한 공동선언을 귀중히 여기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함으로써 온 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자신께서는 이 자리에 참석한 남측정치인들이 북남공동선언실현을 위한 사업에서 민족적책임을 다하리라고 믿는다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우리는 남측당국이 다른 나라들과 공조하는것을 무턱대고 반대하는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화해하고 단합하는 조건에서 다른 나라들과도 공조를 해야 한다, 자기 민족을 반대하는 국제공조란 있을수 없다, 우리는 자기 민족을 위한 공조를 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오찬후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김대중이 평양에 올 때처럼 함께

차를 타시고 비행장으로 나가시였다. 사실 서울을 떠나올 때까지만 하여도 남측에서는 만나는것자체가 성과라고 할 정도로 회담에서 별로 큰 소득을 기대하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던것이 6.15북남공동선언과 같이 민족앞에 떳떳이 내놓을수 있는 자랑찬 결실을 가져왔으니 평양을 떠나는 김대중의 마음도 한결 가벼웠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환송군중을 바라보며 감격해하는 김대중에게 이번에 우리가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나라의 통일을 위한 큰걸음을 뗐다고, 김대통령은 지난 시기 야당인사로부터 오늘은 대통령이 되여 남조선의 력대 어느 집권자도 엄두를 내지 못한 큰일을 성사시켰으니 감회가 클것이라고, 이런 의미에서 한 인간의 인생사의 견지에서 보더라도 김대통령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자 김대중은 자기는 정말 인생말년을 화려하게 장식한셈이라고, 이제 더는 바랄것이 없다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시하였다.

비행장에 도착하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김대중과 함께 조선인민군 륙해공군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고 그와 뜨겁게 작별포옹을 하시였다. 비행기승강대에 오른 김대중내외는 나란히 서서 **김정일**령도자께 세번씩이나 머리숙여 인사를 올리였다.

이렇게 북남수뇌분들의 력사적인 평양상봉은 조선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룩해나갈것을 협약한 6.15북남공동선언을 탄생시켰다. 이를 계기로 반세기이상 얼어붙어있던 북남관계는 눈석이마냥 녹아버리고 바야흐로 통일의 새 시대가 펼쳐지고있었다.

곡절속에서도 추진된 당국회담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다. 그것은 사상과 리념, 제도와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근 60년동안 얼어붙었던 북남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고 민족의 대단합을 실현해야 하는 하나의 력사적장정이다. 더우기 조선의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는 내외의 분렬주의세력들의 간섭과 도전을 물리치면서 한걸음한걸음 전진해야 하는 어렵고도 간고한 길이다.

6.15 공동선언의 요구에 맞게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실현하자면 뭐니뭐니해도 북과 남의 두 당국이 서로 모여앉아 회담을 하고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아야 한다.

그런데 2001년 미국대통령이 된 부쉬2세는 집권하자마자 공화국을《불량배국가》,《테로지원국》으로 몰아붙이면서 강경한 반공화국압살정책을 취하는 한편 남조선괴뢰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에 차단봉을 내리우게 하였다. 부쉬정권은 2001년 미국을 방문한 김대중에게 남조선의 해별정책도 북을 흡수통합하는 조건에서 지지할것이라며 저들의 승인을 받아서 북남관계를 처리해야 한다고 압력을 가하였다. 남조선당국의 나약한 정권의지와 대미추종정책으로 하여 북남관계는 6.15공동선언발표후 1년도 못되여 다시 랭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때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국통일이라는 대의를 앞에 놓으시고 모든것을 여기에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북남사이에 불신과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당국간 대화와 협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하여 6.15북남공동선언발표 이전의 대결관계로 되돌아갈번했던 북남관계는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해 다시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그 흐름을 따라 북남당국간에는 중단되였던 상급회담, 경제회담, 적십자회담, 군사실무회담

등이 열리고 북과 남에서 철도 및 도로련결공사가 시작되였으며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도 이루어졌다.

하지만 조선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내외분렬주의세력들의 간섭과 방해책동으로 하여 북남관계는 또다시 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2002년 6월 조선서해의 분계선상에서는 1999년에 이어 또다시 북과 남사이에 엄중한 무장충돌사건이 발생하였다.

서해무장충돌사건이 있은 전야로 말하면 남조선에서 미군장갑차에 의한 녀중학생살해사건으로 하여 반미열풍이 그 어느때보다도 고조되던 시기였다. 그리고 제16대《대통령》선거전이 한창 벌어지던 시기였다.

미국과 남조선의 우익보수세력은 세계의 이목이 남조선에 쏠려있는 기회에 공화국을《테로지원국》,《평화의 파괴자》로 인식시키고 북남관계를 파탄시킬 그 어떤 사건을 조작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여 조선서해상에서는 북남간의 무장충돌사건이 일어나게 되였다. 충돌당시 남조선괴뢰군은 인민군대의 강력한 대응타격에 의해 많은 인적, 물적손실을 보았다. 이로 하여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는 예측할수 없는 대결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였다.

남조선내부에서는 반공보수세력들이 전례없는 반공화국깜빠니아를 벌리고 괴뢰당국은 그 무슨《사죄》와《재발방지약속》이 선행되지 않는 한 북남간의 대화와 접촉을 진행할수 없다고 앙탈을 부렸다. 미국도 조선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하였던것을 뒤로 미루었다. 미국은 아마 속으로 조선반도정세가 랭각국면으로 접어든데 대하여 쾌재를 올리였을것이다.

세계여론은 조선반도정세가 또다시 일정한 랭각기를 거쳐야 할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대화공세로 반통일, 반공화국공세를 일시에 무력화시키고 대화와 통일분위기를 계속 고조시키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그리하여 북남당국간회담이 재개되는것과 함께 민간급에서도 8.15서울민족통일대회, 북남서울통일축구경기, 남조선 KBS교향악단, MBC공연단의 평양방문공연과 그의 북과 남에서의 동시방영, 남조선종교대표단의 평양방문, 북남청년학생 및 녀성토론회, 태권도시범단의 호상방문 등이 련이어 진행되게 되였다.

이에 제일 바빠난것은 미국이였다.

조선의 대화공세를 지켜보며 북에 특사를 보낼것인가 말것인가를 재고있던 미국은 급기야 핵문제를 터뜨리고 또다시 정세를 긴장국면에로 몰아갔다.

그리고 남조선괴뢰당국에 북남대화를 중단하라고 강박하는 한편 일본당국에는 조일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에 핵문제를 들고 나가라고 부추겼다.

국제문제전문가들은 미국이 북조선의 핵문제를 들고나온 목적의 하나가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기 위해서였는데 **김정일**령도자의 지략에 의해 수포로 되고있다는것, **김정일**국방위원장은 핵문제가 터지자 북남관계를 더 적극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아연하게 만들고있다고 하였다.

2002년 12월 남조선에서는 제16대《대통령》선거가 진행되였다. 당시《대통령》선거는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된 이후 남조선에서 처음으로 있은《대통령》선거로서 그 결과에 따라 화해협력적인 북남관계가 계속 지속되는가 아니면 친미보수세력의 집권으로 북남관계가 또다시 대결의 원점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있었다.

선거에는 민주당후보 로무현,《한나라당》(당시)후보 리회창, 민주로동당 후보 권영길 등 6명의 후보들이 나서서 경쟁을

벌렸다. 선거결과 민주당후보 로무현이 전체 투표자의 48.9%의 지지를 얻어《한나라당》(당시)의 리회창을 누르고 제16대 남조선《대통령》으로 당선되였다.

민주당의 로무현이《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민주로동당의 권영길이 근 100만표의 지지를 얻은것은 남조선선거사에서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현상이였다.

로무현으로 말하면 경상남도 김해의 빈농출신으로서 정계에 특별한 지지기반도 없었고 재벌개혁, 재벌해체를 주장한것으로하여 재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있었다. 특히 그는 남조선정객치고 그때까지 미국에 단 한번도 간적이 없을 정도로 미국과 인맥이 없었으며 선거공약에서도 《대통령》인준을 받으려고 미국에 가지 않을것이다, 미국에 안가고 당선되는 선례를 만들겠다, 미국과의 수직관계를 수평관계로 만들겠다 등을 주장함으로써 미국의 눈밖에 나있던 인물이였다. 이러한 그가 예상을 뒤집고 《대통령》으로 당선될수 있었던 리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었다.

외신들도 이번 선거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지지를 받는 좌파 대 부쉬정권의 후광을 받는 우파의 대결로 될것이다》, 《사실상 북조선 대 미국사이의 대결》로 될것이라고 평하였다.

당시 친미보수정당인 《한나라당》(당시)도 북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수 없었던데로부터 2002년 9월과 12월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화국에 밀사를 보내여 자기네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통 큰 대북지원》을 할것이라고 하면서 추파를 던지였다. 하지만 북이 그러한 미끼를 받아물리 만무하였다.

한편 미국은 친미보수파인 《한나라당》(당시)후보 리회창을 《대통령》으로 지목하고 그를 내세워 북남관계에 쐐기를 박으려고

하였다. 부쉬는 2002년초 미국을 방문한 리회창을 마치 남조선《대통령》이 다 된것처럼 특별대우해주었으며 미국의 선거전문가들을 그의 선거대책고문으로 붙여주기까지 하면서 그의 당선을 적극적으로 뒤받침해주었다. 그리고 선거때에는 무려 70명에 달하는 선거전문가들을 남조선에 파견하여 선거전과정을 감시하도록 하였다.

로무현은 선거운동에 나서서 리회창이《대통령》이 되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였고 리회창은 로무현이 당선되면 북에 대한 지원으로 북의 핵무기개발을 도와줄것이라고 력설했다.

지난 시기 남조선의 력대 선거사를 보면 안보에 대한 우려로부터 의례히 친미파가 당선되는것이 상례였다.

하지만 2002년의 선거결과는 상례를 깨뜨렸다. 당시 남조선내부에서는 미군장갑차녀중학생살인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반미운동이 온 한해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되고있었다. 미국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10만명초불행진, 30만명초불행사에 이어 100만명초불시위로까지 확대되였다. 반면에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환영하면서 공화국을 공개적으로 찬양하기까지 하였다. 선거과정에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대부분의 남조선사람들은 북이 설사 핵무기를 가지고있다고 해도 나쁠것이 없다, 그것은 남쪽에 위협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민족을 지켜주는 호신부나 같은것이다, 북의 선군정치는 북만이 아니라 남까지 지켜주고있다고 하면서 선군정치에 지지공감을 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외신들은《한국인들이 북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원한이 많다》고 보도하였다.

결국 남조선사람들은 사실상 미국을 반대하고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를 지지하여 표를 찍었다고 볼수 있다.

지난 시기 남조선의 일부 사람들은 선군정치를 군력을 강화하여 《남침》하기 위한것으로 인식해왔다. 그러나 그들은 **김정일**령도자께서 선군정치로 조선반도의 전쟁국면을 억제하고 민족의 존엄과 위상을 최상의 높이에로 올려주시는 사실을 목격하면서 그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되였다.

이에 대하여 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은 2005년 3월 24일 재미동포전국련합회 홈페지에 발표한 《이남국민이 입고있는 선군정치의 덕》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썼다.

《지금 미국과 이남의 군사전문가들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력사상 가장 비참한 전쟁이 될것이라고 우려하고있다.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동원된 현대전쟁이 일어날 경우 총손실액은 대략 21조 204억 4 000여만US＄에 달할것으로 본다. 결국 이북의 선군정치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억제되고 평화가 보장되기때문에 이남국민은 수십조US＄에 달하는 덕을 보고있는것으로 된다.

이남당국과 민간단체들은 1995년부터 2004년 6월말까지 진행한 남북경제협력총액이 약 9억US＄정도 될것이라고 한다. 이에 비하면 그들이 실제 입고있는 이북의 선군정치덕은 그 몇만배나 된다고 할수 있다.》

핵억제력과 막강한 군사력에 의하여 안받침된 공화국의 선군정치가 아니였던들 조선반도에서 전쟁은 열번도 더 일어났을것이다. 현실을 통하여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민족사적의의를 절감한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김정일**령도자를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시켜주실 위인이시라고 높이 격찬하였던것이다.

공화국은 그후에도 새로 집권한 로무현정권과 통일을 지향한 여러 갈래의 회담들을 계속 진행해나갔다.

결과 6.15북남공동선언발표 3돐을 계기로 6.15민족통일대축전이 화해, 협력의 분위기속에서 성대히 진행되였으며 2005년 8월까지 군사분계선 전지역에서 반세기이상 동족간에 불신과 반목, 대결과 긴장을 조장시켜오던 랭전의 유물인 방대한 선전수단들이 기본적으로 해체되게 되였다. 그리고 2007년에는 당시 로무현《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령도자를 만나뵈웠으며 이때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행동강령인 10.4북남선언이 채택되였다

6.15북남공동선언발표후 북남사이에는 첫 상급회담이 개최된 때로부터 2005년말까지 17차의 상급회담과 40여차의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와 실무접촉, 10여차의 북남군사당국자들사이의 회담 및 실무접촉을 비롯하여 100여차례의 북남대화와 협상이 있었으며 수십건의 합의문건이 채택되였다. 이것은 북남대화력사에 전례없는 기록으로서 1971년부터 6.15공동선언이 채택된 2000년까지의 29년간 346회의 회담이 진행되고 35건의 합의문건이 채택되였다는 사실과 비교해볼 때 6.15이후 북남대화가 얼마나 활성화되였는가를 보여주고있다.

6.15통일시대와 더불어 활력있게 전진하던 조국통일위업은 2008년 친미보수적인 《실용정부》인 리명박정권의 출현으로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게 되였다.

남조선의 리명박괴뢰정권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고 민족자주가 아니라 외세의존을 추구하면서 북남대결을 고취하는 전쟁책동에 미쳐날뛰였다. 그들은 북남공동선언들에 전면배치되는 《비핵, 개방, 3 000》을 반공화국정책으로 들고나와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를 돌이킬수 없는 파국에로 몰아갔다. 괴뢰들은 2009년 공화국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와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조치를 구실로 날로 높아가는 미국의

반공화국대결정책과 유엔의 부당한 제재조치들에 편승하면서 북남관계를 최악의 상태에로 몰아갔으며 2010년에는 조선서해해상에서 일어난 《천안》호침몰사건을 공화국과 련결시키면서 어떻게 하나 북남관계를 전면중단시키려고 하였다.

결국 남조선인민들의 금강산관광사업도 흩어진 가족친척상봉도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사업을 비롯한 모든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의 길을 일순간에 막아버리는 반민족적죄행을 감행하였다.

단절과 악화, 협상재개의 순환을 계속해오던 북남관계는 2010년에 들어와《천안》호침몰사건과 연평도사건을 계기로 전면차단되고 인도주의적견지에서 진행되던 사업들마저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말았다.

리명박괴뢰정권은 2010년에 이어 2011년에 들어와서도 북남대결에 더욱 열을 올리였다.

리명박괴뢰정권은 경기도 양주와 인천시를 비롯한 남조선도처에 널려있는 군사훈련장들에 공화국의 사회주의체제를 헐뜯는 구호와 선전물들을 걸어놓고 소란을 피우다 못해 감히 조선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표적까지 만들어놓고 총탄을 쏘아대는 천추에 용납못할 광기를 부리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인민군은 2011년 6월 4일 총참모부 대변인성명을 발표하였다. 대변인성명은 리명박정권의 이러한 극악한 행위를 특대형도발행위로 간주하면서 최악의 반민족적범죄를 저지른 주모자들을 즉시 엄벌에 처하고 남조선당국이 특대형도발행위에 대해 온 민족앞에 정식으로 사죄하며 대변인성명이 나간 시각부터 조선인민군 륙해공군 및 로농적위대부대들이 역적무리들을 일격에 쓸어버리기 위한 실제적이고 전면적인 군사적보복행동에 진입하게 될것이라는데 대하여 엄숙히 선포하였다.

리명박괴뢰정권은 이렇듯 동족대결을 고취하다 못해 2011년

12월에는 민족의 대국상을 계기로 반공화국대결흉심을 더욱 드러내면서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심히 모독하고 남조선 각계층의 조의표시를 악랄하게 탄압하는 천추만대에 씻지 못할 특대형대범죄까지도 서슴없이 저지름으로써 전체 조선민족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최근년간에 더욱 심각해지는 사태발전은 누가 진정으로 통일을 바라며 어느쪽이 통일을 반대하는 반통일세력인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날로 고조되는 반미열풍

6.15북남공동선언발표후 남조선에서는 그 이전시기에 비해 반미자주화의 열풍이 보다 강하게 일어났다.

미국은 조선을 분렬시킨 장본인이며 조선의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고 전쟁을 추구하는 주되는 세력이다. 그런것만큼 민족공조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남조선주둔 미군을 조선반도에서 철거시킴으로써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것은 조선의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후 《해방자》의 모자를 쓰고 남조선을 강점한 미국은 남조선을 반세기이상이나 저들의 식민지처럼 통치하여왔다. 특히 미국은 1950년 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력침공을 감행하고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학살하였으며 조선의 통일을 각방으로 방해하였다. 하지만 남조선의 적지 않은 사람들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시기 련합국측에 서서 식민지지배자였던 일본과 싸웠다는데로부터 미국을 해방자, 우방국, 원조자로 생각하면서 숭미사상에 물젖어있었고 미국과 남조선의 력대 위정자들의 악선전에 속아 공화국에 대한 대결관념에 빠져있었다.

하지만 6.15북남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 남조선인민들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추구하고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 장본인이 누구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깨닫게 되였으며 점차 미국에 대한 견해가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의식은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군이 감행한 무고한 평화적주민들에 대한 살륙만행이 련이어 드러나고 미국의 압력과 전횡이 날로 심화되는것과 함께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하여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미국이 결코 동맹자도 벗도 아니며 조선민족에게 온갖 고통과 불행을 들씌우는 화근이라는 인식이 보다 지배적인것으로 되여가고있었다.

1990년대까지만 하여도 남조선에서는 미국에 대해 거부감을 느낀다고 하는 사람은 22%에 지나지 않았던것이 6.15북남공동선언발표이후에는 46%의 각계층이 미국을 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로 여기고있고 64%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주적으로 나갈것을 주장해나섰으며 북이 아니라 미국을 주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날로 높아갔다. 반면에 남조선미국동맹강화를 주장하는 세력은 6.15북남공동선언발표이전보다 25%나 줄어들었다.

남조선인민들의 의식구조에서 일어난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반미자주화의 열풍을 몰아온 근본동력으로 되였다.

남조선에서의 반미투쟁은 사회 각계 단체들의 긴밀한 련대에 기초하여 보다 광범한 대중이 참가하는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였으며 거의 모든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어났다. 이것은 말그대로 하나의 반미열풍이라고 할수 있었다.

2002년 1월 부쉬의 《악의 축》발언이 있은 후 남조선의 전국련합, 통일련대, 범민련 남측본부, 《한총련》, 민중련대,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 등 800여개가 넘는 단체들은 매일과 같이 항의성명을 내고 반미결의대회, 공개서한전달식을 벌리였다.

2002년 2월 부쉬의 서울행각시에는 600여개의 단체소속회원 5 000여명이 일제히 들고일어나 부쉬방한반대범국민대회를 가지였으며 《한총련》소속 남조선대학생들은 서울시내에 있는 미상공회의소와 미국대사관에 대한 점거투쟁을 벌렸다. 이로하여 부쉬는 비행장에서 차도 타지 못하고 직승기로 시내에 들어오게 되였으며 3중4중의 경찰병력에 둘러싸여 고독한 일정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렇게 2002년 1월부터 근 반년동안에만도 남조선 전지역에서 일어난 반미투쟁참가자수는 160만명에 이르렀다. 이것은 이 기간에 매일 평균 6.5건이상의 투쟁에 9 000여명이 참가한것으로 된다.

반미투쟁에는 일반시민, 학생들뿐아니라 남조선국회의원들과 당국의 공무원들까지 참가하였다. 남조선의 여야당소속 국회의원들은 부쉬가 북조선을《악의 축》이라고 발언함으로써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키고있는것과 관련하여 2002년 2월 서울주재 미국대사관을 항의방문하고 그것을 철회할것을 요구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반미투쟁은 2002년 6월 13일 남조선주둔미군이 14살의 나어린 소녀들인 신효순, 심미선학생들을 백주에 장갑차로 무참하게 깔아죽이고 그 범죄자들을 무죄로 판결하여 미국으로 빼돌린 사건을 계기로 더욱 고조되였다.

미군에 의한 두 녀중학생살인사건이 일어난 이후 60여일동안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 지역에서 무려 500여건의 반미투쟁이 벌어졌으며 참가단체는 1 000여개, 참가인원수는 연 120여만명에 달하였다. 살인범들에 대한 남조선주둔미군 제8군사령부 군사법원의 무죄판결이 결정되자 반미투쟁은 남조선전역으로 파급되였다. 격분한 남조선인민들은 그해가 다 저물어가던 12월 31일 남조선의 60여개 지역에서 대규모초불시위를 벌리였다.

특히 서울에서는 시민, 학생 5만여명의 참가하에 반미초불시위가 2003년 새해 첫날 새벽까지 계속되였다. 집회와 시위에서 분노한 군중들은 《어린 두 령혼이 우리를 지켜보고있다.》, 《미국대통령은 효순, 미선 죽음앞에 직접 사과하라.》고 웨치며 남조선주둔 미군의 철수를 강하게 요구하였다.

남조선주둔 미군에 의한 두 녀중학생살인사건은 반미의 기폭제로 되여 2002년에만 하여도 반미투쟁건수는 무려 5 880여건에 달하였고 반미투쟁참가자수는 연 670여만명에 이르렀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 맺힌 원한과 울분의 폭발이였으며 살인자들을 천백배로 복수하려는 의지의 분출이였다.

반미초불시위를 계기로 반미감정은 남조선사회의 지배적인 전국민적감정으로 승화되였다. 부쉬를 야유하는 풍자만화들과 노래, 시들이 련일 신문들에 게재되였고 인터네트에는 반미운동본부, 반미공장 등의 싸이트들이 무수히 개설되여 공공연히 반미선전을 진행하였다. 어떤 식당들에서는 반미시위를 하다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까지 광고하였으며 미국인들에 대한 일체 봉사가 거부되였다.

지난날 숭미, 공미사상이 지배하던 남조선땅이 반미열풍지대로 변모되여간 사실은 남조선인민들의 높아가는 민족자주의식을 시사해주고있었다.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은 남조선주둔 미군의 철수운동으로 확대발전하고있었다.

2001년 2월 서울에서는 각 지역의 남조선주둔 미군기지반대투쟁단체들이 모여 공동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미군기지반환운동을 전남조선적인 련대투쟁으로 전개해나갈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남조선 동국대학교의 한 교수는 어느 한 토론회에서《조선반도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주범은 북이 아니라 미국, 곧 남조선주둔 미군》이라고 폭로하고《현 안보체계는 안보체계가 아니라 전쟁의 주범에게 안보를 맡기는 자살체계》라고 개탄하여 사회각계의 주목을 끌었다.

남조선에서의 미군철수운동은 북과 남, 해외의 조선동포들로 조직된 미군학살만행진상규명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전민특위)에 의하여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군이 감행한 평화적주민들에 대한 학살만행이 련이어 드러나 공개되고 날로 성행하는 미군의 살인, 강간, 절도범죄행위가 크게 문제시되면서 범국민적운동으로 확대되였다. 북과 남, 해외에서 민족공조로 강력히 벌어진 남조선주둔 미군의 철수운동은 조선해방 60돐과 미군의 남조선강점 60년을 계기로 최절정에 달하였다.

2005년 8월 14일 조국해방 60돐을 맞으며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바야흐로 조국통일의 날이 밝아오고있다고 하면서 남조선을 비롯한 해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은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조국광복의 기치아래 일치단결하여 민족의 해방을 이룩한것처럼 현시기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하여 남조선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제2의 8.15를 가져와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남조선에서는 각계층 인민들을 망라한《반미반전주한미군철수련대회의》가 새로 결성되여 미군철수운동의 전면화, 전역화, 대중화를 2005년 반미투쟁의 3대목표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과감한 투쟁을 전개하였다.《한총련》과 범청학련 남측본부,《한국청년단체협의회》등 청년학생단체들도《반미반전총공세로 주한미군 몰아내자》,《2005년을 미군철수원년으로 맞이하자》등의 구호를 들고 남조선주둔 미군의 범죄적죄행을 자료적으로 폭로하기 위한 활동을 광범히 벌렸다. 8월 15일

서울에서 있은《반전평화자주통일범국민대회》에서는 미군의 남조선강점 60년을 맞으며 이전 미극동군사령관이였던 맥아더의 동상을 철거할것을 결정하였으며 본격적인 미군강점 60년체제 청산투쟁을 벌릴것을 호소하였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또한 반미원정시위대와《〈한〉반도평화원정대》를 조직하고 미국과 유럽지역의 100여개 사회단체들과 련대하여 워싱톤과 브류쎌을 비롯한 세계의 주요도시들에서 남조선주둔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벌리였다.

남조선에서 반미기운이 높아가자 미국안에서도 남조선주둔 미군의 철수문제가 론의되였다. 부쉬와 인맥관계가 깊은 보수파 인물인 로버트 노박크는 《워싱톤 포스트》에 낸 글에서 남조선주둔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여 부쉬를 아연실색케 하였다. 이전 백악관관리였던 윌리암 세파이어도《뉴욕 타임스》에 낸 글에서《미국은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철수를 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주둔 미군철수가 하나의 시대적추이로, 막을수 없는 흐름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7) 세계자주화위업과 선군조선

초대국의 고민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은 온 세계가 자기의 지휘하에 움직이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꿈꾸면서 갖은 전횡을 다 부린다. 저들의 리해관계에 조금이라도 저촉되면 한 나라의 자주권도 란폭하게 침해하고 국가정권도 하루아침에 전복시키는 미국에 있어서 이 지구상에 힘으로 다스리지 못할 나라가 없을듯 싶다.

그러나 그러한 미국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선군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미국은 력사적으로 조선에 대한 침략을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그러나 언제 한번 조선을 자기 마음대로 다룰수 없었다.

19세기《셔먼》호의 침입으로부터 20세기 50년대 조선전쟁, 1993년에 시작된 조선의 핵위기 등 미국이 조선에 침략의 손길을 뻗친 때로부터 오랜 세월 조선과 씨름질을 하였으나 언제 한번 조선을 굴복시킬수 없었다.

그 패전의 력사는 21세기에 들어선 오늘에도 계속되고있다.

새 세기에 들어서자마자 미국은 9.11사건을 계기로 아프가니스탄을 강점하고 뒤이어 이라크를 타고앉았다.

이라크는 미국에 강경하게 맞섰지만 지난 세기 90년대에 페르샤만전쟁이 개시되자 미국의 무차별적인 군사적공격과 위세에 공포를 느끼고 뒤걸음치기 시작하였다.

이라크는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내놓을것은 다 내놓았다.

…클린톤이 무기사찰단을 책임지고 이라크로 온 다음날이다.

후쎄인 :《돌아보면 알겠지만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소. 그래 어디부터 사찰하겠습니까?》

클린톤 :《난 당신의 궁전을 사찰해야겠소.》

후쎄인 :《안됩니다. 그건 안됩니다. 난 그걸 허락할수 없습니다.》

클린톤은 휴대용전화기를 꺼내들었다.

클린톤 :《여보시오, 나 빌이요. 이라크에 대한 폭격을 준비하시오.》

후쎄인 :《좋습니다. 좋습니다. 궁전에 대한 사찰에 동의합니다. 헌데 궁전 어디를 사찰하겠습니까?》

클린톤 :《당신의 침실이요.》

후쎄인 : 《안됩니다. 침실에 대한 사찰에는 응하지 않겠습니다.》

클린톤이 다시 휴대용전화기를 꺼내들었다.

클린톤 : 《여보시오. 나 빌이요. 이라크에 대한 폭격을 준비하시오.》

후쎄인 : 《그럼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침실열쇠입니다.》…

이것은 벨라루씨 《쏘브레멘느이 리떼라뚜라》출판사에서 2011년에 출판한《5 000여가지의 우스운 일화》에 실린 유모아의 한 토막이다.

이라크는 미국이 요구하는 대통령궁전사찰까지 받으면 제재는 곧 해제될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미국의 속심은 그것이 아니였다.

후날의 력사가 증명해준것처럼 주권국가의 대통령궁전까지 수색을 하고난 미국은 제재를 해제한것이 아니라 아예 이라크땅을 타고앉으려는 강도적야망으로부터 또다시 전쟁을 일으켰다.

한 국제법전문가는 이라크전쟁은 《평화에 대한 범죄이며 살아남은 나치스도이췰란드의 거물이 뉘른베르그국제군사재판에 기소되여 형벌을 받게 되는것과 같은 범죄》라고 말했다.

2003년 3월 20일 미국주도하의 다국적무력이 이라크를 들이쳤다. 만전쟁이후로 군력이 쇠약해진데다가 배신자까지 무리로 속출하는바람에 처음에는 호통을 치던 이라크군대는 두달도 채 못되여 무너지고말았으며 미국은 손쉽게 이라크를 가로타고앉을수 있었다.

이라크전쟁은 사찰을 통한 무장해제에 응하는것이 전쟁을 막는것이 아니라 전쟁을 불러온다는것, 오직 강위력한 군사적억제력을 갖추어야만 전쟁을 막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할수 있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기였다.

미국과 당당히 맞서자면 강력한 군사적힘을 키워야 한다.

배짱도 힘에서 생기고 신념도 힘이 있어야 굳건하다. 사상과 신념이 확고하고 군력이 강하면 무서울것이 없고 그 누구도 감히 범접을 못한다. 강자에게는 머리를 숙이고 약자앞에서는 으르렁거리는것이 제국주의의 본색이고 취약성이다. 작은 나라라고 하여도 제힘을 키우고 적들과 강경하게 맞서싸우면 감히 누구도 어쩌지를 못한다.

인디아의 이전 수상이였던 네루(1889—1964)는 일찌기 《진짜 패배는 원칙의 배반, 자기 권리의 거부, 악에 대한 비렬한 순종이다.》라고 말한적이 있다.

이라크는 미국의 거듭되는 군사적공세에 한걸음두걸음 양보하고 《자유세계》를 떠드는 적들의 선전에 넘어가 제스스로 패배의 함정에 빠지고말았으며 그처럼 경멸하던 악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선은 이라크와 전혀 달랐다.

미국의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서고 총을 휘두르면 대포를 내대는 조선의 초고압자세앞에서 미국은 언제나 패배의 고배를 마시지 않으면 안되였다.

미국의 침략적인 대조선정책은 19세기 60년대로부터 오늘도 변함없이 계속되고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들인 경제제재와 봉쇄, 무모한 군사적도발들은 선군정치의 위력앞에서는 물거품으로 사라지고말았다. 조선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과 무모한 군사적책동이 우심해지고 있는 속에서 2009년 4월 5일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를 발사한데 이어 5월 25일에는 2차 핵시험을, 7월에는 미싸일발사시험을 단행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적대행위에 대처하여 단행된 그

어떤 국제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자위적조치였다. 이 대결은 본질에 있어서 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전에 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에 관한 문제였으며 조미대결이였다.

《핵포기란 절대로, 철두철미 있을수 없는 일로 되였으며 조선의 핵무기보유를 인정하는가 마는가 하는것은 우리에겐 상관없다》는것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립장이였다.

2009년 6월 12일 미국의 사촉하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이번에는 조선의 2차 핵시험을 걸고 반공화국제재결의 1874호를 채택하였다. 이것은 조선을 무장해제시키고 경제적으로 질식시켜 조선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허물어보려는 미국주도하의 국제적압박공세의 또 하나의 추악한 산물이였다. 미국과 그에 적극 추종한 일본은 이 결의로도 모자라 《위조화페》요 《마약밀매》요 하는 허구들을 조작해내여 공화국에 대한 단독 《제재》를 더 가하기 위한 비렬한 음모까지 꾸미였다.

한편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인 남조선괴뢰들과 일본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따라 조선을 압살하기 위한 군사적도발과 위협을 공공연히 감행해나섰다.

조선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봉쇄시도를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히 군사적으로 대응한다는 6.18외무성성명을 발표하고 초강경으로 맞서나갔다.

조선에서 진행한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와 그를 걸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채택한 제재결의에 대한 대답으로 진행한 지하핵시험, 미국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진행한 인민군대의 미싸일발사시험 등은 미국으로 하여금 다시 조미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

조선의 초강경자세로 하여 조미관계가 극도로 첨예화될것 같던 당시 상황에서 2009년 8월 4일 전 미국대통령 클린톤의

평양방문이 이루어졌다.

클린톤의 조선방문은 7월초 조선인민군이 미싸일발사시험을 진행한 후부터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세계의 이목은 다시금 평양에로 쏠리게 되였다.

8월 5일《로동신문》은《미국 전 대통령 빌 클린톤의 우리나라 방문과 관련한 보도》라는 제목에서 이렇게 전하였다.

《미국 전 대통령 빌 클린톤일행이 8월 4일부터 5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클린톤일행을 접견하시였다.

클린톤일행은 체류기간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의례방문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클린톤은 미국기자 2명이 우리나라에 불법입국하여 반공화국적대행위를 한데 대하여 심심한 사과의 뜻을 표하고 그들을 인도주의적견지에서 관대하게 용서하여 돌려보내줄데 대한 미국정부의 간절한 요청을 정중히 전달하였다. 상봉들에서는 조미사이의 현안문제들이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허심탄회하고 깊이있게 론의되였으며 대화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갈데 대한 견해일치가 이룩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헌법 제103조에 따라 로동교화형을 받은 미국기자 2명에게 특사를 실시하여 석방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명령을 내리시였다. 클린톤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며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개선방도와 관련한 견해를 담은 바라크 오바마미합중국대통령의 구두메쎄지를 정중히 전달하였다. 미국기자들에 대한 석방조치는 우리 공화국의 인도주의와 평화애호적인 정책의 발현이다. 클린톤일행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선과 미국사이의 리해를

길이하고 신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게 될것이다.》

클린톤의 조선방문은 오바마미국대통령 특사로서의 방문이였고 조미관계의 전환을 예고하는 방문이였다.

미국은 클린톤의 평양방문이 마치도 억류된 2명의 기자석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걸음인듯이 묘사하였으나 그것은 조선의 초강경에 굽어든 저들의 모습을 가리우기 위한 기만에 불과한것이였다.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국책으로 삼고있는 미국은 클린톤의 평양방문이후에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사촉하여 조선에 대한 제재를 계속하였다.

공화국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써 폐연료봉의 재처리가 마감단계에서 마무리되고있으며 추출된 플루토니움이 무기화되고 우라니움농축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여 결속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공개하는것으로 대화와 제재에도 다 대처할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유엔까지 발동하여 제재를 가하던 미국은 날로 초강경으로 맞서는 조선과 다시금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결국 미국의 오바마행정부는 2009년 12월에 대북정책특별대표인 바즈워즈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평양으로 파견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조미대화에 다시금 응해나섰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였다.

미국이 다시금 대화의 마당에 나서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화국을 설복하여 끝까지 무장해제시키려는데 그 진의도가 있었다.

하지만 미국과의 수십년간에 걸치는 대결에서 전쟁억제력을 마련하는 길만이 조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켜내고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고있는것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였다.

선군정치가 있어 조선은 자체의 위력한 방어와 공격수단을

다 갖춘 전쟁억제력을 마련하였으며 그것은 미국의 세계제패야망에 큰 실망만을 안겨주는 고민거리로 되고있는것이다.

하기에 전 미국무장관이였던 포웰은 2009년 7월 28일 CNN TV에 출연하여 《북조선은 지금까지 내가 상대한 중에서 가장 두려운 교섭자라 할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미행정부의 고민을 대변한 말이라고 할수 있다.

세계의 곳곳에 휘날리는 공화국기

새 세기에 들어와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특출한 외교지략과 원숙한 외교실력으로 세상을 놀래우는 커다란 사변들을 련이어 창조하시면서 미국의 전횡과 지배주의적책동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시고 공화국의 대외적권위와 존엄을 보다 높여나가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새 세기에 들어와 진행하신 중국과 로씨야에 대한 방문이 이것을 잘 보여주었다.

2003년에 있은 중국공산당 제16차대회에서는 새 중앙령도집단이 출현하였다.

후진타오를 주석으로 하는 중국의 새 중앙령도집단은 중조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에 의하여 맺어지고 가꾸어진 조중친선을 고도로 중시하고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을 확고한 전략적방침으로 내세웠다.

2004년 4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중외교관계설정 55돐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으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후진타오의 초청에 의하여 19일부터 21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중국방문시 후진타오주석과 회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회담에서 중국의 새 중앙령도집단이 지난

1년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서와 조중관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또한 중국의 새 중앙령도집단이 《세가지 대표》중요사상의 지도하에 이인위본과 인민을 위한 집권의 원칙에 따라 전체 중국인민을 단결시키고 령도하여 매우 짧은 기간에 경제를 빨리 발전시켰으며 첫 유인우주비행선 《신주-6》호를 성과적으로 발사함으로써 국제적지위와 영향력을 비상히 높인데 대해 매우 기쁜 마음으로 대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중국이 2020년까지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전략적목표를 반드시 실현하리라고 믿는다고 말씀하시였다.

후진타오주석은 새 세기에 들어선후 중조쌍방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조강화의 정신에 따라 두 당, 두 나라의 친선협조관계가 날로 확대발전되고있다고 하면서 이에 만족을 표시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후진타오주석이 편리한 시기에 조선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시였으며 초청은 쾌히 수락되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중국방문기간 중국공산당의 9명의 정치국상무위원 모두가 그이를 열렬히 맞이하고 최대의 성의를 보이였고 후진타오주석은 **김정일**령도자의 중국방문을 환영하여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한 연회를 차렸으며 중앙의 여러 예술단들에서 특별히 준비한 음악무용종합공연을 함께 관람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귀국도중 티엔진시당 서기의 안내를 받으시며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티엔진시를 참관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중국방문은 비공식으로 진행되였지만 그에 대한 세계적인 반향은 대단히 컸다. 《인민일보》,《해방군보》,《신화매일전신》,《해방일보》,《베이징일보》,《광명일보》,

《중국청년보》, 《환구시보》를 비롯한 중국의 주요 신문, 통신들은 물론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 일본의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붕》, 《니홍게이자이신붕》, 프랑스 AFP통신, 영국의 로이터통신과 BBC방송, 미국의 CNN방송 등 세계의 언론, 보도계는 **김정일**령도자의 중국방문소식을 련일 특별보도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중국을 방문하신지 1년이 지난 2005년 10월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후진타오가 **김정일**령도자의 초청에 의하여 평양을 공식친선방문하였다.

후진타오주석은 환영연회에서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다는 중국의 옛말이 있습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작년 4월에 나는 베이징에서 **김정일**총비서동지와 만나 중조관계발전에 대한 웅대한 계획을 함께 론의하였습니다. 오늘 천고마비의 10월에 나와 **김정일**총비서동지께서는 평양에서 다시 상봉하여 중조친선협조관계발전의 로정을 돌이켜보면서 중조친선협조의 풍성한 열매를 함께 수확하고있습니다. 중조친선협조관계를 보다 더 깊이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중조쌍방은 고위급래왕을 가일층 밀접히 하고 의견교환을 강화하며 교류분야를 확대시키고 협력내용을 풍부하게 하며 무역과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공동의 발전을 촉진하며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협력하며 공동의 리익을 수호해야 한다는데 합의를 보았습니다.》

후진타오주석이 평양에 도착한 다음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후진타오주석과 함께 중국당과 정부가 조선에 무상으로 제공한 대안친선유리공장을 참관하시였다.

후진타오주석의 평양방문후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그의 초청에

의하여 2006년 1월 중국을 방문하시여 중국의 중부와 남부에 있는 경제특구들을 돌아보시였으며 2010년 5월 3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에는 중국 동북지역의 다리엔을 거쳐 티엔진, 베이징, 선양 등을 방문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어 그해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또다시 중국을 방문하시여 조중협조관계를 더욱 두터이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그때로부터 9개월이 되는 2011년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또다시 1만 5 000여리에 달하는 중국의 동북지역과 화둥지역을 비공식방문하시였으며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또다시 중국의 동북지역을 방문하시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 련이어 진행된 두 당, 두 나라 령도자들의 호상래왕과 상봉, 회담에 의하여 깊은 력사적뿌리를 가지고 있는 조중친선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날로 더욱 확대발전되였다.

지난 세기말 이전 쏘련의 해체후 한동안 랭각상태에 있던 조로관계도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이전 쏘련의 해체후 로씨야의 조선반도정책은 남조선일변도였다.

1992년 당시 로씨야대통령이였던 옐찐은 주요서방나라들을 순회하면서 로씨야는 더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것, 나토국가들을 조준하였던 로씨야의 전략로케트군의 전투직일을 해제한다는것, 서방은 로씨야의 개혁을 지지해야 한다는 이른바 《대서양주의》를 내놓았다.

옐찐은 서방나라들을 돌아다니며 구걸외교를 하던 나머지 일본과 남조선괴뢰들에게도 원조를 요구하였다.

일본은 《북방령토》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로씨야에 대규모 차관을 줄수 없다고 딱 잡아뗐으나 남조선괴뢰들은 미국의

부추김에 따라 로씨야를 통한 공화국의 포위환을 형성하기 위해 옐찐의 재정원조요청에 호응해나섰다.

남조선괴뢰들로부터 일정한 재정원조를 받은 옐찐정부는 남조선일변도가 유일하게 리성적인 정책이라고 하면서 그 길로 줄달음쳐갔으며 로씨야—남조선기본관계조약을 체결하는데까지 이르렀다. 남조선일변도정책을 실시하던 로씨야는 1993년에 쏘조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1961년 체결)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데까지 이르렀다.

1994년 10월 16일 이따르-따쓰는《조선문제에서 로씨야외교의 〈새로운 사고〉》라는 글에서 이렇게 썼다.

《로씨야가 조선반도 북쪽에서 가지고있던 영향력은 미국에 의해 대체되고있으나 로씨야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있다. 미조사이에는 외교관계가 없지만 미국의 고위인물들은 빈번히 조선을 방문하고있다. 특히 이전 대통령 카터는 조선에 대한 상당히 성공적인 방문을 진행하였다. 미국은 바로 로씨야의 남조선일변도정책을 리용하여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있으며 로씨야가 이미 제할바를 다하고 물러나는 사람의 역을 놀게 하였다.》

그런가하면 전 미국주재 로씨야대사였던 루낀은《최근년간 우리 나라는 미국정계인사들의 마음속에 두가지 뿌리깊은 영상을 주고있는것 같다. 하나는 랭전시기 미국의 적수였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서방화된 나라로서 미국의 작은 동반자라는것이다. 지난 시기 사람들은 로씨야를 무서워하였으나 존경하지는 않았다. 그다음에는 존경은 하였으나 무서워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존경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않고있다.》라고 말했다.

로씨야는 남조선일변도정책을 실시하면서 서방과 남조선의

원조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황금소나기는 고사하고 날이 갈수록 나라의 정치경제형편은 더욱 쇠약해져가기만 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뿌찐이 대통령으로 되였다.

당시 공화국은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의 위력으로 미국과 군사적으로뿐아니라 외교적으로도 당당히 맞서 련전련승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었다.

독창적인 선군정치에 공감한 세계의 적지 않은 인사들이 조선에로 발걸음을 옮기고있던 그때 갓 대통령이 된 뿌찐도 평양방문의 길에 오르게 되였다.

2000년 7월에 있은 뿌찐의 평양방문은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로씨야대통령의 조선방문이였다.

뿌찐의 평양방문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공화국을 방문하여 **김정일**령도자를 만나뵈온것으로 하여 뿌찐은 그후 일본 오끼나와에서 진행된 8개국수뇌자회의에서 초점인물로 되였다.

하기에 뿌찐은 **김정일**령도자와의 상봉에 대해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나는 **김정일**국방위원장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았다, 정말 현대인이시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모든 문제를 재빨리 포착하시고 그에 대하여 신속한 답변을 주신다고하였다.

뿌찐수행원들도 대통령의 평양방문은 매우 성과적이고 유익한 방문이였다고 말하였다. 뿌찐은 오끼나와수뇌자회의가 끝난 후 **김정일**령도자께 진심으로 되는 감사전문을 올렸다.

조로관계발전에서 력사적인 분기점으로 된것은 새 세기에 들어와 진행된 **김정일**령도자의 로씨야련방에 대한 방문이였다.

2000년 7월 뿌찐대통령은 평양방문시 **김정일**령도자께 앞으로 로씨야련방을 방문해주실것을 요청하였었다.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난 2001년 7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김정일**령도자께서는 20여일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속에서 로씨야련방에 대한 방문을 진행하시였다.

로씨야련방의 여러 지방도시들을 참관하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8월 4일 모스크바에 도착하시여 뿌찐대통령과 상봉하시고 여러차례의 회담을 진행하시였다.

두 나라 령도자들은 회담후 크레믈리대궁전 울라지미르홀에서 조로모스크바선언을 채택발표하였다. 선언에서 쌍방은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것이 두 나라 인민의 근본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중대한 기여를 한다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인정하고 여러 분야에서의 쌍무적인 협조를 가일층 발전시킬것을 협약하였다.

또한 평양에서 채택된 6.15북남공동선언에 따라 나라의 통일문제를 조선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노력을 지지하고 남조선주둔미군철수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미룰수 없는 초미의 문제임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모스크바체류기간 뿌찐대통령의 최대의 환대를 받으시였다. 뿌찐대통령은 **김정일**령도자의 숙소를 일찌기 **김일성**주석께서 이전 쏘련을 방문하시였을 때 드시였던 가장 존경하는 귀빈만 들이는 크레믈리초대소에 정하도록 하였으며 그이의 신변안전과 행사들을 자신이 직접 조직하였다. 그리고 **김정일**령도자를 환영하는 연회에서 그이께 크레믈리대통령악단의 최상급공연을 보여드렸으며 외교관례를 벗어나 5차례나 **김정일**령도자와 상봉하고 회담을 진행하였다.

특히 외국국가수반들과 로씨야의 고위급간부들에게도 보여주지 않던 특수대상들인 흐루니체브명칭 우주과학쎈터와 중앙

우주비행조종쎈터를 **김정일**령도자께만은 특별히 보여드리였으며 지방참관시에도 옴스크운수기계제작공장, 츠깔로브명칭 항공생산련합체를 비롯하여 그이께서 관심하고 요구하시는 대상들은 구애됨이 없이 모두 참관하시도록 하였다.

이에 대하여 로씨야과학원 극동문제연구소의 한 인사는 《사람들은 뿌찐대통령이 다른 국가수반들과는 비교도 안되게 **김정일**동지에 대하여 특별한 환대조치를 취하고있는것을 목격하면서 놀라와하고있다. 이것은 **김정일**장군님께서 **김일성**주석의 위업을 굳건히 계승해나가시며 초대국인 미국도 감히 어쩌지 못하는 담력으로 정치를 펴나가시는 세계적인 령도자로서의 권위를 지니고 계시기때문이다.》라고 하였다.

2001년 **김정일**령도자의 로씨야련방방문에서 특기할것은 그이의 레닌묘방문이였다. 모스크바의 붉은광장에 있는 레닌묘는 이전 쏘련시기에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외국수반들이 의례히 찾군 하는 성지로 간주되여왔다. 그러나 이전 쏘련이 해체된 후 레닌묘는 사회주의배신자들에 의하여 수난과 비극을 당하게 되였다. 레닌묘를 지키던 명예위병대 1호초소도 없어지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다.

그러했던 레닌묘를 **김정일**령도자께서 쏘련해체후 외국국가최고령도자로서 처음으로 찾으신것이였다.

김정일령도자의 레닌묘방문과 관련하여 로씨야측은 7년전에 없앴던 레닌묘명예위병대 1호초소를 부활시켜 행사를 정중히 보장해드리였다. 8월 4일 레닌묘를 찾으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웨. 이. 레닌에게 **김정일**》이라는 글발이 새겨진 댕기를 드리운 화환을 진정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의 레닌묘방문은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로씨야신문《글라스노스찌》책임주필은 그이의 레닌묘방문은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로씨야의 참된 혁명가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준 대용단이였으며 **김정일**동지와 같은분을 따를 때 사회주의운동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안겨준 사변이였다고 자기 심정을 터놓았다.

국제사회계는 한결같이 《20세기 사회주의위업의 개척자에 대한 21세기 사회주의위업의 지도자의 경의 표시》,《**김정일**장군님이시야말로 숭고한 도덕의리의 최고귀감》이라고 격찬해마지 않았다.

레닌묘방문후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모스크바의 무명전사묘와 49만명의 레닌그라드방위자들이 안치되여있는 싼크뜨-뻬쩨르부르그시 삐스까료브공동묘지의《어머니-조국》기념비, 하바롭스크시 슬라바광장에 있는 무명전사묘를 찾으시여 화환을 진정하시고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였다.

로씨야방문기간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참관지들마다에서 높은 정치실력과 감화력, 풍부한 식견으로 로씨야사람들을 매혹시키시였다.

하기에 세계 5대륙의 정계, 사회계, 언론계인사들은 **김정일**령도자의 로씨야방문을 새 세기의 가장 의의있는 국제사변으로 칭송하였으며 그이를 사회주의위업의 수호자, 현시대의 위대한 정치원로로 높이 격찬하였다.

세계 150여개 나라의 라지오 및 TV방송들이 **김정일**령도자의 로씨야방문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그것을 2001년의 제1국제사변,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세계사적사변 등으로 평하였다.

특히 **김정일**령도자께서 뿌찐대통령과 상봉하신 첫 보도가 나간 날부터 불과 며칠어간에 세계의 연 300여억의 인구가 그이의 로씨야방문소식을 시청하는 특례적인 상황이 펼쳐졌다.

로씨야의 출판보도물들은 **김정일**령도자의 로씨야방문기간 그 소식을 연 1 000여회에 걸쳐 보도하였는데 이것은 다른 나라

국가수반들의 방문소식보도회수에 비해 무려 7배나 되는것이였다고 한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난 2002년 8월 또다시 로씨야련방 원동지역에 대한 방문을 진행하시여 조로친선관계를 보다 두터이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와 뿌찐대통령사이의 상봉과 회담이 8월 23일 태평양연안의 항구도시 울라지보스또크에서 있었다.

사실 그 무렵은 뿌찐대통령의 여름철휴가기간이였다.

하지만 그는 **김정일**령도자와의 상봉을 위해 밤새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로부터 무려 7 000여㎞나 떨어져있는 그곳으로 갔던것이다.

서방의 언론들은 《로씨야의 철저한 휴가문화로 보아 뿌찐대통령이 극동지역에서 휴가를 마다하고 **김정일**국방위원장과 만나는것은 단순한 만남으로 볼수 없다》고 하면서 《두 수뇌분의 만남은 구 쏘련시절 사회주의형제국가수뇌들의 회동을 상기시킬 정도로 강렬하였다》고 특종뉴스로 보도하였다.

미국의 언론도 《**김정일**령도자의 로씨야방문으로 조선은 미국의 〈악의 축〉공세에 정면으로 맞섰다》고 평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방문기간에 가가린명칭 꼼쏘몰쓰크-나-아무레항공생산련합체, 원동군관구산하의 월로차예브사단, 로씨야태평양함대소속의 군함《아드미랄 빤쩰레예브》호, 아무르조선소를 비롯한 여러 대상들을 참관하시였다.

참관지들마다에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로씨야수행일군들과 인민들의 진심어린 존경과 흠모를 받으시였다.

세계의 주요통신, 방송, 신문들과 정치평론가들은 2002년 **김정일**령도자의 로씨야련방 원동지역방문은 단순한 실무외교가 아니라 정치와 군사가 다같이 중시되고 실천이 결부된 의의가

매우 큰 방문이였다고 평하면서 국제무대에서 조선은 더욱더 무시할수 없는 존재로 자기의 지위를 강화하며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고있다고 하였다.

일본은 특별히 큰 규모의 기자단을 파견하였는데 취재진만 하여도 100여명에 달하였다. 후지TV는 6일동안에 모두 24차례의 위성송출예약을 하면서 취재에 열을 올렸다.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와 뛰여난 외교지략으로 하여 공화국의 대외적권위가 날로 높아가는 속에 2001년 5월초 유럽동맹최고위급대표단이 조선을 방문하였다.

유럽동맹은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던 피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점차 독자성을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였으며 지역단일화페인 유로를 내오고 US＄에 대응하는 등 정치, 경제, 군사적측면에서 미국의 독점적지배전략에 맞서고있었다.

조선반도문제에서 무턱대고 미국의 대조선정책에 추종하면서 공화국을 인정하지 않던 유럽동맹성원국들이 제가끔 외교관계를 설정한데 이어 유럽동맹이 120여명이나 되는 큰 규모의 대표단을 구성하여 조선에 온 그 자체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와 자주권을 인정한것이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3차례에 걸쳐 대표단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에 원칙적이고도 론리적이며 명백한 대답을 주시였다.

서방나라들뿐이 아니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 필리핀, 뛰르끼예, 그루지야, 뉴질랜드, 쿠웨이트, 바레인, 남아프리카 등 20여개 나라들이 조선과 외교관계를 설정하였으며 오스트랄리아가 지난 세기에 단절하였던 외교관계를 재개하였다.

이러한 사변을 두고 세계는 외교사에 없는 기적이라고 하면서 북조선고립에 동조했던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국제정치에서 차지하는 북조선의 지위에 대한 머리숙임으로 평하였다.

선군정치의 위력이 날로 강화되고 공화국의 대외관계가 급격히 확대되는 속에서 미제의 반공화국압살포위망은 산산이 무너지게 되였다. 외국의 한 군사평론가는 《시대는 변하였다. 북조선은 대미결전에서 고립되여있지 않다. 북조선은 단독으로라도 승리할수 있는 군사력을 쌓아올리면서 국제적인 대포위망을 형성하였다. 현재의 상황은 북조선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되여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선군정치가 안아온 빛나는 외교적승리였다.

찬탄의 메아리

김정일령도자에 대한 칭송과 선군정치에 대한 찬탄의 목소리는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높이 울리였다.

《북의 선군정치는 지난날 힘이 없어 강대국에 휘돌리며 살아왔던 약소민족의 설음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민족이 세계에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였다는것을 선언하였다. 선군정치로 하여 우리 민족이 세계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화려하게 등장한것이다.

선군정치는 우리 민족을 부흥케 하는 21세기의 새로운 정치방식이다. 세계최강의 선군정치! 우리 민족이 정말 자랑스럽다.》

이것은 2009년 서울에서 진행된 선군정치를 지지하는 대학생모임에서 울려나온 한 대학생의 토로이다.

그런가 하면 선군정치대토론회에 참가하였던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는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의 폭정밑에서 숨도 제대로 못쉬고있다. 하지만 이북은 자기의 존엄, 자기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에서 단 한치의 양보도 모른다. 지구상에서 진짜 존엄높고 위력한 정치가 펼쳐지는 나라로서는 바로 이북을 첫손가락에 꼽아야 할것이다. 이북의 현실은 우리 이남민중에게 무비의 담력과 배심, 철의 의지와 신념을 지니고 자주정치를 실시하시는 **김정일**장군님께서만이 이 땅의 평화와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실수 있다는 철의 진리를 더욱 똑똑히 깨닫게 하고있다.》

선군정치에 대한 칭송과 찬탄의 목소리는 세계진보적인민들속에서도 높이 울리였다.

2007년 한해만 하여도 세계 각국의 연 300여개의 정당, 단체, 지역 및 국제기구들과 각계 인사들이 **김정일**령도자께서 펼치신 위력한 선군정치를 높이 격찬하였다. 그리고 세계 130여개 나라와 지역에서 선군사상과 선군정치를 활발히 연구보급하고있으며 경탄의 목소리는 지금도 계속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아래에 그 일부를 소개한다.

《세상사람들이 그처럼 칭송하는 독특한 선군정치방식은 사회주의조선의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에 의하여 창조된것이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압살책동으로 조선이 류례없는 준엄한 시련을 겪던 지난 세기 90년대에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을 지니시고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드시였다. 조선인민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위하는 가장 옳바른 정치방식으로 열렬히 지지찬동하고있으며 충정을 다하여 높이 받들어나가고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도 조선의 선군정치를 인류의 자주위업을 추동하는 정치방식으로 지지하고있으며 그것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말하고있다.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가 있으므로 하여 조선인

민과 군대는 가장 준엄한 난국을 승리적으로 헤쳐올수 있었고 공화국의 위력과 불패성을 세상에 널리 시위할수 있었다.》(일본교직원주체사상연구회 련락협의회 세이노 가즈히꼬)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그 어떤 침략자도 타승할수 있는 군사강국으로 되였다고 긍지높이 말하는 그 밑바탕에는 **김정일**령도자의 특출한 위인상과 정치실력이 놓여있다.

조선인민이 서방세력과의 치렬한 대결전에서 련전련승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고 그 어려운 난국속에서도 인공지구위성을 성과적으로 발사하고 경제를 활성화한 그 모든 현실이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의 빛나는 결실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난국을 선군정치로 타개하시고 강성대국건설을 목표로 내세우신것은 **김정일**령도자께서만이 하실수 있는 대용단이고 결단이다.》(벌가리아 슬로보신문사 사장 겸 책임주필 빠라스께바 마르꼬의 글 《21세기의 주체조선의 존엄》중에서)

《선군정치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를 반영한 참으로 정당한 정치이다.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위업전반을 밀고나가는 선군정치방식에는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존엄을 끝까지 수호하시려는 **김정일**동지의 결사의 의지가 비껴있다.》(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부위원장 이. 아. 샤슈비아 슈빌리)

《오늘 조선에서는 외부세력의 압살책동과 거듭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커다란 난국속에서도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리익이 최상의 높이에서 수호되고있다. 조선인민군은 사상적으로뿐아니라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였으며 강력한 공격 및 방어수단을 다 갖춘 강군으로 자라났다. 조선에서 일어난

이 경이적인 현실은 한마디로 말하여 군사를 선행하는 원칙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기둥으로 내세워 전반사업을 밀고나가시는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독특한 정치방식, 선군정치의 빛나는 결실이다.》(에짚트군사과학총국 총국장 싸이드 모하마드 싸다운)

《조선의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독창적인 외교방식을 펴나가신다. 외교에서 자주의 원칙을 지키자면 그것을 안받침해주는 자체의 강력한 군력이 있어야 한다. 이전 유고슬라비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 가해진 미국의 비법적인 무력침공은 국제사회로 하여금 정치의 힘이 없이는 제국주의자들과 말조차 통하지 않는다는 심각한 교훈을 새기게 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이 일삼고있는 강권외교에 대처할수 있는 새로운 외교방식의 출현은 절박한 시대의 과제였다. 그것을 해결하신분은 바로 조선의 **김정일**령도자이시다. 조선의 외교방식은 그이께서 펴나가시는 선군정치의 대외적연장이다. 하여 조선은 미국의 강경에 초강경으로 맞서면서 치렬한 조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하고있다.》(에짚트신문 《알 씨야씨》)

우의 글들은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를 찬탄한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내용들이다.

선군정치는 오늘도 조선의 고유한 정치방식으로 되고있다.

미국의 강권과 압살책동이 아무리 악랄하고 집요해도 **김정일**령도자께서 펼치신 선군정치가 있으므로 하여 조선은 오늘은 물론이고 래일도 영원히 승리만을 기록할것이다.

맺 는 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는 오직 그이의 위대한 존함과만 결부시켜 부를수 있는 백전백승의 **김정일**정치이다.

사회주의조선의 강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나라의 통일과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던 현시대의 걸출한 정치원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2011년 12월 17일 애석하게도 서거하시였다. 이것은 조선혁명의 최대의 손실이였고 조선민족과 인류의 가장 큰 슬픔이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비록 서거하시였지만 그이의 혁명사상과 업적, 한없이 고결한 위인적풍모와 해빛같은 영상은 조선인민과 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것이다.

오늘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뜻과 인격, 풍모를 그대로 체현하신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그이의 선군령도따라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총진군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는 앞으로도 영원히 조선의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빛을 뿌릴것이다.

선군-김정일정치

편집: 탁성일
낸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인쇄: 2012년 3월 20일
발행: 2012년 3월 30일

ㄱ-2835011

전자우편(E-mail):flph@star-co.net.kp
http://www.naenara.com.kp

조선 · 평양

주체101(2012)년

ISBN 978-9946-0-0813-4

9 789946 008134 >